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Migrant Youth's Intersubjectivity in
the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2024년 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서현주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Migrant Youth's Intersubjectivity in
the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2024년 8월


지도교수 김영순 · 박수정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서현주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24년 8월

주심 최 현 식 

부심 김 영 순 

위원 박 수 정 

위원 오 명 섭 

위원 유 강 하 



국문초록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서 현 주

이 연구의 목적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현상 속에 유입된 이주민의 새로운 유형으로 모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다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자발적이고 준비 없는 이주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경험하는 청소년기 생애 발달과업과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정체성 혼란은 이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초래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이에,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중재적 개입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신체활동과 비언어적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한 창조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나와 타자 간의 주체적 관계를 이루는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상호주관성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 연구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부적응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으로 보아 지원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간다.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도입국청소년이 타자와의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성장이 일어나는 소통과 이해의 현장으로 가치를 가진다. 이에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에 나타난 자기 성장과 상호 소통의 과정을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이 연구의 이론적 렌즈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와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및 교육적 특성, 심리·정서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또한, 상호주관성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이밖에 집단표현예술치료의 개념과 특성을 중심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의 목표와 치유적 요인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 소재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에 재학 중인 7명의 고등학생 중도입국청소년들이다. 연구자는 2023년 9월 12일~12월 26일까지 주 1회, 회기당 100분간 총 12회기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활동 후, 제작한 연구참여자들의 예술작품 사진, 개인 소감문, 참여관찰지, 활동 녹화영상, 연구자 노트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낮은 타자와 환경을 경계하며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고, 주체적 인격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어디에도 없는 나’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내에서 비 다문화 청소년들과 구별된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동질 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내에서 동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고, 그들만의 이중 장벽에 막혀있는 ‘겉침으로 스며들’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주와 분리의 과정에서 억압된 상실에 대한 내면 정서를 애도하고 안전하게 표출하며 모국을 추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내적 자원을 확인하며 상호관계를 이루는 ‘회복으로 화해함’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나와 타자의 공동의미



를 확장하고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며 주체적인 상호관계를 추구하는 ‘부유(浮遊)하지 않는 유목’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접어든 한국 사회 다문화현상의 가속화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이며 취약계층인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하여, 다양한 세계관과 성숙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세상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강점을 지닌 다문화사회에 부합하는 세계 시민의 원형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삶의 성장과 자립을 이루어 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상정하며 상호주관성의 논의를 확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장기 청소년들로,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한 타자 인식과 상호 존중의 과정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다양한 문화의 접침과 소통, 정서적인 돌봄의 관계 회복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생애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이주와 분리라는 심리 외상을 통합하며 자기 삶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성장을 꿈꾸었다.

본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과 재정립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와 타자 간의 상호주관적 관계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이 그들의 이주맥락을 고려한 세분된 중재적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생애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가 이들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 수립에 유익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중도입국청소년, 표현예술치료, 집단표현예술치료, 집단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차문화, 상호주관성, 심리외상, 상실, 애도, 이주민 정신건강, 적응, 질적 사례연구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	6
3. 선행연구 고찰	7
4. 연구 동기	15
II. 이론적 논의	17
1. 중도입국청소년의 이해	17
1.1.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17
1.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	19
2. 상호주관성과 집단표현예술치료	26
2.1. 상호주관성에 관한 담론	26
2.2. 집단표현예술치료의 개념과 특성	33
2.3.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	38
III. 연구 방법	43
1. 연구개요	43
2. 연구참여자	47
3. 자료수집 및 분석	51
3.1. 자료수집	51



3.2. 자료분석	55
4. 연구 윤리	57
4.1. 연구의 엄격성	57
4.2. 윤리적 고려	58
IV.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61
1. 프로그램 개요와 목표	61
1.1. 프로그램의 개요	61
1.2.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설계모형	62
2. 프로그램의 구성	66
2.1. 프로그램의 구성과정	66
2.2.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단계 및 내용	72
2.3. 단계별 프로그램 과정 및 내용	74
3.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최종안	82
3.1.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내용	82
3.2. 프로그램 단계별 계획안 예시	84
V.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87
1. 연구참여자 A: 돌봄을 나누며 성장을 꿈꾸는 ‘꿀민우’	89
2. 연구참여자 B: 과거와 미래 중간에서 나를 찾는 ‘배트맨’	98
3. 연구참여자 C: 자신을 발견하고 시선에서 자유로운 ‘스파이도맨’	107
4. 연구참여자 D: 가족의 꿈을 위해 마음을 감춰둔 ‘위스키’	115



5. 연구참여자 E: 마음 나눌 친구를 찾는 ‘제키찬’	122
6. 연구참여자 F: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천사’	130
7. 연구참여자 G: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싶은 ‘한아타’	137
8. 소결	146
VI. 집단표현예술치료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의 의미	148
1. 어디에도 없는 나	149
1.1. 낯선 환경에 압도당함	149
1.2. 변화를 공격으로 인식함	152
2. 겹침으로 스며듦	157
2.1. 위장된 친밀감	157
2.2. 뜻밖의 탄성	161
3. 회복으로 화해함	167
3.1. 공유된 애도	167
3.2. 서로에게 보이는 우리	172
4. 부유(浮遊)하지 않는 유목	177
4.1. 나의 나이를 찾아감	177
4.2. 품이 넓어진 성장	182
5. 소결	187
VII. 결론	189
1. 요약	189



2. 논의 및 제언	194
참고문헌	200
Abstract	223
부록	227



표 목차

<표 I-1> 프로그램 중재 기법 및 매체 융합방식	11
<표 II-2> 부처별 중도입국청소년 정의 및 현황	18
<표 III-1> 연구 절차	45
<표 III-2>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	47
<표 III-3> 연구자료 목록 및 내용	54
<표 IV-1>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내용	63
<표 IV-2>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64
<표 IV-3> 프로그램 구성과정과 내용	66
<표 IV-4> 프로그램 초안의 목표 및 내용	67
<표 IV-5> 1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내용	68
<표 IV-6> 1차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70
<표 IV-7> 2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내용	71
<표 IV-8>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내용	82
<표 IV-9> 프로그램 초기 단계 1회기 계획안	84
<표 IV-10> 프로그램 중기 단계 3회기 계획안	85
<표 IV-11> 프로그램 후기 단계 11회기 계획안	86
<표 V-1> 연구참여자의 프로그램 단계별 변화과정	88
<표 V-2> A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89
<표 V-3> A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90
<표 V-4> A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92



<표 V-5> A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94
<표 V-6> A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96
<표 V-7> B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98
<표 V-8> B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99
<표 V-9> B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02
<표 V-10> B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03
<표 V-11> B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05
<표 V-12> C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07
<표 V-13> C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08
<표 V-14> C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10
<표 V-15> C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12
<표 V-16> C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13
<표 V-17> D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15
<표 V-18> D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16
<표 V-19> D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18
<표 V-20> D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19
<표 V-21> D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20
<표 V-22> E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22
<표 V-23> E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23
<표 V-24> E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25
<표 V-25> E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26
<표 V-26> E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128



<표 V -27> F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30

<표 V -28> F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31

<표 V -29> F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33

<표 V -30> F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34

<표 V -31> F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36

<표 V -32> G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37

<표 V -33> G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39

<표 V -34> G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41

<표 V -35> G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43

<표 V -36> G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144

<표 VI-1>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148



그림 목차

[그림 II-1]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구성	17
[그림 II-2]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	38
[그림 IV-1] 프로그램의 설계모형	64
[그림 IV-2]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단계 및 내용	73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동의서	227
<부록 2> 연구 참여동의서(아동 · 학부모용)	232
<부록 3>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 사항(추가 동의서)	235
<부록 4> 사전 면담지	236
<부록 5> 개인 소감문	239
<부록 6> 프로그램 2회기 계획안	240
<부록 7> 프로그램 4회기 계획안	241
<부록 8> 프로그램 5회기 계획안	242
<부록 9> 프로그램 6회기 계획안	243
<부록 10> 프로그램 7회기 계획안	244
<부록 11> 프로그램 8회기 계획안	245
<부록 12> 프로그램 9회기 계획안	246
<부록 13> 프로그램 10회기 계획안	247
<부록 14> 프로그램 12회기 계획안	248
<부록 15>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활동사진	249
<부록 16>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개인별 작품집과 협동작업 사진	2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의 주요 현상인 국제 이주로 인해 빠르게 전환하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현상 가운데 국제 이주라는 초국적 교류는 문화와 언어 간 겹침의 부분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겹침의 부분을 넓혀간다는 것은 낮은 것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주광순, 2015: 44)임에도 우리 사회는 낮은 겹침의 다문화현상에서 야기되는 인종적 다수집단과 소수 집단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가운데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심승우, 2022). 따라서 한국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 통합정책에 우선하여 사회구성원이 만들어 내는 사회 내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순, 2023: 63).

2024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50만 7천 명을 넘어섰다(법무부, 2024).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 또한 최근 들어 그 유형과 수가 다양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들의 유형에는 국제결혼가정 외에도 중국 조선족, 이주노동자 부모와 자녀,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및 독립국가연합(CIS) 권역 출신 고려인 후손 등이 포함된다(서은주, 2021). 그중 외국에서 성장기를 거쳐 입국하는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양미진 외, 2012; 연보라 외, 2019).

중도입국청소년¹⁾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는 다른 생애 발달 및 환경적 특성이 있다. 이들은 모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여 언어 및 문화의 사회화를 거친 청소년으로, 넓은 세계관과 성숙한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과 다양한 문화의 가치에 대해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유연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2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강점

1) 중도입국청소년이란 결혼이주민의 본국에서의 전혼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인 어머니나 아버지의 본국에서 청소년기까지 자라다가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 외국인 부모의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함께 한국에 온 청소년, 한국에 별다른 연고 없이 일을 하거나,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모국에서 성장기를 거치고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경험을 가진 9세에서 24세의 연령인 자”로 정의한다(여성가족부, 2022).

이 있어 ‘21세기 시민의 원형’이라는 말에 부합된다(Pollock, 1999). 반면,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모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다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자발적이고 준비 없는 이주가 이루어진 경우다. 따라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과도기 발달과업을 이루는 시기에 급격한 신체 변화와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정서적 혼란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주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외상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이은정, 2019).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문화 학생 전문 상담 현황 및 사례분석 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의 주된 이유는 부모 이혼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한 양육 관계의 결핍, 부모 자녀 간 애착 결핍, 고향과 친구들과의 준비 없는 이별 경험, 체류 지위와 거처 불안 및 안정된 삶에 대한 위협 등으로, 상실과 애도에 대해 해결되지 않고 억압된 정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억압된 정서는 이주 후 새로운 가족 형성,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언어소통의 제약과 맞물려 부적응을 초래하며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심리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 학생 상담 현황 중 중도입국청소년의 상담 비율은 전체 상담 중 약 37.3%로 국내 출생 학생들의 상담 비율 62.7%의 절반을 차지해 중도입국청소년이 받는 심리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을 나타낸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특히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생활은 적응과 정착이 아닌 거주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는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에 대한 접근은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적인 자기 탐색과 실천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주목한 것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때문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과 관련하여 이들은 미해결된 과제를 지닌 채 올바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개념을 인식하며 내적 가능성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중도입국청소년은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심리 내적으로 정서적 위축, 자신감 상실 등 심리적 어려움과 외현적으로 가출, 무단결석, 폭력 등 부적응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중도입국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 제도권의 보호나 심리·정서 지지 없이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자립에 대한 요구 또한



이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처럼 중도입국청소년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서적 부적응을 겪거나 적절한 사회적 역할수행이 부재한 경우,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된다(김명정, 2011; 한은진, 2013).

정부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현행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에 관한 근거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주무 부서로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주관으로 전국 17개의 시도 218개의 다문화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²⁾와 이주배경지원재단에서 전국 11개 시도 27곳에 위탁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레인보우스쿨)가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기관의 위탁형식 운영은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및 심리·정서적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위탁기관의 성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위탁기관에서 지원하는 심리·정서 프로그램 성격도 대부분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드러나는 부정 정서 및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이고 단회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중도입국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의 주체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이주 후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접하며 문화의 접침을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충격이 발생하고 자아정체성의 혼란도 겪는다(최대희, 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은 자국 문화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자기개념에 대한 확신이 거부되는 무능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청소년 발달기에 모국에서 형성한 사회화 과정과 정체성을 인정하며 새로운 환경과 대면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이 건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루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나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미래 삶에 대한 전환을 위하여 상호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박지영, 2018; 배교선, 2023; 송민애, 2010).

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자활 정책 참여 부모와

2)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가족센터는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가족은 물론 다문화가족 등 취약 가족, 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결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녀 간의 상호주관성을 탐색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자활 정책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 간 정체성 인식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고 자기 인식을 정립하며 미래를 전망하였다(박해선, 2020). 호주의 청소년 상호주관성 연구에서는 다문화 힙합 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인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고 문화간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힙합 예술 활동에서 일상적인 다문화가 내재한 상호주관성과 다양한 문화가 지닌 과거와 현대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상호주관성은 현재 문화뿐 아니라 시대적 지식까지 전달하며 사회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된 소속감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Leung 외, 2008: 173). 상호주관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박해선, 2020)되며, 특히, 예술을 통한 상호작용은 문화적 변화에 두려움을 가진 개인에게도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상호주관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Betz, E.,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주관성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체성 재정립과 상호주관성 형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창의적인 예술 작업은 친밀감을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매개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도입국청소년이 이주와 재적응의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어려움을 다양한 예술을 활용한 심리치료를 통해 상호주관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며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와 분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역동과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중재 방식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집단표현예술치료는 집단상담과 표현예술치료를 결합한 것으로, 집단원들과 함께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이루는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과정은 예술 활동과 치료적인 작업을 통합해 준다. 결과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나와 타자의 상호작용 과정은 공감을 이루게 되며 이는 곧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는 치유로 빠르게 나아가 성장하도록 돕는 지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술의 장르, 즉 동작, 드로잉, 회화, 조소, 음악, 글쓰기, 소리, 즉흥극 등 두 가지 이상의 예술 매체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형태의 심리치료이다(Rogers, N., 2007:

2). 표현예술치료는 개인의 억압된 내면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여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인지·정서 측면의 치유와 성장을 도와 자기개념을 향상하며 자기의 내면과 외현적 확장을 도모한다(김미경, 2020; 성수나, 2021; 조월미 외,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비자발적이며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특성,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상실에 대한 심리 외상, 이중문화 스트레스 및 언어소통의 제약으로 자신 개방과 표현을 거부하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다양한 표현의 도구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중재가 된다. 결과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이주와 분리로 인한 상실의 심리 외상 문제를 안전하게 표출하고 내면의 창조성을 일깨우며 정체성을 재정립함으로써 나와 타자에 대한 경험을 촉진하여 관계성을 이루는 상호주관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경계 지어진 체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현실 세계의 맥락 안에서 체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상세히 기술하게 된다(Stake, 1995, 2000). 이러한 질적 연구는 시간과 장소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 내에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지 이해하거나, 발현한 현상이 발전하는 과정을 규명한다(Creswell, 2007). 이를 통해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제한성, 맥락성, 구체성, 복잡성, 현재성에 대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유기웅 등, 2018). 이에서 발견된 결과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집단표현예술치료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을 실제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도래한 우리 사회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을 살펴본다. 특히,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여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참여 경험사례를 분석하고, 참여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 1.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2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상호주관성 관점의 의미로서, 상호주관성 이론에서 도출된 요소들을 범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I장은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선행연구 고찰, 연구 동기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II장은 이론적 논의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상호주관성에 대한 담론과 집단표현예술치료의 개념과 특성,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을 살펴보았다. III장은 연구 방법으로 전체적인 연구 흐름을 정리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기초로 연구 개요, 연구 참여자,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연구 윤리 부분을 기술하였다. IV장은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기술로, 프로그램의 개요, 목표, 구성과정 및 내용을 기술하였다. V장은 연구 문제 2와 관련한 결과로써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단계별 내용을 연구참여자별 초기, 중기, 후기로 작성하였다. VI장에서는 집단표현예술치료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을 범주화하여 정리하고 치료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VII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와 정책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2010년경부터 시작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 주제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초기 연구는 교육적 측면의 지원에 집중하였다(김은경, 김현주, 2017; 김진희, 2011).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며 심리·정서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서현주, 오영섭, 2022; 성수나, 2021; 오영섭, 2019; 왕금미, 2017; 최미희, 박재연, 2022). 이후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이주 후 성장함에 따라 대학 진학, 진로 선택, 취업장벽, 삶의 만족도 연구 등 자립에 관한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탐색하는 연구로 확장하였다(고은영, 김민선 외, 2022; 채소린, 2021; 최성지, 김민선, 2022). 이처럼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해서 교육지원 외에도 한국에서의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제약 및 자립 등 실제적인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서 회복, 자아정체성 확립 등 정신건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미경, 2020; 김현주, 2016). 이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다른 유형의 독특성이다. 양미진 외(2012), 이재희 외(2014)는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문화 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그들의 독특성으로 인해 적응 지원정책에 차별성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송민경 외(2017)은 중도입국청소년이 이주 후 초기 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면의 자기 긍정성과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서덕희(2013)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다문화가정’으로 통칭하여 이들이 처한 맥락 사이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이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음을 밝히며 이들의 관점에서 이주와 정착의 맥락을 이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이주와 분리에 따른 심리 외상의 문제이다. 석희정 외(2015), 최영미 외(2020)는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의 경험이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경험은 이들에게 자신의 근거를 박탈당한 유예인, 버려짐의 트라우마를



남겨 적응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존감 회복이 적응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주장하며 이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회복에 대한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지지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소년 생애 발달기 특성이다. 조혜영(2012)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청소년 생애 발달기 특성’에 주목하며 이주배경 청소년이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 부적응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피력하며 정체성 형성과 적응을 이루는 세분화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넷째, 또래 관계 및 학교생활의 문제이다. 이남주 외(2017), 이병철 외(2011)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내적 적응 외에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성을 밝히며 학교는 이들이 한국 이주 후 소속되어 학습과 또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회화 기관임에 주목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어, 출신국과의 교과과정 진도 및 수준 차이 등으로 학습 성취의 어려움, 또래의 왕따 경험 및 교내 활동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환경 적응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적응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정체성 재정립의 문제이다. 서은숙(2016)은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교육, 이민정책 정향교육 지원, 통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연대교육, 가치교육 연구를 통해 현행 학교 다문화교육을 분석하고 ‘교육을 통한 정체성 함양’ 등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 배경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정체성 함양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수경(2021), 김영순 외(2012), 남부현 외(2017)는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 후 다양한 문화충격을 경험하며 적응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적응을 위한 조건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은 다양한 유형만큼이나 한국인 정체성과 동질성 개념은 상이하였다. 이는 문화 적응 과정에서 불안과 고립 등의 정서 문제를 야기하거나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한 정체성 혼란까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러한 정체성 혼란 상황에서 학교 서비스가 적응을 위한 보호 요인이 되어, 정서적 지지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문화 적응프로그램이라는 교육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송원일, 유진이(2020)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체성 재정립에 ‘개인 및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주배경 귀화 청소년의 경우 또래 관계에서 얻게 되는 낙인과 차별이 있으며 이는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체성을 억압함으로써 정체성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귀화 중



도입국청소년은 개인 및 사회적 기준의 차이, 포함과 배제에서 오는 갈등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였다(서덕희, 201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주민의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중도입국청소년 또한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내면을 강화할 수 있는 심리·정서 지원을 제안하였다(송원일 외, 2020).

여섯째,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협력이다. 전경숙(2020)은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이주 후 성장함에 따라 학교뿐 아니라 청소년 기관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학교 재학생 외에도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비제도권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소외, 방황 등, 다양한 부정 정서를 호소하더라도 제도권의 도움 없이 홀로 버티기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주변 지지체계가 빈약할 경우 사회 부적응 극복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부적응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족과의 친밀감,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지 등,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더욱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을 포괄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사회 정책적인 개입과 서비스 범위의 확대, 지역사회 멘토링 제도 활성화 및 진로 교육체계 정비 등 향후 정책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김효정 외, 2018; 박선웅 외, 2013; 설진배, 2021).

중도입국청소년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인 적응은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도입국청소년이 가지는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차이 특성, 이주와 분리에 따른 심리 외상의 회복, 청소년 생애 발달기 특성, 또래 관계 및 학교적응, 정체성 재정립, 가족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협력 등에 주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적응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정신건강에 대한 중재 지원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체계 있는 중재가 지속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은 낙인과 차별에 대한 인식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주체성을 억압할 경우,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들의 정체성 혼란과 억압된 정서를 다루어 주체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체성 재정립을

개인의 영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나와 타자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주관성³⁾에 주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을 포괄하는 이주 배경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예술 기반 심리치료 중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술연구데이터베이스인 RISS에서 이주배경, 중도입국, 다문화, 정신건강, 심리치료, 상담,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표현예술치료 등 10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 결과, 총 973편의 학술지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가운데 중복 논문, 문헌 연구, 연구 대상 및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100편을 연구 대상, 연구주제, 연구 방법, 중재 기법, 사용 매체, 프로그램 진행방식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①연구 대상은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 12편, 다문화가정 유아 2편, 다문화가정 아동 52편, 다문화가정 청소년 12편, 중도입국아동 3편, 중도입국청소년 16편, 기타(유학생, 난민, 해외 교포 청소년) 3편으로 나타났다. ②연구주제는 개인 정서, 자아상, 심리 외상, 대인관계, 사회성, 발달 및 재활, 교육, 진로, 인권 등을 단독 혹은 중복으로 설정하였다. ③연구 방법의 경우 질적 연구가 20편, 양적연구가 76편,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활용한 연구는 4편이었다. ④프로그램의 진행형식은 개인치료가 20편, 집단치료가 84편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집단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제시된 결과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대상과 주제는 다양하지만, 양적연구를 활용한 집단 형태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화과정과 집단의 역동 등 상호관계를 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⑤중재 기법 및 매체 융합 방식은 다음 <표 1-1>과 같다.

3)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고 생애 발달기의 공통성이 있는 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 결과, 박해선(2020)은 국내 자활 정책 참여 부모와 자녀 간 상호주관성 연구에서 한국의 소수자 정책은 주 호소 문제에 대한 해결 중심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이 소홀하였음을 문제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자활 정책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주관성의 관점과 현상을 탐색한 결과, 자활 정책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 간 정체성 인식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며 자기 인식을 정립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상호주관성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Betz, E.(2014)는 호주 청소년의 다문화 힙합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문화와 세대 간에 창의적인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조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은 다문화 힙합 예술 공연을 통해 문화간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호주의 힙합 활동에서 일상적인 다문화가 내재한 상호주관성과 다양한 문화가 지닌 과거와 현대의 지식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상호주관성은 현재 문화뿐 아니라 시대적 지식까지 전달하며 사회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된 소속감을 재구성하였다(Leung 외, 2008:173). 연구 결과, 힙합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은 문화적 변화를 두려워하는 개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낯선 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상호주관성을 이룰 수 있음이 나타났다.

〈표 1-1〉 프로그램 중재 기법 및 매체 융합 방식

중재 기법		
단일 매체(논문 수)	복수 매체(논문 수)	
미술치료(61), 음악치료(6), 모래놀이 치료(6), 언어상담(4), 무용/동작(3), 놀이치료(2), 자연물 매개 활동(2), 심상 치료(1),	표현예술치료 및 통합예술치료(13)	
	<table border="1"> <tr> <td>매체 융합방식</td> <td>미술+놀이, 무용/동작+미술, 숲 체험+미술, 요리+미술, 음악+연극, 연극+언어치료, 독서+놀이,</td> </tr> </table>	매체 융합방식
매체 융합방식	미술+놀이, 무용/동작+미술, 숲 체험+미술, 요리+미술, 음악+연극, 연극+언어치료, 독서+놀이,	

〈표 1-1〉과 같이 심리치료 중재 기법별 논문 수는 미술치료 61편, 표현예술치료 및 통합 치료 13편, 음악치료 6편, 모래놀이 치료 6편, 언어상담 4편, 무용/동작 치료 3편, 놀이치료 2편, 자연물 매개 활동 2편, 심상 치료 1편 등으로 대부분 비언어적 매체를 활용한 심리치료를 실행하였다. 사용된 매체는 미술, 음악, 무용/동작, 독서 등 예술 및 인문 매체 한 가지를 사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두 가지 이상의 매체를 융합한 표현예술치료와 통합 치료는 미술+놀이, 무용/동작+미술, 음악+연극, 독서+놀이, 숲 체험+미술, 연극+언어치료, 음악+연극, 요리+미술 등 신체 동작 활동과 예술 매체를 두 가지 이상 활용하였다.

첫째, 심리치료의 연구 대상은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유아, 아동·청소년 및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및 유학생과 난민, 해외교포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루어져 모든 연령대의 대상에 적용이 가능한 심리치료로 활용되며 특히 아동·청소년층에게 활용하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재 기법의 대부분 다양한 비언어적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 방법은 미술치료이며 대부분 한가지 매체만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나 예술과 무용/동작, 심리극 및 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감각을 자극하고 창조성을 자극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용/동작과 미술 등 두 가지 이상의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한 표현예술치료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심리치료의 주제는 정서 및 자아상 회복, 재활 및 심리 외상치료 등 개인 내적인 영역과 애착 관계, 또래 관계, 사회 적응, 사회성 향상 등 정체성 발달과 상호적 관계 향상을 목표로 다양하게 진행하여 결과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형식으로 진행하여 또래 관계 및 대상과의 상호작용 및 사회성을 다룬 연구의 대부분은 양적연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발달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실행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정량적인 결과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들이 청소년 발달기 변화 및 또래 상호관계에서 어떠한 역동이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질적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이 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창조적인 예술창작 및 신체활동을 통해 또래 간 상호 소통하며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여 정성적인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가진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른 유형의 특이성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와 분리의 문제를 프로그램 회기에서 직접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이주와 분리로 인한 상실의 문제를 비언어적 표현예술 매체로 표현하고 함께 애도하며 억압된 내면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확인하고 지지받으며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의 중재적 개입으로 독창성을 가진다.

더불어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표현예술치료⁴⁾ 질적 연구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에 활용된 치료 방법은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 치료, 이야기 치료, 드라마 치료, 지역사회 기반 예술치료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었다(곽승주, 전순영, 2013; 김나영, 이정민, 정미지, 2016; 김유리, 박소정, 2021; 김지인, 2017; 송경실, 2017; 서현주, 2023; 오영섭, 2019; 이주실, 2010; Edelbi, 2020; Feen-Calligan, H. et al., 2023). 프로그램에 사용된 매체 및 기법은 난화, 포토 보이스, 동화, 영화, 비지시적 극놀이, 전통 놀이 등 다양하였으며 모든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치료기법을 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아존중감 향상, 자신감 향상, 심리 외상 회복 등 심리적 어려움 완화와 같은 개인의 심리 내적 영역, 자기감정 표현, 자아 정체감 형성, 자기 통제력 향상, 자기 개방 등 자기개념 및 역량에 관한 영역, 가족 내 역할 인식 증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 완화, 리더십과 협력 자질 배양, 성찰적 대화 훈련, 공감을 통한 상호주관성 발달, 다른 집단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공동체 공존의

4) 표현예술치료(Expressive Arts Therapy)는 통합적 표현예술치료, 창조적 예술치료 (inermodal expressive therapy) 또는 학제 간 통합적 예술치료라고도 불리는 창조적인 미디어를 사용하는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신지은, 박부진, 2014).

가치와 의미 성찰 등 관계적 영역으로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선행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개인의 심리·정서 회복과 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집단원과 주어진 공간을 즐기는 상호작용, 공동체 내에서 공존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는 상호주관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난민 이민 청소년을 연구한 해외 논문(Edelbi, 2020; Feen-Calligan, H. et al., 2023), 남한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상징적인 공동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공존을 통한 상호주관성의 의미를 피력한 연구로 소수에 불과하였다(김유리, 박소정, 2021). 이러한 결과는 해외의 사례 및 남한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라는 이질집단의 상호주관성을 탐색한 것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를 경험한 동질 집단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나와 타자의 상호관계적 개념을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한국 이주 후 정체성 재정립과 성장과 발달을 위해 중도입국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상호주관성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을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상호주관성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타자와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상호주관성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요구와 영역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정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이들이 경험한 이주와 분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한 가족 해체, 재결합, 버려짐의 경험인 심리 외상을 회복해야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이주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프로그램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이주와 분리로 인한 상실의 심리 외상을 다루는 회기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한 유형으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이주와 정착의 맥락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는 동화주의가 아닌 상호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내적인 자기 탐색과 이해를 비롯하여 집단원들과 함께 상호작용하고 공동 작업 가운데 사회성을 기르고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하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상호주관성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생애 발달기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의 다양한 영역은 생애 발달과업과 연관이 있다. 효과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중재 시 연령분포 및 구성원의 동질성을 확보한 맞춤형 예술치료 실행이 중요하다. 이들은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더라도 청소년기 특성으로 인해 도움을 청하기를 원치 않으며, 언어적 소통의 제약으로 내면의 문제를 언어로 표현하지 않거나 또래 친구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다룰 수 있도록 하며, 비언어적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의 방안을 제공하는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신체활동과 비언어적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표현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중도입국청소년 이주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문화상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 사회,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상호 문화적 상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문화상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담사와 치료사들을 위한 다문화상담 인식 조사 및 교육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다양한 타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 경험과 이해 및 심리치료 역량을 갖춘 연구자가 다문화상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중도입국청소년은 적응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긍정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중재적 개입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내적 역량을 주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시사점을 연구참여자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4. 연구 동기

연구자는 20대 초반부터 해외 선교 훈련과 활동을 해왔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간 세계 약 30여 개국에서 60여 차례의 선교를 경험하였다. 선교사 훈련 과정을 마쳤고 2년간 단기선교사로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사역을 수행하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그 시간 들은 연구자에게 때로는 선교사로서 혹은, 이방인으로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연구자는 그 과정 동안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기다리고 혹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워가는 경험을 가지며 열정을 부었던 시간이었다.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연구자는 소외되고 무능해지는 많은 순간을 경험했지만,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가며, 동등한 위치에서 삶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타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실천적인 경험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가진 연구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비언어적 소통의 도구로 그들을 더 깊이 만나고자 석사과정에서 예술심리치료학 표현예술심리치료를 전공하였다. 연구자는 다양한 나라에서 경험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현장의 경험을 학문적 이론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다문화 다인종 배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돌봄과 적응을 돕는 문제를 연구하고 전문가적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예술심리치료사로서 주로 해외에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엘살바도르 미혼모들의 치유와 적응, 해외 거주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등 표현예술치료를 통해 타문화의 다양한 대상을 만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연구자는 해외 선교를 통해 다양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던 중, 한국 사회 역시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중도입국청소년을 만나 1년간 개인 예술심리치료를 하게 되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생소한 단어와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울음이 가득한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자살을 시도하고 말문을 닫아버린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어렵사리 들으면서 처음 든 생각이 “어린아이의 인생이 너무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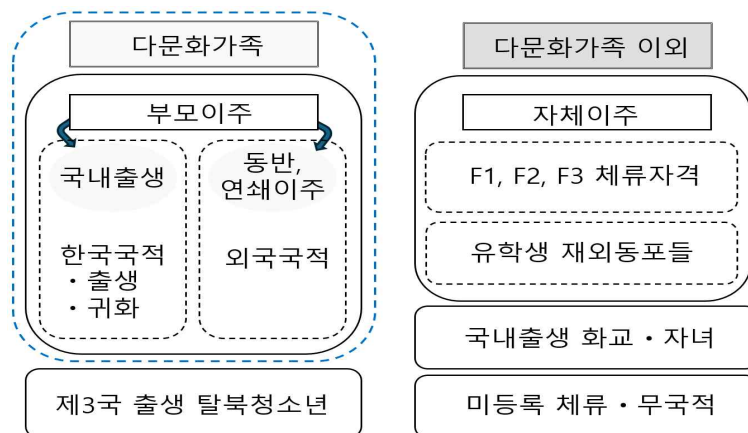
난하다” 였던 기억이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을 만날수록, 연구자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자신의 모국에 있었다면 그들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하거나, 자기 역량에 대해 이토록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 적응과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자기의 뿌리를 모두 잃고 혼자가 된 이 아이들이, 떠나온 고향과 가족, 헤어진 친구들 등 상실한 것에 대한 애도와 새로운 재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심리치료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연구자는 학위논문을 준비하며 문득 연구자가 처음으로 만났던 중도입국청소년의 소식이 궁금했다. 그 아이는 현재 고등학생이 되어, 우수한 성적으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아이의 삶의 여정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가며 아름답게 성장하였다는 소식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격려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연구 동기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선교사 훈련에서 경험한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 및 언어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와 언어소통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이 창조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말하는 이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으며 이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편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대해 탐색하게 되었다.

II. 이론적 논의

1. 중도입국청소년의 이해

1.1.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정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 외국인 가정 자녀 및 탈북청소년 등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가진 9세~24세 이하 연령에 속하는 이들을 통칭한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23).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법률상 근거와 개념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외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언어학습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자이다(김이선, 2016).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 또는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가정에 속한 국내 출생 자녀들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정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으로, 다른 한 명이 외국 출신으로 구성된 가정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구성은 다음 [그림 II-1]과 같다.



출처: 김이선 외(2016:6) 재구성

[그림 II-1]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구성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의 다양한 구성은 첫째,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으로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외국인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한 경우이다. 둘째, 근로 및 학업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기에 입국한 경우이다. 셋째,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북한 이탈주민 또는 제3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이다. 다섯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자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자이다. 여섯째, 외국 국적 청소년으로, 이상의 모두를 중도입국청소년이라 한다(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을 다시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면, 결혼이민자의 전혼 출생 자녀와 한국에 취업한 부모의 동반 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되게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았거나 한국을 오랜 기간 떠나있다는 특징이 있다(전경숙, 2017). 이 연구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독립국가연합(CIS) 권역 출신 고려인 후손으로 부모의 한국 이주로 인해 동반 이주한 외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교 재학생인 자로 정의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법과 정책은 이들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정책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2> 부처별 중도입국청소년 정의 및 현황

구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정의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북한 이탈 중도입국)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⁵⁾	결혼이민자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귀화자의 자녀(국내 출생 자녀 포함)
호칭	중도입국청소년	중도입국학생	중도입국자녀
현황	2020년 11,135명	2020년 9,151명 2021년 9,427명	2020년 3,587명
	2021년 11,657명	2022년 9,938명 2023년 10,896명	2021년 3,240명
출생	본국, 제3국		



구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입국시기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혹은 청소년기		
체류자격	국민	외국인	
연령	9-24세	9-18세	
부모국적	부모 중 1인 한국인	외국인	

출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1)·교육부(2023)·법무부(2021) 재구성.

<표 II-2>에 제시된 것 같이 여성가족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 하여 ‘결혼이민자의 전혼 출생 자녀’를 의미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이라 칭한다. 교육부는 ‘외국에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정책 범위를 한정하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만을 포함하며 ‘중도입국학생’이라 한다. 이밖에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라 칭하며 이들의 정의를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이민 배경 자녀’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으로 기술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정의는 관련 부처 중 가장 넓게 정책 범위를 정하였으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19-24세의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 부서별 정의와 정책 범위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중도입국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민정책연구원, 2021).

1.2.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

1.2.1.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적 특성

2023년 교육부 교육 기본통계는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를 181,178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년 12,533명 대비 7.4% 증가한 수치로 전체 중도입국자녀는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교육부, 2023).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교육 기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그 권리가 보장된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⁵⁾는 불법

5)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제19131호), 2023년 6월 28일 시행.



체류 이주노동자 자녀까지 학교교육 기회를 허용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부분 개정하고 학교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교육 기회는 시행령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에 입국 후 학교 입학을 신청할 때, 학교장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학교장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입학을 거부하면 사실상 입학이 어려웠다(류방란, 오성배, 2012; 조영달, 2006). 이는 2020년에 와서야 비로소 입학 신청 방식이 학교장 승인에서 교육장 배정으로 변경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일선 학교 대부분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교육 기회뿐 아니라 특별학급 운영이나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수용 및 운용의 노력과 중도입국청소년을 바라보는 학교 내 시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환경이 안정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학습목적과 현재 중등 교육기관의 학교 운영 방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재 중등 교육기관의 교육은 입시 준비와 성적 향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서툰 한국어 소통 능력과 학습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수용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류방란 외, 2012). 중도입국청소년이 공교육에 진입하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학이나 취업 등 자립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배상률, 2016).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학교는 한국 이주 후 첫 사회화 기관이며 한국 적응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한국어 및 학업성취의 어려움, 학습언어 습득을 위한 환경 부족, 또래 관계의 어려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 몰이해 및 일부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교사와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다. 더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지원 조차도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하여 ‘시혜받는 자’로 인식되는 왜곡된 자아를 형성하는 등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류방란, 오성배, 2012).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친구나 불특정 타인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경험은 11.3%에서 23.7%로 급증하였고 학교 현장에

6) 현재의 교육부에 해당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령을 관할하고 있다.



서 사회적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학교생활 어려움과 차별 경험은 중등 학령기를 지나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학교 편입과 한국어 습득에 방해요인이 된다(이민정책연구원, 2021). 교육 현장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운용함에도 중도 탈락한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재학여부는 심리 정서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감소 등 심리·사회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조혜영, 2012).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이 학교생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제도권 안에 소속되어 또래 관계와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성장기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소속된 제도권 내에서 이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중재적 개입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모국에서 언어습득과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가치관을 일정 부분 정립한 후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겪는 언어장벽과 문화 및 제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다. 대부분 부모의 결정으로 비자발적이고 준비 없이 이루어진 이주와 이에 따른 분리에 대한 정서적 충격,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제반 서류 미비, 입시 준비에 집중된 학교 교육에서 실감하는 학력 격차 등, 현실적 난관에 부딪힌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모국에서 가지고 있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져 부적응을 호소하게 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 이주 후 성장함에 따라 취업 및 자립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홍영균, 2017). 그러나 자기 적성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적응 및 자립의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오승환, 좌현숙, 2015). 이는 개인의 성장 및 자립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서의 삶을 희망하면서도 현실 상황에서 개인의 대처는 소극적이거나 지지기반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배상률, 2016).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관점과 중재적 개입 또한 이전과는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1.2.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구별되는 이들의 이주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이주에 관한 주된 이유는 대부분 이들의 부모가 새로운 사회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경우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부모들은 노동,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질병 치료의 목적이나 가족의 해체 및 재결합 등의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자란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출신국에서 태어나 언어습득과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정체성을 형성한 후 이주한다. 특히 정체성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며 가장 먼저 언어·문화 등 다양한 장벽에 부딪힌다. 이들이 당면한 장벽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이주 과정의 학업 공백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한 성취의 좌절, 출신국과 교육과정의 차이, 공교육 진입 실패로 인한 교육 혜택 수혜의 어려움, 교육기관을 통한 또래 관계와의 사회성 발달의 기회 부족 등이다. 중도입국청소년 대부분은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에 의해 한국 입국을 결정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는 자신의 선택보다는 부모의 상황에 맞춰 한국 입국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김강남, 2019; 김재훈, 황지연, 2023; 박은희, 2023; 조혜영, 2020).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이주의 단계부터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중도입국청소년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 부적응, 가족 내 갈등 심화 및 부모와 자신 간의 심리적 거리감의 문제 등 개인 내적인 어려움과 가족 내의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다양한 심리 외상과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하여 노출되는 심리·정서적 특성 알 수 있다(이은정, 2019).

Erikson은 “성장하는 모든 것은 계획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의 기능적인 통일체를 정리하는 시기를 지난다” 고 하였다(Erikson, 1963: 270; 박아청, 2010 재인용).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도 보호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 외상과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보호 요인



및 중재적 개입이 미흡하다. 이러한 부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적응과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로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진다.

2021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에서 시행된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과 비이주배경 청소년의 1년 심리상담 경험을 비교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이주배경 청소년(6.9~26.7%)이 비이주배경 청소년(2.5%)보다 3배~11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도 9~12세(14.7%)보다 19~24세(20.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상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중도입국청소년은 갑작스러운 문화충격과 비자발적 이주로 인한 심리 외상, 분리와 이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억압된 감정이 있다. 이밖에 학교 생활에서 외모나 문화 차이로 또래 집단의 차별과 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가족의 해체와 분리 및 부모의 재혼으로 새로 형성된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전경숙, 2020). 이는 고향과 친구와 준비되지 않은 이별, 미래 희망 좌절 등의 상실감, 심리적인 고독감과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 등 다양한 심리 내적·사회적, 환경적 상실이라는 복합적인 심리적 외상 경험으로 성장기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신체·심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성장 발달을 왜곡하여 신체 및 심리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Malchiodi et al, 1999; 김동연 외 역, 2003). 중도입국청소년은 청소년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환경과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자아정체성을 찾는 시기이므로 이들이 겪은 상실로 인해 이러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적응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할 때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성장기 아동·청소년 인간 발달과정에서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Varma, 1996; 박선영, 2013). 따라서 이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송원일, 유진이, 2018).

상실이란 인간이 가치를 두는 대상과 관계로부터 단절되거나 이별하는 것 혹은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 2023). 상실은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신체·심리 면에서 다양하며 물질의 상실, 신체기능 상실, 심리 및 역할 상실, 조직적인 상실과 모호한 상실 외에도 박탈당한 슬픔까지 확장된 개념이다(Norman Wright, 2016). 이러한 상실을 경험할 경우, 성인도 심리·정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상실 경험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쉽



지 않아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심리적 외상을 끼치는 상실 경험은 슬픔, 분노,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절망, 무망함 등의 정서 반응을 일으킨다(Mitchell & Anderson, 2007; Murray, 2001; Worden, 2007). 심리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외상의 슬픔과 충격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려워 이를 언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신체 반응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심리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신체 반응은 퇴행을 보이거나 은둔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수동적인 태도, 주변인과 관계를 차단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우시정 외, 2018).

상실로 인한 심리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활기능이 손상되며 전반적인 발달이 저해되어 정서적으로 수치심과 우울 및 무기력을 느끼며 활력이 떨어지고 슬픔에 압도되어 절망하게 된다(박선영, 2013). 중도입국 청소년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이들이 경험한 상실로 인한 심리 외상은 이들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애 발달적 여건을 불안정하게 하고 성장과 자립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도입국 청소년은 또래 관계와 사회성이 발달하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을 바라보는 또래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므로 또래 관계에도 위축되는 등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Boyd Webb, 2011). 중도입국 청소년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자기 인식 기반이 되는 정체성을 형성해 온 자기개념의 뿌리, 또래 관계를 통한 대인관계 및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가치 대부분이 이주 과정에서 무가치해지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분리와 이별은 이들에게 심리 외상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가중하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중재적 개입은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다른 사회·문화 및 심리적 특성에 따라 세부 개입도 달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 외상 회복을 위해 이주와 분리로 인한 상실의 혼란스럽고 억압된 내면의 적절한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애도란 상실로 인해 나타난 총체적인 반응으로 상실 후에 나타나는 고통에 대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반응으로부터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 과정이다(Stroebe, Hansson, Schut & Stroebe, 2008). 즉, 애도는 박탈과 같은 상실의 경험에 대한 심리·신체·사회면에서 고통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Switzer, 1970). 상실에 대한 애도는 기억을 통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기억이 없다면 애도하는 것도 가능하



지 않게 된다(Derrida, 1986: 34). 애도는 상실한 것과 계속 교감하기 위해 그 동일성을 그대로 소유하려는 시도 대신 상실한 것에 대한 타자성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Derrida, 1986: 59). 이는 상실한 것을 애써 지우고 잊기 위해 애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타자성을 인정하고 상실한 것을 기억하는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상실한 것에 대해 기억하기 위해서 그 타자성이 초월하는 존재로 남겨질 때 애도를 이어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애도란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존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완성이나 종결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백미화, 2023, 왕은철, 2012). 애도는 타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적이며 상호주관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비자발적인 이주와 분리 과정의 상실 경험에서 타자성을 인정하며 애도하는 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하는 과정이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애도 과정은 지지 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애도 과정을 위한 지지 세력은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으며 일관성 있는 성인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orden, 2002; 우시정 외, 2018 재인용). Erikson은 인간이 개인의 전환점이나 위기 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정감은 인간의 초기경험에서 획득되는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하며 이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감정적·인지적 지향을 발생시키는 데 연관된다고 하였다(Erikson, 1950). 이러한 맥락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은 자아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이 심리 외상에 대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다면 그 후에 새로운 감정과 정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John. J, 2004). 이후 중도입국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을 비롯한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미래의 새로운 타인과 환경과도 주체성을 발현하며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게 된다(임선영, 2013). 이때 중도입국청소년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에 따라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 실체를 일상의 삶 과정에서 나타내게 된다(최상진, 2000).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성 발현은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실천적 역량이며 적응을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성을 발현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측면의 거시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김명수, 고진수, 2022). 반면,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하지 못하면 이는 자기 존재의 뿌리를 상실한 정체성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김영갑, 2005).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삶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하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며 공존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주류 세력의 공고함이 무너지는 불안정한 공간이며 동시에 문화의 접촉과 충돌로 인해 문화 간 접점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체성이 발현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김명수, 고진호, 2022).

중도입국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경계에 존재하며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속해있는 동시에 기존 공동체의 체계에 대한 거부와 자신의 새로운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역동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는 관점 역시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는 사회적 존재임과 동시에 청소년 개인의 삶을 확장하고 새로운 탐색을 시도하며 주체성을 실천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중요하다. 즉,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성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회피보다는 대면하는 것, 자신이 생각한 것을 선택하는 실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주체성 발현이라 할 수 있다(김명수, 고진호, 2022). 결과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자기의 삶에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탐색하고 인식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유연한 기회의 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은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타자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며 상호주관성을 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의 주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2. 상호주관성과 집단표현예술치료

2.1. 상호주관성에 관한 담론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개념을 처음 도입한 학자는 현상학의 창시자인 Edmund Husserl이다. Husserl은 이론·실천·가치를 설정하는 보편적 이성으로, 모든 학문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해명해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할 철학을 추구하였다(Husserl, 2021: 15). Husserl 현상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성을 출발점으로 하며, 여기에 독자성과 고유성을 부여하여 자유를 개인 주관성의 주요한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Husserl은 자기 책임성에 기반한 주관성을 강조하였고, 주관의 자기 책임성과 자율성을 추구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이성적 주체로서 이성의 자율성을 추구하며, 인격적 주체를 기반으로, 외부의 영향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근거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지향하는 존재이다(박인철, 2015: 310-311). 따라서 Husserl은 이성적 주체로서 각 인격체는 다른 주체와 철저히 구별되고 나와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타자지향성의 근거가 된다. Husserl의 타자지향의 이론은 타자를 나와 같은 하나의 자율적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자율적 주체의 의미는 모든 주관은 각각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불편성과 평등성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나타나게 된다. Husserl은 인간의 경험을 ‘주관적인 삶’이라 하고, 몰가치성을 가진 불변의 자연과학을 ‘객관적 삶’으로 나누어 상호주관성 개념을 설명하며, 국가, 지역, 세대와 같은 사고 공동체에 의해 조직된 지식을 ‘상호주관적인 삶’이라 하였다. 상호주관적인 삶에서 상호주관성은 현상이 ‘사태 그대로’ 드러나는데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이론적 전제가 없도록 하여 개인과 문화를 새롭게 보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Husserl은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관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인간의 성숙을 위해 상호주관성을 제시하였다(김성동, 1993: 이화도, 조희연, 2018). 상호주관성의 기반이 되는 현상학의 개념은 ‘주체성’, ‘지향성’, ‘상호주관성’, ‘감정이입’,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주체성⁷⁾’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로 자신에 대한 의식·주관성을 깨달아 표현하는 것이다(양계민, 조혜영, 2012). 주체성은 개별적인 인간 주체를 출발점으로 하여 개인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험한 개인적 체험을 말하는 개념으로 현상학의 타당성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박인철, 2015: 107). 이는 인간이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자신의 지

7)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성을 표현하는 ‘나’는 대상화되거나 객체화되는 일이 없고 항상 능동적인 주어(subject)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인 주체가 지향하는 주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박아청, 2010).

둘째, ‘지향성’은 개인의 모든 ‘의식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의식’ (박인철, 2015: 79-80)이라 할 수 있으며 지각이나 상상 혹은 기억 등 모든 체험이 본질적으로 이미 ‘대상으로 향한다’는 구조를 가진다는 의미이다(김영필, 2010: 215). 이는 지향성이 항상 대상과의 관계 맺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주체가 대상화를 지향하는 것을, 자아의 능동적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보았다(박인철, 2015: 81). 반면, 대상성이 반드시 인간만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이에는 불분명한 의식체험도 있는데, 가령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막연한 수동적 감정이 특정 지향적 대상 없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지각할 때 매 순간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가로 방향 지향성’과 ‘지금’이 지나갔지만 사라지지 않고 변형되어 침전된 상태로 있는 ‘세로방향 지향성’ 등 이중의 연속성을 띤다. 즉, 인간이 가진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의식의 흐름은 과거의 체험을 현재화하여 의식하는 ‘과거지향’을 가지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현재 직관적으로 예상하는 ‘미래지향’을 추구하며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는 통일체를 이룬다(Husserl, 2021; 26).

셋째, ‘상호주관성’은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사람들 간의 심리적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유아론적인 개인의 경험과 대조된다. 즉,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사물의 성질은 ‘주관적’이라고 하는 데 반해, 그 사물 자체에 어떤 성질이 내재 되어 있고, 그 성질에 대하여 적절한 감각을 갖춘 사람 누구라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성질의 존재에 대해 합의적인 개념을 공유하고 외부의 객관세계에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관적이지 않고 ‘상호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장한업, 2016). Husserl은 상호주관성을 설명할 때 개인이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존재에 대한 나의 지각적 경험, 즉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보다 더 근본적인 견해 즉,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옹호하였다(Zahavi, D., et al., 2005). 이러한 이유로 현상학의 상호주관성 개념을 설명할 때 타자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타자란 넓은 의미에서 ‘나 이외의 모든



것’이라는 뜻과 좁은 의미에서 ‘나와 같은 존재인 타인’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상호주관성’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타자가 자기와 동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이성적 판단이 올바르고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자 또한-그가 정상적인 한-나와 같이 판단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상학의 개념에서 타자는 나와 똑같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타자를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박인철, 2015).

넷째,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내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나 자신과 타자 간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을 유비적으로 경험하거나 유추할 때 필요하다. 현상학에서 ‘감정이입’은 공감과 어원을 같이 하지만 타자를 지각하는 인지적 요소를 부각하며 ‘타인 경험’ 혹은 ‘타인 이해’라고 지칭한다(이남인, 2006). Husserl은 감정이입 즉, 타인을 경험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타자를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여기며,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여기에 타자지향성의 의미를 함축하였다. Husserl은 ‘감정이입’이란 ‘여기(Hier)’에 있는 자신을 ‘저기(Dort)’에 있는 타자로 옮겨 가는 것이라 설명한다(박인철, 2015). 이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감정 이입하는 윤리적인 실천으로 타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호주관성을 통해 문화 간의 해석과 소통이 가능해진다(Mall, 1996).

다섯째, ‘관계성’ 설명에서 현상학은 동일한 사태도 주어진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태를 그 배경 또는 대상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황과 사태를 해석할 때는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Husserl이 말한 ‘판단 보류’ 혹은 ‘괄호 치기’와 관련 있는 개념이다. Husserl은 ‘판단 중지’란 인간의 순수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물의 존재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나의 선입견이 아닌 그 자체의 현상에 근접하기 위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태도이다. 현상학에서 Husserl의 상호주관성은 주체와 주체가 동등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강조하여, 타자가 배제된 주체가 아닌 나와 타자 간 관계성에 근거한 상호 주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였다(이화도, 조희연, 2018).

상호 주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나와 타자 간의 관계성에 근거를 두고 타자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타자의 존재를 나와 유사한 경험을 지닌 또 하나



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호주관성의 인식 전환이란 주관성의 거부가 아닌 상호 공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남인, 2003). 이는 주관성은 언제나 상호주관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성동, 1993).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자의 주관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호 소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형성된 상호주관성은 개별적 의식 또는 서로 다른 의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관계라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타자를 나와 동등한 주체로 보는 상호주관성을 가지고 상호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공동의식이 성립하게 된다(최정실, 1998). 공동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포괄한 생활세계에서 겹치는 부분을 넓혀 가는 것으로 낮선 것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낮선 것과 거리를 좁히는 과정은 공동의식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는 자기의 것과 점점 거리를 두는 결과를 낳는다(주광순, 2015: 44). 이를 위해서는 낮선 타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나의 것은 낮설게 보는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나와 타자가 공유된 겹침의 영역에서 공동의식을 통해 겹침의 과정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상호관계하며 소통할 때 상호주관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Husserl이 상호주관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의식에 대한 근거가 되는 타자에 대한 인식인 타자지향성이다(김성동, 1993). 타자지향성을 통해 근대적인 주체 중심주의에 소외된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였다(조희진, 2023).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상호주관성 이론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논의되었다. 기존의 정신분석은 Freud가 피분석자와 분석가를 분리된 존재로 보고 자기분석을 통한 분석가의 중립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Stolorow & Atwood & Orange(1998), Bacal(1998)은 상호주관성 이론을 Kohut의 자아 심리학에서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았다(Stewart & Mikunas, 1990). Kohut의 자아 심리학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개념은 공동참여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유대 경험으로 정의하며, 주체와 주체가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 세계에 의미를 두었다(최영민, 2014). 즉, 나와 타자 간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고 심리적 결속력을 구성하게 되면 공감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윤수진, 2022). Kohut의 자아 심리학은 피분석자와 분석가의 공동참여적 관계에 의미를 두고 이러한 정서적 유대 경험을 상호주관성으로 보았다. 즉, 정신분석에서 피분석자와 분석가의 분석상황을 ‘두 주체의 주관적 경험 사이 상호작용 과

정'으로 보았다. 정신분석상황에서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주체성 둘을 모두 인정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분석상황 속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은 피분석자와 분석가가 함께 만들어 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조희정, 2023: 20). 이처럼 정신분석에서 해석하는 상호주관성은 분석가의 주관적인 경험이 치료적 의미를 내포하는 중심 역할을 하며, 분석가 주체 전체가 분석에서 사용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최영민, 2010; Minolli & Tricoli, 2004). 따라서 분석가의 주체성이 피분석가의 분석에 참여하며 관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상호주관성을 위한 요소라 할 수 있다(정윤지, 2019). 이밖에 정신분석에서 전이와 역전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하여 전이와 역전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서로 다르게 형성된 피분석자와 분석가의 주관적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것, 이를 두 주관적 경험 세계 즉 주관성 사이의 상호주관성이라 하였다(최영민, 2014; Panksepp, 1985).

발달 심리적 관점에서는 상호주관성을 인간의 생득적인 조건으로 보고 인간의 발달적 성취 및 치료이론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Wallin은 상호주관성을 유아 연구의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아동의 발달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상호주관성을 공유영역으로 인식하였다(Wallin, 2007: 154). Travathen(1998)은 상호주관성을 두 개의 주관성 간 상호작용이자 두 마음의 공유영역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공유영역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유아기에 타인을 인식할 때, 언어이해보다 우선하여 감정과 의도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 상호주관성은 인간의 유아기 발달적 관계와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호주관성은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감을 이루기 위한 공유영역을 필요로 한다(Wallin, 2019: 154). 상호주관성은 '일차적 상호주관성'과 '이차적 상호주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차적 상호주관성은 언어 이전의 원초적인 상호주관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유아는 엄마의 표정을 확인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결정하는데 이때 유아는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하게 된다. 이를 상호 간의 주의집중, 상호정서라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일차 상호주관성을 설명하였다. 이차적인 상호주관성은 유아가 엄마의 목소리나 표정, 신체접촉 등에 반응하며 엄마를 모방하고, 엄마 역시 여기에 반응하며 아기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유아는 일차적 상호주관성의 관계에서 정서 공유의 경



험을 학습한 후, 다른 대상이나 사건에 관해 타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차적 상호주관성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주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Trevarthen, 1993). 발달심리에서 상호주관성 이론의 전제는 주체와 주체 사이에 정서적 공유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공유영역 안에서 타인과 상호관계를 위해 정서를 조절하며 상호 교감하는 것이다(김창대, 2019; Wallin, 2019).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상호주관성 이론은 관계적 과정에 주목하며 관계 내의 정서 조절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김창대, 2019). 내담자와 치료자를 주체와 객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다(최영민, 2008). 심리치료에서 치료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맥락을 제공하며 공동의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치료자가 지속적이고 민감하게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하여야 한다(최이선, 2016). 김태완(2014)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 상호주관적 체험이란, 이들에게 자신 그대로의 표현을 함께할 대상이 존재하고 자기표현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상호주관성의 관점으로 보면, 치료자가 반복적으로 내담자와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치료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다. 이때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치료자가 내담자와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며 이루는 상호주관적 장에서 내담자를 아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치료자의 상호주관성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깨닫는 경험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단어와 생각이 아닌 상징으로 표현하게 된다(Briere & Scott, 2006). 이는 집단상담 및 예술치료의 경우에 집단원과 치료자의 관계, 집단원과 집단원의 관계, 집단원이 자기의 작품을 창작하며 깨닫게 되는 경험과 유사하다. 따라서 심리치료 과정에서 상호주관성은 주체와 주체의 관계가 이해를 넘어선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단어와 생각이 아닌, 상징 표현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주관성을 의미한다(Briere & Scott, 2006). 이처럼 현상학의 상호주관성 철학의 개념은 이론적 해석을 통해 다양한 학제에서 활용되고 있다. 상호주관성은 두 주관의 대칭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는 인격적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심리적 결속력을 가지는 공감적 관계라 할 수 있다(윤수진, 2022).

2.2. 집단표현예술치료의 개념과 특성

표현예술치료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가는 1970년대 중반에 새롭게 대두된 학파이다. 상호통합적 학문인 표현예술치료는 포스트모던 예술의 실제뿐 아니라 동서양의 전통과 고대 치유예술의 실제까지 현대생활의 맥락과 현대의 문화 속에 통합시켰다(Halprin, 2003). 1994년에 창설된 IEATA(The International Expressive Arts Therapy Association)에서는 개인 및 사회 공동체의 성장과 발달에 춤, 드라마, 음악, 시각 예술, 글쓰기 등의 창조적 과정이 결합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Estrella, K., 2023: 3; 김은숙, 2019: 270). 이 연구에서는 집단으로 구성된 표현예술치료로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집단치료란 개인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2인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된 심리치료의 형태이다. 심리상담에서 집단치료는 집단원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인 예술창작이나 협동작업을 수행하고 함께 공유하며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관계를 경험하며 사회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이혜선, 원희량, 2020). Yalom (알툼)은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을 ‘희망 심어주기’, ‘보편성’, ‘정보 전달’, ‘이타주의’, ‘초기 가족의 교정적 체험’, ‘사회화 기술 발달’, ‘모방 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 등 11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치료적 요인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는 인간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이다(Yalom & Leszcz, 2005, 2008).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은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적합하다. 이를테면 ‘보편성’은 나에게 발생한 문제는 유독 나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밖에 ‘집단응집력’이란 집단원이 집단치료 과정에서 따뜻함과 편안함, 소속감을 느끼고 집단을 가치 있게 여기며 집단원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무조건적 수용과 지지를 받게 되는 집단의 조건이다(이임숙, 2016: 110). 집단치료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응집력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하여금 집단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고 집단원이 가진 공통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는 가운데 유대를 쌓으며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돕는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치료적 요인이 되어 더욱 강한 집단응집력을 형성하게 된다(이임숙, 2016). 이 과정에서 중



도입국청소년은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을 통하여 타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체성을 발현할 동기와 기회를 얻게 된다.

Copjec(2002)은 주체성의 특성을 이야기하며 이는 자기의 외부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타자를 발견하고 나와 타자의 중첩된 모습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고는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김은정, 2020). 그러나 상호작용의 의미에는 비단 타자와의 관계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이란 내가 나 스스로와 맺는 관계의 중요성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성을 가지게 되면 집단치료 과정에서 타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유대감을 증진 시킬 뿐 아니라 자신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치료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성을 발현하기 위해 청소년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신과의 관계를 발달시키고 ‘내가 누구인지’의 탐색을 시작으로 자신과의 관계, 사회의 가치와 인간의 삶 형식에서 나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이루며 확장해 간다(김미란, 1996).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타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만들어 가는 관계로 구성되는 자아정체성은 불안정한 상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정체성 형성 과정을 볼 때, 개인이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주체성을 발현하는 행위는 교섭, 전이, 저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자아가 양극적인 선택을 넘어서 자신의 시야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Moore-Gilber, 2001; 317).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성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좌우되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의 모습이 중요하다(조희주, 2016). 이때 집단치료에서 예술창작 활동은 중도입국청소년이 자기 인식과 표현뿐 아니라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자신의 창작품을 다른 집단원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을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다. 이는 구성된 집단이 이를 위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심리·사회적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집단치료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일상에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새로운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기의 삶에서 인간적인 삶의 형식과 사회의 가치를 찾아 주체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김미



란, 1996). 이러한 의미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집단치료의 효과를 배가하고 표현예술치료가 가지는 창의적인 예술 표현 방법을 제공한다면,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주체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자신의 실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Halprin, 2003).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예술 표현 방법으로 집단치료의 적용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적 정체성 재정립을 통한 상호주관성 형성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란 창조적 예술과 치료적 작업을 통합한 심리치료로 창조적 생명력을 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현예술치료는 일반적으로 미술치료, 무용/동작 치료, 음악치료 등을 말하며 창조성을 경험하고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 지지적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작, 드로잉, 회화, 조소, 음악, 글쓰기, 소리, 즉흥극, 시, 영화 등을 이용한다(Rogers, 2007). 표현예술치료 창조성의 주요 동기는 인간이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현하려는 경향과 유사하며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본능적인 충동인 ‘치료적인 힘’ 이라 말하였다(Halprin, 1996: 20).

표현예술치료는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지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모든 인간이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McNiff, 2017). 이러한 전제는 개인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깨닫는 것이 창조적인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통찰을 중요하게 여긴다(오영애, 최명선, 2019: 47). 이는 개인의 내적 자료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임용자,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치료에서 창조적 생명력을 깨우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것은 치료적이라 할 수 있다(Rogers. N, 2007: 1).

표현예술치료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자극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돕는다(김명철, 2007).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창조적 연결과정에서 내담자는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치유와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게 된다(오영애, 최명선, 2016). Halprin(1979, 1989, 1995)과 Halprin(2003)이 제

시하는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 원리를 ‘정신운동 감각 시각화 과정⁸⁾’이라 하며 서로 다른 예술의 형태가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표현예술치료의 신체 동작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심상은 글쓰기나 드로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느낌 및 감정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즉, 한 가지 예술은 다른 형태의 예술을 자극하고 증강 시켜 삶의 에너지이자 인간 내면의 정신이 깊은 핵심에 도달하도록 한다(유나래, 2016). 이렇듯 다양한 예술 형태가 즉흥 혹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에 억압된 층들을 벗겨내고 개인의 창조력을 바탕으로 몸, 마음, 정서,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Rogers, 2007; 유나래, 2016 재인용).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과정은 내담자에게 삶의 긍정적 자원을 제공하고 예술치료 현장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치유적 경험으로 이어진다(Halprin, 2003, 2006).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과정은 예술 및 심리치료가 상호작용을 하며 이루어진다. 예술은 개인 내면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표현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심리치료는 개인의 인간성 형성과 발달 개념을 체화하기 위해 통합적 예술 방법을 사용한다(황보유순, 2018). 표현예술치료는 인간이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무의식이 심층에서 표면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창조적인 통찰을 이루어 개성화된 삶과 개인 고유의 특성을 가진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촉진한다. 이러한 촉진을 돕고자 인간의 경험적 인식과 표현예술 매체 모두를 동시에 사용한다. 이와 같은 표현예술 양식은 인간의 기본 감각인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통한 다양한 체험과 표현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 개인의 무의식과 체험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임용자, 2014).

표현예술치료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통합하여 이미지, 놀잇감, 신체 동작, 소리 등과 문자 언어 등 두 개 이상의 예술 매체를 사용할 때 개인의 내면을 더 깊이 탐색하도록 돕는다. Levine, McNiff & Meyer(1999)는 노래와 몸의 움직임, 상징적인 그림 그리기, 스토리텔링은 모두 각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 개인의 존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정주,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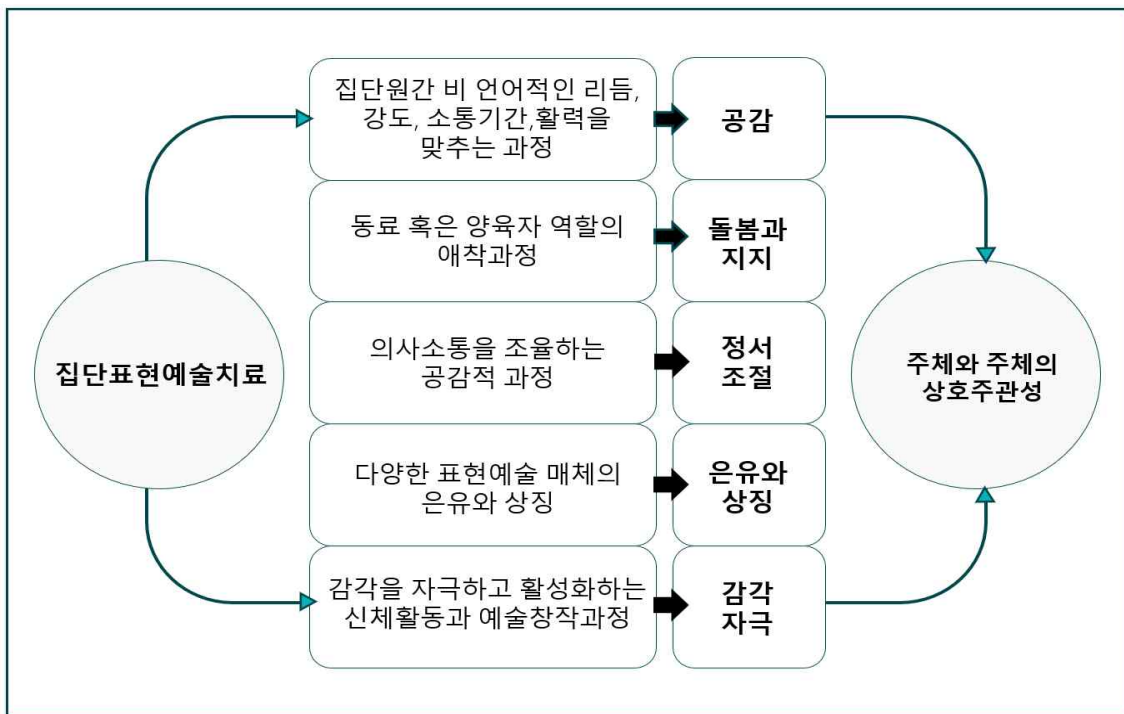
8) 정신운동 감각 시각화 과정(Psychokinetic Visualization Process)은 동작하면서 연상된 것을 그림으로 그린 후 그린 그림을 글쓰기로 구체화하도록 이어지는 과정으로 예술 매체들을 통합하여 개인의 심리 내적 자료들을 표현하는 과정이다(Halprin, D.1989).

1). 예술 심리치료에서 단일 예술 매체나, 언어만을 사용한 반영 자체로도 치료적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윤경미, 최선남, 2017). 이는, 다양한 예술 매체의 상호의존적인 혼합은 하나의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보다, 더욱 견고하기 때문이다(Rubin, 2006). 이러한 이유로 내담자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는 탐색 과정에서 심리 내적인 것이 외현화되며 통찰을 얻게 되어 자신이 맞닥뜨린 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때, 표현예술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자체가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임용자, 2014). 이밖에, 집단원들은 표현예술치료과정에서 자기 통찰과 더불어 집단원 간의 공감과 위로를 얻으며 상호 수용을 경험하게 된다. 내담자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탐색하며 심리 내적인 것이 외현화되며 통찰을 얻게 되어 자신이 맞닥뜨린 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표현예술치료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창조적 연결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고자 자발적인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할 때 변화가 이루어진다(Rogers, 2007).

결과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과정을 통한 치유와 성장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주체성을 발현하여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적절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을 실현하려는 욕구는 이중문화 적응, 언어소통의 제약, 가정해체와 재결합 및 학업에서의 좌절 등 심리 사회적인 다중의 어려움을 언어적으로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심층적인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예술 매체와 신체 동작 활동 등을 통하여 자기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표현하며 집단원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동적인 활동만큼 그 가치가 높다(Stein & Glenn, 1982).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이 표현예술치료를 경험하는 자체가 치유과정이 되며 이때 상호작용은 중도입국청소년과 치료자 모두 통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창출하게 된다(전태옥,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새로운 언어가 되어 상호작용을 구체화하는 창조적 도구로서 자기 미지의 측면을 발견하고 나와 타자와의 경험을 도와 성장하며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적절한 중재라 할 수 있다.

2.3.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

상호주관성은 두 주체의 주관성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공유영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역에서 공감적 관계 맺음을 통해 공동의 의미가 창조되는 것이다(Trevarthen, 2001). 공동의 의미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주관성은 나와 타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고, 언어 이전의 경험까지 다룰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Wallin, 2010). 상호주관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김성동, 1993) 인간이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생득적 능력(Aron, 2006)의 관점이라 볼 때 인간은 상호주관적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최이선, 2016). 따라서 이러한 본질이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발현되기 위해 나와 타자가 상호주관적으로 소통하며 의미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치료자가 언어 비언어의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공감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내담자와 치유적인 관계 즉,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 형성과정은 다음 [그림 II-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2]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

[그림 II-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첫째, 상호주관성은 내담자와 치료자 간에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리듬과 강도, 소통 기간, 활력 등을 맞추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공감과 지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Stem, 1985).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상호주관성 형성을 위해 매체만큼이나 중요한 치료적 요소 중의 하나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이다. 치료자와 내담자는 예술치료 장면에서 상징과 은유를 표현하고 상상적 감수성을 통해 치료 동맹을 맺는데 이는 ‘낮은 기술과 높은 감수성’ 원리를 강조한다(Knill, 2005: 76). 즉, 치료자가 내담자의 정서에 온전히 집중하고 공감하며 함께 함을 뜻한다(오영애, 최명선, 2019). 공감과 지지를 통한 내담자와 치료자의 라포 형성은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라포 형성은 보편적으로 심리치료에서 향후 개입을 위한 사전작업의 의미로 쓰이지만 최근 연구는 관계 자체를 내담자 변화를 촉진하는 치료요인으로 본다(박정, 장현아, 2015; Wampold, 2001). 내담자가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는 상호주관적 경험에 집중할수록 상황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내담자는 공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인식하고 통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한 경험의 의미이다. 참여자의 개별적인 경험은 자기 안에서 재조직되며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공동으로 창조되고 이는 다시 각자의 삶 속에 수용되고 통합하게 된다(Schore, 2007).

둘째, 상호주관성은 애착 형성과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Bowlby(볼비)는 발달이론에서 영아의 애착 형성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능력보다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영아의 인지·사회·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김현희, 2008). 볼비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치료에 있어서 애착 형성과 의사소통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Stem(스텝)은 애착과 상호주관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보완적인 동기 체계라고 하였다(Daniel, 2014).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상호주관성은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며 내담자가 개인의 내적경험을 탐색할 때 치료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내적경험을 해석해주는 것이 아닌 동료 혹은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Bowlby, 2009). 또 다른 치료자 역할은 내담자의 자아 발달을 지원하는 보조 자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치료자가 내담자와 함께 주의를 공유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

다. 즉, 치료자는 내담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박미형, 최선남, 2017). 치료자가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치료적 요인이 되는 이유는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혼란과 고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며 모호한 과정에 함께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때 내담자는 자기 안에 있는 핵심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의 고통을 덜게 되며 이 과정을 거친 후 내담자는 변화된 상태로 자신의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임용자 외, 2016).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이러한 돌봄과 지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상호주관적 경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최이선, 2016).

셋째, 상호주관성은 집단원 간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Trvarthen은 나와 타자가 함께 하는 삶을 위해서는 공감적 상호주관성을 통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라 하였다(Diana et al., 2013). 이러한 상호주관적 의사소통 경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율’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tem(1985, 2000)은 ‘정서 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감정의 공명을 일으키고 이를 전달하는 이중 과정이라 하였다. 정서 조율 과정은 내가 타자가 느끼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을 느끼도록 해주고, 공유된 경험을 타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다(David, 2007). Schore(2009)는 정서 조절을 ‘자기조절’과 ‘상호조절’로 구분하였다. 자기조절은 개인 내적 조절이고, 상호조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절을 의미한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이러한 정서 조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공감적 조율을 통하여 내담자가 정서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생생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치료자와 내담자가 서로 잘 맞추어진 정서의 흐름 속에서 공동 조절되며 집단 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을 좀 더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조희진, 2023).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예술창작 활동의 목표는 예술작품 만들기가 아닌 활동 그 자체로 예술 매체와 자신이 연결되고 공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수용하며 인내심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Mess-Christeller, 2004).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며 내담자 스스로 창작과정에서 만든 작품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 자체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술적 창조의 과정이 된다(윤경미, 최선남, 2017).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촉진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통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자기 존중, 자기 인식,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힘을 갖는다(Forestier, 2013).

이렇게 언어화하여 표현한 서사는 개인의 자기 인식과 현실 검증을 통하여 삶에서 체화되어 일상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치유성을 가지게 된다(윤경미, 최선남, 2017). 결과적으로 비언어적 예술 활동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언어로 명료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된다(정여주, 2014).

넷째, 상호주관성은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가 표현하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는 언어표현도 활용하지만, 가장 주된 표현 방법은 비언어적 표현인 미술, 음악, 동작 등을 활용한 은유적 방법이다. 특히 내적 표현을 활성화하는 초기 단계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더욱 효과가 있다(정성미, 2015). 이밖에도 미술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현실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문화를 반영한 미술표현은 집단원 간 소통과 존중을 강화할 수 있으며, 미술의 이미지와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 상호-문화 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박순덕, 김영순, 2012: 336). 이는 언어적 표현 방법에 비해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므로 자기 개방에 대한 거부감은 줄이면서도 안전하게 자기 통찰을 이루기 때문이다(정여주, 2007). 집단표현예술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표현예술 매체를 통한 구체적인 상징과 은유의 경험은 개인 내적인 알아차림을 풍부하게 한다(황보유순, 2018). 이러한 통찰은 나를 낫설게 바라볼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게 하여 비로소 나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창조된 이미지는 인간의 경험과 언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며 개인의 수많은 기억과 감정을 간직한 서사를 탄생시킨다(윤경미, 최선남, 2017). 특히, 예술 매체는 Winnicott의 무의식의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가 만나는 ‘중간 영역’을 위한 중간대상과 ‘중간현상’의 역할을 하며 예술의 창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므로(Winnicott, 1971: 2) 표현예술 매체를 선택할 때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관심에 맞추어 예술 매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오영애, 최명선, 2019). 예술은 개인이 경험한 사건, 대상, 장면, 혹은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하여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미적 경험은 자기 내면에서 생성하는 것이다(Dewey, 1934, 2003; 윤경미, 최선남, 2017 재인용). 이렇듯, 개인의 억압된 감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표출된 예술 작품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며 자기조절을 한다(Baker, 2006).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 자기 영속성과 정체감을 가지게 된다(이정주, 2021).

다섯째, 상호주관성은 개인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신체활동과 예술창작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는 신체 동작과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한다. 표현예술 매체 중 신체 동작은 운동감각과 감각경험을 자극하여 우뇌를 활성화하고 비언어적인 부분을 드러나게 한다(김정향, 2023: 24). 이러한 자극은 시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 외상 경험을 다양한 감각 자극으로 생생한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신체 동작이나 예술의 비언어적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외상 기억에 접근하는 데 효과적이다(김정향, 2023; 유나래, 2016). Meekums(1999)는 창조적 표현 예술치료가 개인의 심리회복에 효과적인 개입이 되는 이유를 심리 외상으로 형성된 기억은 몸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어적 치료보다 신체 표현을 통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Levy, 2012). 이러한 이유로 표현예술치료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나 무의식을 표현하도록 도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정성미, 2015). 창조적 예술치료에 몰입하는 과정은 개인의 내적인 이미지나 생각, 느낌과 감정의 외현화를 돕고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담아주어 재 외상을 겪지 않도록 한다(Cohen et al., 2009). 결과적으로 내담자가 미해결된 심리 외상을 지닌 과거지향의 삶이 아닌 현재의 주체적인 삶을 이루도록 돕는다.

종합하면,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원 간 공감과 지지를 받는 창조적인 예술 창작활동 가운데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를 경험하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주체적인 실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은 자신을 통찰하고 이해하는 역량을 기르고 확장하며 타인과 상호주관적 관계로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나와 타자를 상호 주체적으로 인식하며 생명력과 창조 에너지를 경험하는 상호주관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표현예술치료의 공동체 활동 안에서 진정성을 배우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이루며 상호주관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하여 경험하며 점차 더 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이는 타문화와 사회를 향하여 연결성을 확대하게 됨을 의미한다(Rogers, 1993).

Ⅲ. 연구 방법

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중도 입국이라는 이주와 분리의 공통적인 맥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을 탐색하고 상호주관성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연구란, 사물의 모습이나 상태와 사건의 이유, 그리고 진행 과정과의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다. 연구목적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경계 지어진 동질 집단에 집단표현예술치료라는 동일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한 상황이 실생활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연구주제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특성을 가진다(Yin, 2005; 2009). 이러한 특징에 따라 사건이나 상황으로 경계가 지어진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맥락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수집하여 사례 기술과 사례에 기반한 주제들을 보고한다(Creswell, 2015). 질적 사례연구는 인터뷰할 수 있는 대상이나 관찰을 위한 시간과 장소 등 자료수집에 대한 제한을 통해 사례로서 충분한 경계를 갖도록 한다. 이는 연구자가 경계 지어진 체계 즉 사례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김영순 외, 2018). 결과적으로 특정 사회 현상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기술해야 하는 경우와 현실 세계 사건들을 의미 있게 담아내고자 할 때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Yin, 2011). 질적 사례연구는 연구의 폭보다 깊이를 중요시하며, 사례를 세밀하게 관찰하거나 혹은 정보를 통해 사례를 심층 조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연구를 진행한다(Walcott, 1994: 180). 따라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사례를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조용환, 1999: 27).

질적 사례연구는 이론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소규모 사례의 역학관계 및 관계의 복잡성 등, 감추어져 있던 현상 혹은 대상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연구 방법으로 귀납적 속성을 지닌다(김영순, 정지현, 2018: 271).



이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라는 독특성과 고유한 맥락 내에서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중에 자기 인식과 자기표현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고 집단원 간 상호작용을 하며 나타나는 상호주관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사례의 구체성과 복잡성을 지닌다. 또한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상호주관성을 경험하였는지 주목한다는 점에서 현재성의 속성을 가진다.

자료수집에서는 연구 문제 설정, 자료수집, 해석과 분석, 문제 해결 방안 검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 대상의 특성이나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고 분석하는지 초점을 맞추고 이에 유용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나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박창민, 조재성, 2016: 138-139). 이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창작한 예술작품, 작품설명 자료, 소감문 및 활동 녹화영상, 참여관찰 일지, 연구자 노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 사례연구와 복수 사례연구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사례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 현상을 하나의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면서 하나의 사례나 그 사례를 일반화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정한 조건 내에서 진행한다(Creswell, 2005). 반면 복수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을 두 개 이상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사례들이 동일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거나, 또는 이들 변수가 다른 사례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적으로 제시하게 된다(변수연, 2013).

이 연구는 단일집단 복수 사례연구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7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을 하나의 단일집단으로 보고, 7명의 중도입국청소년 개별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복수사례로 보았다. 이러한 단일집단 복수사례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사례연구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의 선형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으며(Yin, 2014: 390) 다음 <표 III- 1>과 같은 연구 절차로 진행하였다.

<표 III-1> 연구 절차

연구 절차	기간	내용
사례연구 설계	~2023년 5월 12일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연구 문제의 정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초안 구성 전문가 3인의 1차 프로그램 평가 집단표현예술치료 1차 프로그램 구성
자료수집 준비	2023년 5월 12일	IRB 심의 승인
예비 프로그램 진행	2023년 5월 19일 ~7월 4일	예비프로그램 연구참여자 모집 1차 프로그램으로 예비사례연구 진행 O,T 및 동의서 작성 전문가 3인의 2차 프로그램 평가 및 예비 연구 참여자 의견 수렴 프로그램 수정 및 최종안 확정
자료수집 및 분석	6월 7일 6월 26일 ~2023년 7월 14일	관련기관 다문화 전담 교사 연구 협조 면담 수도권 A 고등학교 학교장 면담 및 최종 승인 수도권 A 고등학교에서 연구참여자 모집
본 프로그램 진행	2023년 9월 12일 ~12월 26일 ~2024년 2월	본 프로그램 진행, O,T 및 동의서 작성 다양한 자료원의 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전사, 번역, 분석 메모, 범주화 사례 내 및 사례 간 분석
보고서 작성	~2024년 3월	프로그램의 치료적 의의 도출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의 모색

<표 III- 1>과 같이 연구설계 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주제 및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 과정에서 이문화 성장배경 후기 청소년의 표현예술심리치료 효과연구,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중재 프로그램 문헌 고찰,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경험 질적 메타분석 등 탐색적 연구와 심리 외상



중도입국청소년의 위기 개입적 표현예술치료, 애착불안 아동 정체성 형성 미술치료 등 사례연구,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설계, 대학생의 공존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이주의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8편의 소논문을 주저자로 국내 학술지(KCI 등재)에 게재하였다.⁹⁾ 이 과정에서 연구 문제를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구체화하였다. 선행연구 후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여 전문가 3인의 평가를 거친 후 1차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사례연구를 설계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의 첫 단계는 자료수집 준비로 2023년 5월 12일 연구윤리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최종 승인을 얻었다(승인번호: 230217-1AR). 프로그램 구성과정에서 2023년 5월 19일~7월 4일까지 1차 프로그램으로 예비사례연구를 진행하고 3인의 전문가에게 2차 평가 및 예비 사례연구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사전 기관 회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이다. 6월 7일 관련기관 다문화 전담 교사와 만나 연구 협조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6월 26일 학교장 면담을 거쳐 수도권 A 고등학교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어 연구지를 확보하였다. 이후 7월 14일에 A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프로그램 진행은 2023년 9월 12일~12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1회기에 O.T 진행 및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치료적 의의를 도출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9)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 과정으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서현주·최명선(2021). 이문화 성장배경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효과연구: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6(5), 187-216. ②서현주(2022). 미술치료를 경험한 애착불안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4), 377-399. ③서현주·오영섭(2022).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중재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분석. 교육치료연구. 14(2), 266-285. ④서현주·김영순·김명희(2022). 교육연구 활용 교양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공존'활동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7(6), 283-305. ⑤서현주, 김영순(2023). 방문지도서비스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16(1), 5-32. ⑥서현주(2023). 청소년의 예술심리치료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345-368. ⑦서현주(2023). 심리 외상을 경험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위기개입적 표현 예술치료 사례연구. ⑧Seo, Hyun-Joo, Kim Youngsoon(2023). Designing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to Create a Subjectivity for Migrant Youths.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14(2), 1-24.

2. 연구참여자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수도권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5세 이상의 중도입국청소년 7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이주 관련 특성 및 행동·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기본정보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 2>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

연구 참여자	이주 관련 특성							행동·심리적 특성
	성별	입국시 나이	현재 나이	출신	가족 구성	이주 배경	한국어 능력	
연구참여자 A	여	13	17	카자흐스탄	모	모 결정	보통	과감한 외모 중립적 태도
연구참여자 B	남	14	17	카자흐스탄	부·모·누나	부모 결정	어려움	우울감 성실한 참여
연구참여자 C	남	15	17	우즈베키 스탄	부·모 누나·남동생	부모 결정	어려움	위축된 정서 진지한 탐색
연구참여자 D	여	11	18	우즈베키 스탄	모·남동생	모 결정	보통	만성두통 공손한 태도
연구참여자 E	남	14	17	러시아	부·모 형·여동생	교육 목적	잘함	과시적 태도 친밀감 욕구
연구참여자 F	여	10	18	러시아	부·모·언니· 여동생 2	부모 결정	매우 잘함	피로감 유연한 태도
연구참여자 G	남	14	16	카자흐스탄	모· 여동생 2	모 결정	어려움	반항적 적극적 활기



(1) 연구참여자 A: ‘굴민우’

연구참여자 A는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하여 13살인 2019년에 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여학생이다. 평범한 인상과는 달리 초록과 금발 등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과 반짝이는 눈화장, 피어싱한 입술과 패티큐어한 긴 인조 손톱 등 화려하고 과감하게 외모를 꾸몄다. 한국어로 듣고 말하기가 가능하지만 갈수록 학교 수업이 어렵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에 의욕이 적어 결석이 잦은 편인데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강제 퇴학을 당하기 때문에 선도에 불려 가는 일이 종종 있다. 별칭은 좋아하는 과일인 굴과 자신의 본명을 섞어 유사한 발음인 ‘굴민우’라 지었다. A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다가도 정색하거나 멍한 얼굴로 앉아 있는 등 잦은 감정변화가 관찰된다.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언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였다.

(2) 연구참여자 B: ‘배트맨’

연구참여자 B는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하여 14살인 2021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남학생이다. 한국어 능력은 보통이라고 했으나 한국어 이해와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B는 말이 거의 없으며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책상에 앉드려 있거나 연구참여자들이 다소 심하게 장난을 치더라도 친구라서 어쩔 수 없다며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자기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자살’, ‘심리치료’, ‘타인의 생각’ 등이 궁금하지만, 자기 개방을 꺼리며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로그램에는 결석 없이 참석하였다. B는 프로그램에 참석에 대한 기대로 “나를 더 개발하여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였다.

(3) 연구참여자 C: ‘스파이도맨’

연구참여자 C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여 15살인 2021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



국으로 이주한 남학생이다. 첫 회기를 마친 후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떠난 교실에 남아 연구자를 도와 조용히 청소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와 함께할 때는 태도로 바뀌며 장난을 치는 등 다른 참여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한국어 능력은 보통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자기 의견 제시를 포기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직 몰라요” 라고 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4) 연구참여자 D: ‘위스키’

연구참여자 D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여 11살인 2017년에 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여학생이다. 프로그램 초반, 연구자에게 고려인들의 이주 배경을 설명해 주며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D는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가 가능하나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유창하지는 않다. D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은 외국인(한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동생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첫 회기에 술 냄새를 풍기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D는 아르바이트로 엄마를 돕고 있고, 평소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에서 지내거나 조퇴가 잦은 편이다. D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나 별칭의 의미에 모두 ‘그냥’ 이라며 자기 개방을 꺼렸다.

(5) 연구참여자 E: ‘제키찬’

연구참여자 E는 러시아에서 출생하여 14살인 2021년에 교육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남학생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E는 첫 회기부터 연구자에게 통역을 자처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하거나 프로그램이 좋다고 과도하게 친밀감을 보이며 관심받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다. E는 연구참여자들보다 연구자와 대화를 선호하고 매주 자신의 일상을 상세하게 알려주거나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하는 등 소통과 관심을 원하는 모습이다. E는 별칭 짓기에서 다양한 외국어를 섞어 쓰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정작 별칭을 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가서야 해외



유명 스타로 별칭을 정하였다.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시작하고 싶어요” 이다.

(6) 연구참여자 F: ‘천사’

연구참여자 F는 러시아에서 출생하여 10살인 2015년에 부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여학생이다. F는 자신은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고 여유 있게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며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자기 의견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말의 의미를 연구자에게 설명해 주기도 한다. F는 소규모 인터넷 사업을 하는 이유로 다른 참여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나이에 비해 다소 어른스러운 태도와 말투를 사용하며 매번 지쳐있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F는 자신을 어른이라 여기며 학교생활에 소홀한 것과 공부에 대한 염려의 양가적인 감정이 있다. 자신의 별칭을 설명할 때,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착해서 천사예요.” 라며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였다.

(7) 연구참여자 G: ‘한아타’

연구참여자 G는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하여 14살인 2021년에 모의 결정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남학생이다. 개인종목 운동경기에서 우승하는 등 운동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우월한 체격조건으로 종종 또래에게 거친 신체접촉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학교생활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에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반항적으로 경계심을 보였다. 별칭을 자신의 애칭으로 지었다가 이내 “선생님이 나의 애칭을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겠어요” 라며 ‘한아타’ 로 변경하고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등, 연구자에게 방어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말투를 쓰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하였다. G는 첫 회기에 교실에 들어와 ‘졸려요’ 라고 말한 후, 활동 참여를 거부하고 옆 책상에 엎드려 다른 연구참여자의 활동 소리를 귀로 들으며 분위기를 탐색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3.1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자료수집은 2023년 9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진행 전 프로그램 초안 작성, 프로그램 구성 및 1차 전문가 평가, 프로그램 진행 후 2차 전문가 평가 및 참여자 의견 수렴 이후 본 프로그램 확정, 관련기관 면담, 연구참여자 모집 등을 수행하였다. 질적연구에서 공통된 관심은 “연구참여자의 시각에서 나오는 통찰과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 (Merriam, 1988: 24) 혹은 현장 이론의 “발견” 이다(Strauss, 1987). 이를 위한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제기한 연구 문제를 탐색할 현장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최영신, 1999).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연구 문제가 연구참여자의 통찰과 이해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통찰과 이해를 근거로 현상을 기술하고 기술한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발견을 이끌기 위해 집중하고 성찰하는 순환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수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집한 자료를 연구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자료의 양적인 부분 외에도 수집된 자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연구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내용을 즉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연구 과정이다. 따라서 자료수집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영천, 정상원, 2017: 14). 연구자는 자료수집에 앞서 2023년 5월 12일 이 연구의 연구 윤리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최종 승인을 얻었다(승인번호: 230217-1AR).

이 연구는 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예비 사례연구¹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고려인 청소년 단체 SNS에 프로그램 연구참여자 모집 글을 게시하여 신청자를 모집한 후 참여자를 통하여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제작한 러시아어 자막의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10) 예비 사례연구 진행은 연구설계와는 별도로 연구사례에 관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 실시하는 예비 사례연구이다(Yin, 2014: 174).



홍보 동영상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3~4차례 면담하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만 15세 이상의 중도입국청소년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직전에 공장 취업 및 한국어 학원 출석 등 개인 일정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하고 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참여가 저조한 1인은 중도 탈락하고 최종 2명이 예비프로그램을 마쳤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진행 전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연구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러시아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연구 동의를 얻었다.

예비프로그램은 2023년 5월 19일~7월 2일까지 주 1회, 회기 당 90분간 총 8회기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전 준비과정으로, 프로그램 초안에 대해 3인의 전문가에게 1차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평가는 14년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상담전문가 교수 1인, 18년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미술치료 전문가 교수 1인, 25년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교차문화 상담전문가 박사 1인 등 총 3인의 전문가에게 대면·비대면 슈퍼비전을 받고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연구자는 예비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개인 치료실을 대여하여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안정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전 과정의 활동 및 작품 사진 촬영과 참여관찰을 위해 예술 심리치료 전공 석사과정생 1명을 배치하여 참여관찰 하였다. 예비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자료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이해 및 본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였다.

예비프로그램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자 2차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였다. 2차 전문가 평가는 29년 경력의 질적연구 전문가인 교수 1인, 24년 임상 경력의 전문 표현예술치료 감독인 교수 1인 및 10년 임상 경력의 표현예술치료 전공 박사 1인 등 총 3인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검증하였다. 2차 전문가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을 위한 집단 표현예술치료 12회기의 프로그램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연구참여자 모집은 예비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이 졸업한 A 고등학교 다문화 전담 교사를 소개해 주며 기관 협조가 이루어졌다. 2023년 6월 7일 연구자는 A 고등학교 다문화 전담 교사와 1차 전화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긍정적인 연구 협조 답변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를 원하는 B 고등학교 다문화 전담 교사의 참여 요청이 있었다. 최종 연구지 선정을 위해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의 다문화 전담 교사와 2차 대면 및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후 프로그램 진행 시기 및 프로그램 운영 환경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A 고등학교를 연구지로 결정하였다. 연구자는 A 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한 학교장 면담에 앞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프로그램 계획안 및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A 고등학교에 발송하였다.

2023년 6월 26일 A 고등학교 학교장을 비롯하여 교감, 담당 부장 교사, 다문화 전담 교사와 3차 대면 면담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내용을 구두 및 문서로 설명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프로그램 진행 시 특별히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는 유의 사항을 전달받았다. 위와 같이 3차에 걸친 대면·비대면의 면담을 거쳐 A 고등학교에서 최종 연구 협조를 승인받았다.

2023년 7월 14일 연구참여자 모집을 위해 A 고등학교에 방문하였다.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은 대부분 독립국가연합(CIS) 권역 국가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직접 제작한 러시아어 자막의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홍보 동영상을 중도입국청소년들과 함께 시청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등 라포를 형성하며 연구 참여를 독려했다. 이 외에 별도로 러시아어 프로그램 안내 인쇄물을 중도입국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배부하여 연구의 이해와 동의를 위해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모집공고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8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1회기 프로그램 진행 후 개인 사정으로 하차 의사를 밝힌 1명을 제외하고 최종 7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중도입국청소년 7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주 1회, 회기 당 100분으로 총 12회기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한 통역사 1명을 배치하였다. 통역사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 문화적 이해뿐 아니라 의사소통과 예술치료 작품설명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다. 이밖에, 프로그램 전 과정의 활동 및 작품 사진 촬영과 관찰일지 작성을 위해 예술 심리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참여 관찰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양한 자료의 수집은 사례연구의 질적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Yin, 2013: 185-186). 연구자는 모든 회기를 녹음하여 회기별 대화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활동 녹화영상, 예술 작품 사진, 프로그램 활동사진, 참여관찰일지, 개인 소감문, 연구자 노트 등을 수집하였다. 마지막 회기에는 집단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경험과 변화 내용 등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해당 자료 인출이 편리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예술작품 및 활동사진과 소감문은 고화질의 이미지 파일로 외장하드에 별도 보관하였다. 이 밖에 모든 활동 대화 및 인터뷰는 한글 번역하여 텍스트파일로 정리하고, 전사록은 문서화 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들은 이미지, 문서, 음성, 영상 등으로 다양하며 이를 전산화하여 일련의 파일 번호를 부여하고 순서대로 정리하였다(오영섭, 2019).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수도권 A 고등학교에서 중도입국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예술 작품 사진, 참여관찰, 소감문, 활동 녹화영상, 집단인터뷰, 연구자 노트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자료 목록의 내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연구자료 목록 및 내용

연구자료 목록	내용
예술작품 사진	자신의 심리·정서를 표현한 예술작품
참여관찰	프로그램 참여 및 집단원 간 상호작용
소감문	회기 별 프로그램 참여 소감
활동 녹화영상	프로그램 참여 집단원 활동 및 대화
집단인터뷰	전체 프로그램 종료 후 소감
연구자 노트	연구자의 성찰일지

<표 III-3>과 같이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종류는 예술작품, 참여관찰, 소감문, 활동 녹화영상, 집단인터뷰, 연구자 노트이다. ‘예술 작품 사진’은 연구참여자가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자기 서사, 연구자와의 대화 및 연구참여자 사이에서 서로의 작품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작품의 사진을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참여자가 각 회기에 참여하기 전·후를 포함하여 참여시 연구참여자들 간 언어·비언어적인 표현을 관찰하여 기록하여 수집하였다. ‘소감문’은 연구참여자가 각 회기를 마치고 준비된 양식에 작품완성 및 활동 후 느낌 등을 기록하였다. ‘활동 녹화영상’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등 활동 내용과 대화를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집단인터뷰’는 프로그램 종결 후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집단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연구자 노트’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일지를 쓰고 연구 활동을 되돌아보았다(노미연, 2018: 198).

3.2. 자료분석

자료 분석단계는 수집된 자료에 일련의 질서 체계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Marshall & Rossman, 1989; 김영천, 2014: 526). 질적 사례연구에서 자료 분석과 자료 수집은 동시에 수행되는 상호 보완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김영천, 정상원, 2017: 111).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하게 된다(Yin, 2013: 260).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순환적 과정이지만 두 개의 핵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료를 관리하는 단계와 서술적 기술을 통해 납득시키는 단계이다(Ritchie, Spencer, & O’Connor, 2003). 자료 관리는 자료 형태와 방법에 관한 텍스트 외적 관리와 원 자료에 익숙해지고 개념적 틀을 고안하는 작업으로 구분한다(김영순 외, 2018). 자료 관리는 연구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며 수집된 자료를 질적 분석하기 위해 코딩을 수행한다(Seidman, 2009). 이는 수집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며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말한다(조용환, 1999: 53). 이러한 코딩 작업을 자료분석의 한 과정으로 삼는 이유는 자료에 코드를 부여하기 전에 연구자가 코드체계 혹은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Labar, 1970).



자료분석은 보편적으로 ‘에믹’ 과 ‘에틱’ 의 코드체계를 따르는데 초기에는 수집된 자료 그 자체의 범주들을 ‘에믹’ 관점에서 코딩하고, 후기에는 연구자의 분석 틀에 근거하여 ‘에틱’ 관점에서 코딩하는 방식을 따른다. 코딩 이후 몇 단계의 작업을 거치며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①사건의 전체적 흐름 파악, ②사건의 부분적 요소 확인, ③각 부분의 구조 확인, ④연구참여자 개인 및 상호작용 분석, ⑤연구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사례 간의 비교라는 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활동을 거친다(Ericson, 1992). 자료분석은 첫째, 연구자가 축적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기이다. 둘째, 수집한 자료를 코드로 변경하는 분석을 통하여 요약하고 압축적인 자료로 바꾸기이다. 셋째, 범주화된 자료, 세분화한 자료를 재조직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여 유형과 주제 발견하기이다(김영순 외, 2018: 278-279). 즉, 수집된 자료에 대한 코딩, 범주화, 주제화를 통하여 사례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천, 2013). 수집된 자료는 Cresswell(2013)이 제안한 사례연구 절차에 따라 ‘사례 내 분석’ 을 거쳐 연구참여자의 개별 사례의 맥락을 기술하고 ‘사례 간 분석’ 에서 연구참여자 공통의 주제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예술 작품 및 작품에 나타난 자기 서사, 자필 소감문 및 관찰일지의 내용 및 행동 관찰일지 등을 반복하여 읽는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태도 및 심리적 반응, 집단원 간 역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연구자 노트에 작성하여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귀납적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Creswell, 2005).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변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공통점과 특징을 찾아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Mirriam, 2009: 535).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 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회기별 녹취록을 프로그램 진행 당일 전사하고, 활동 녹화 영상물 번역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초 분석이 끝난 후 다음 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료수집과 분석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면담 녹음 내용을 전사한 자료, 연구자가 기록한 회기 관찰 메모, 문헌 자료에 나타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내용을 파악하고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 결과를 해석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4. 연구 윤리

4.1. 연구의 엄격성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과정과 해석에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의 정확성과 대안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단순한 직관이나 올바르게 하려는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규범이나 전례가 필요하다(Stake, 2000: 163). 따라서 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 검증법(Denzen, 1970)을 사용하였다. 삼각 검증을 통한 다각적 검증은 하나의 연구 방법만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먼저, 자료의 기본적인 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양적·질적인 다수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관점과 이슈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도와 연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Yin, 2003).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활동사진, 연구참여자의 예술창작 작품 사진, 개인 소감문, 참여관찰 일지, 활동 녹화 영상, 연구자 노트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방법론적 삼각 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밖에 동료 연구자들과 다문화교육학과 인문융합치료를 전공한 박사들이 참여하는 수업과 세미나에서 연구 분석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 검증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 지나치게 동조하거나 연구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연구자가 놓치기 쉬운 연구 문제나 관점 등을 상기해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은 연구 결과 혹은 연구 수행에서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에서 연구참여자와 한국어 및 러시아어, 필요시 영어를 사용하며 소통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

여 확인하거나, 통역자에게 통역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성찰은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연구자가 연구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선형적인 이론이나 가설 혹은 관점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김영천, 정상원, 조재성, 2019). 연구자는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진행 과정을 복기하며, 연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혹은 연구 문제나 연구 내용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연구자 노트를 작성하고 성찰하였다.

4.2. 윤리적 고려

연구 결과에 나타난 의미에 따라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계획, 자료수집 및 분석과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은 지속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Creswell & Poth, 2017: 258).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현장인 A 고등학교의 학교장, 교감, 부장 교사, 다문화 전담 교사와 담임 및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연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였다. 한국어 및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서면 자료,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 진행 기간 및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과 연구 철회 등의 사항을 충분히 알렸으며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연구 참여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둘째, 자료수집에서 연구참여자인 중도입국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였고 교사의 위계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셋째, 자료분석 시 연구참여자의 개인 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의 이름은 별칭으로 처리하고 특정인을 예상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적절히 재구성하였다. 또한, 작품 사진 등 자료를 활용할 경우는 개인정보나 얼굴 등은 모자이크 처리로 보호하여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넷째, 연구자는 전체 프로그램 종결 후, 연구참여자 7명의 동의하에 다문화 전담 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치료 경과 보고서를 제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정서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질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질적 연구자의 역량 함양과 연구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첫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회(88시간)에 걸쳐 질적 연구방법론 캠프에 참가하였고, 인하대학교 IRB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되는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윤리 과목을 이수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연구 윤리를 배우고 연구의 기본을 익혔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논문연구 I, II 수업과 ‘다문화교육 질적 연구방법론’, ‘융합건강과학 질적 연구방법론’, ‘다문화융합 연구방법론’, ‘다문화교육 정책론’ 수업 등에서 질적 연구와 연구 방법에 대한 지도를 받으며 연구를 발전시켰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공동체의 정기 세미나, 월례 발표회, 정규 수업, 학위논문 지도 워크숍에 참가하여 지도교수와 멘토 교수들의 자문 및 동료 질적 연구자들의 코멘트를 통하여 연구를 발전시키며 논문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거쳤다.

넷째, 연구자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질적 연구전문가, 표현예술심리치료 전문감독관, 표현예술심리치료학 박사, 교차 문화 상담전문가, 미술치료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통해 프로그램을 검토받았다.

다섯째, 연구자는 석사과정에서 예술심리치료학 표현예술심리치료를 전공하였고, 현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 전공, 인문융합치료를 부전공하였다. 연구자는 심리치료 전문 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개인 및 집단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임상 수련을 받았다. 이밖에 해외 다양한 문화권 및 국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를 다수 진행하였고, 개인치료, 집단치료, 표현예술치료, 언어상담 및 부모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 1급 예술심리상담사(제2012-0432호), 1급 미술심리상담사(제2020-002568호) 자격증을 보유한 표현예술심리치료 전문가로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

여섯째, 연구자는 질적 연구자로 수련받으며 본 연구에 앞선 준비 단계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주제로 문헌 연구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학술대회 발표를 하고, KCI 국내 학술지에 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학술지 심사 과정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중도입국청소년은 사회적 소수자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



다. 이 점에서 비추어볼 때 이 연구의 윤리적인 고려는 중요하다. 연구자는 2023년 5월 12일에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최종 승인받았다. 이 연구의 승인번호는 (20230217-1AR)이다. 심의 과정에서 1차 신청 내용 중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자격요건을 기술하라는 수정 사항을 받아 지시 사항대로 연구자의 예술 심리상담사, 미술심리 상담사 경력과 자격을 추가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 첫 회기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러시아어로 번역된 서면 및 동영상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동의서 및 연구 설명문은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요구하는 기본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자의 정보, 연구 절차, 자발적인 참여와 철회의 자유, 연구에 수반되는 위험 및 보상, 비밀 보장, 자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화 내용 기록 및 녹음, 사진 촬영 등은 연구참여자가 IRB 승인 동의서에 서면 동의한 후 진행하였다.

IV.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개요 및 목표

1.1. 프로그램의 개요

표현예술치료는 예술의 치유적 속성으로 인해 심리상담뿐 아니라 교육 현장 및 병원 임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단일 예술 매체보다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통합하여 적용하는 추세이다(오영애, 최명선, 2019). 다양한 예술 매체는 음악, 신체 동작, 호흡, 상징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림 그리기, 스토리텔링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개인의 존재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Levine, Levine, 1998; 이정주, 2021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활용하기 쉬운 신체 동작 활동과 예술을 활용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중도입국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포함한 자신의 일상 영역에서 상호주관적 주체로 실천적이고 적응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함에 따라 또래 관계를 포함한 일상의 영역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친밀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주체로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연구는 수도권지역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인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2일~12월 26일까지 주 1회 회기 당 100분, 총 12회기로 진행하였다. 매회기는 준비 활동, 본 활동, 나눔 및 마무리(홍정의, 2016)로 구성하였으며 집단의 연구참여자 인원은 집단치료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숫자인 6~8명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였다(Yalom, 1995).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자기 경험과 내면에 억압된 부정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폐쇄 집단으로 운영하였고 집단표현예술치료의 목적 및 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 과정 내용, 프로그램을 진행할 연구자와 참여관찰자 및 통역사 소개, 연구참여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이익과 보상 등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예술심리상담사 1인을 참여관찰자로 배치하여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활동 내용 및 작품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밖에, 프로그램 진행 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능통한 통역자 1인을 배치하였다. 통역자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촬영하고 매회기가 끝난 후 영상물을 번역한 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1.2.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설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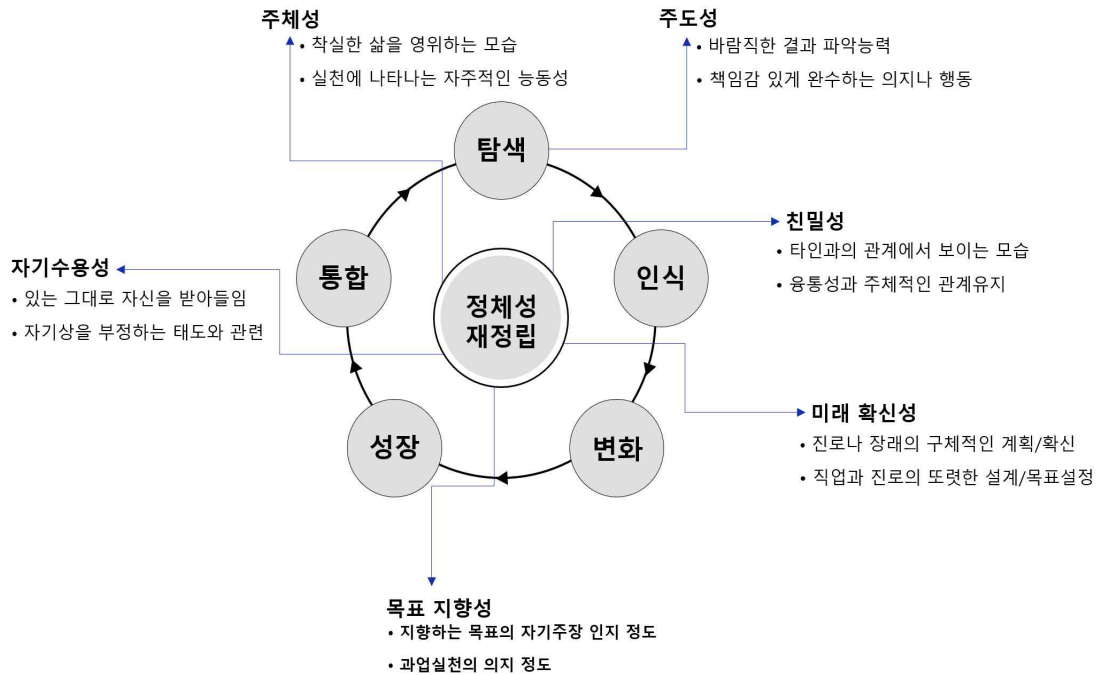
이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박아청(1996)의 자아정체성 척도의 하위 요인 주도성, 친밀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자기 수용성, 주체성과 기희경(2022)의 대학생 주체성 척도의 하위 요인 자기결정, 자기 가치, 역할 책임, 도덕적 책임, 실천 역량, 관계 역량의 내용을 유사한 개념으로 함께 묶고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게 구성요소를 설정하여 <표 IV-1>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Halpin(할프린)이 제시한 표현예술치료의 5단계인 탐색, 인식, 변화, 성장, 통합 과정을 기반으로 단계별 목표에 따라 회기를 구성하였다(Halprin, 2003).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구성과 활동 내용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모델(김선형 외, 2016; 송연우, 2019; 조환진, 2015; 홍정의, 2014)을 기반으로 주제에 맞게 12회기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자신의 본연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 정서를 표현하며 승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며 나와 타자가 친밀감을 경험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이루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가 자기수용 및 공유된 이해를 경험하는 공감과 지지의 과정에서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하여 건강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목표를 위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프로그램의 설계모형은 다음 [그림 IV-1]과 같다.



<표 IV-1>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내용

구성요소	내용
주도성 (역할 책임, 자기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의지 또는 행동이다. 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자아 성장 욕구가 강하고 새로운 문제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자기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에게 맞는 해결 능력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다. • 자신을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신의 역할과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친밀성 (관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융통성과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말하는 것과 적절한 자기 개방을 포함한다. • 타인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잘 소통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미래확신성 (실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직업과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설정 후 내면의 안정감을 가진다. • 인생에 대한 목표를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목표지향성 (자기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주장을 인지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의 정도를 말한다. • 나의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수용성 (관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인식과 자기 판단 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거나 자기상을 부정하는 태도 여부를 말한다. • 타인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잘 소통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주체성 (실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동일성, 자아정체성, 자아의식, 자기완성으로 표현하며 자기의 재질, 역량, 가능성을 바탕으로 삶의 목표 설정을 착실하게 영위해 가는 것이다. • 인생에 대한 목표를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IV-1] 프로그램의 설계모형

[그림 IV-1]과같이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후기단계에 따라 탐색, 인식, 변화, 성장, 통합의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정립해 가도록 구성하였다. 위의 설계모형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

단계	회기	목표
초기	탐색 1-2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유발, 라포형성 및 자기 탐색
	인식 3-5	자기 이해 및 타인 인식
중기	변화 6-8	자기수용 및 공유된 이해를 통한 공감과 지지
	성장 9-10	소통을 통한 감정교류 및 상호작용
후기	통합 11-12	경험과 통찰의 자율적 공유를 통한 미래목표 설정



<표Ⅳ-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프로그램은 총 12회기이며,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과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을 활용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자기 이해 및 타인 인식, 공유된 이해의 경험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을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를 표현예술치료의 탐색, 인식, 변화, 성장, 통합의 5개 과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초기탐색 1~2회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로 집단에서 라포를 형성하는 탐색단계이다. 예술치료를 포함한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치료자와 집단원 간 라포를 형성하며 치료 동맹¹¹⁾을 맺는 것은, 심리치료의 중요한 과정으로 치료 동맹이 이루어져야 긍정적인 상담 성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박원주, 1998). 따라서 프로그램 초기의 탐색단계는 전체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연구참여자는 자기 탐색 및 자기 인식을 풍부하게 한다.

중기 인식 3~5회기는 자기 이해와 타인 인식하는 자기 탐색 및 타인 인식단계이다. 중기 변화 6~8회기는 자기수용 및 공유된 이해를 통한 공감과 지지의 변화단계이다. 중기 성장 9~10회기는 치료자와 집단원 간 소통하며 감정을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성장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집단원과 상호 소통하며 감정을 교류하는 예술창작 과정에서 의식·무의식을 통하여 내면을 표현하게 된다. 이때, 연구참여자는 자기의 경험을 탐색하고 자신과 타자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의미를 성찰한다.

후기 통합 11~12회기는 경험과 통찰의 자율적 공유를 통한 미래 목표를 설정하여 주체적인 미래상과 희망 고취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통합 단계이다. 이와 같은 단계별 목표를 위해 매회기의 준비 활동, 본 활동, 나눔, 마무리의 순서로 100분간 진행한다. 준비 활동은 집단원들과 함께 신체활동으로 구성된 간단한 리추얼을 하며 본 활동에서 회기별 주제에 맞는 다양한 표현예술치료 활동을 통해, 자기 탐색 및 인식, 자기표현, 타인 인식 및 상호 소통한다. 나눔과 마무리는 활동에서 느낀 감정, 새롭게 깨달은 생각을 집단원과 나누고 리추얼로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넓혀 성찰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상호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치료 동맹이란 내담자와 상담자가 신뢰감을 형성하여 긍정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다(Bordin, 1979). 치료 동맹은 상담의 초기 단계에 발달되며, 상담의 효율성과 성과를 예언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Horwitz, Marmar, Weiss, Dewitt, & Rosenbaum, 1984).

2. 프로그램의 구성

2.1 프로그램의 구성과정

이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과정은 프로그램 초안, 예비 사례연구, 1,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구성과정과 내용은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프로그램 구성과정과 내용

단계	과정	내용
1	기초 계획 및 사전작업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계획 수립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고찰
2	프로그램 초안 개발	·표현예술치료 학술 논문 프로그램 분석 ·주체성 생성 이론(분열분석) 구성요소로 회기별 목표 설정
4	1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	·상담전문가 교수 1인 ·미술치료 전문가 교수 1인 ·교차문화상담 전문가 박사 1인 등, 전문가 총 3인 검증
3	1차 프로그램 수정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기반인 분열분석 주체성 이론 변경 ·자아정체성, 주체성 척도 연구물 분석 및 하위 요인 도출 ·표현예술치료 학술 논문 및 학위논문 프로그램 분석 ·총 회기 12회기→ 8회기로 수정 ·표현예술 매체 추가 및 신체 동작 활동 추가
5	예비사례연구 실행	·2023년 5월 19일~7월 2일까지 8회기 프로그램 실행 ·연구참여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자료수집
6	2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	·질적연구 전문가인 교수 1인 ·표현예술심리치료 전문감독관인 교수 1인 ·표현예술심리치료학 박사 1인 등 전문가 총 3인 검증 ·예비사례연구 결과 및 참여자 의견 반영
7	본 프로그램 최종안	·표현예술치료 학술 논문 및 학위논문 프로그램 보완 ·총 8회기→ 12회기로 연장
8	본 프로그램 실행	·2023년 9월 12일~12월 26일까지 12회기 프로그램 실행 ·연구참여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자료수집

프로그램의 초안은 주체성 생성 이론의 분석 단계를 구성요소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프로그램 초안의 목표 및 내용

단계	회기	목표	내용
초기	1	라포형성	자신의 이름으로 3행시 짓고 이미지화 이미지를 통해 자기소개하며 라포형성
	2	욕망의 탐색 (가족장) '내가 들은 엄마, 아빠의 이야기'	부모의 욕망이 투영된 자기 인식 그림 카드로 이야기책 만들기
	3	욕망의 탐색 (사회장) 나에게 중요한 관계'	학교나 공동체에서 나의 욕망이나 역할 탐색 수채물감을 이용한 데칼코마니 작업
	4	분열적 욕망 탐색 (충돌) '나를 멈추게 하는 말'	과거 좌절된 욕망 탐색하고 이미지화 욕구가 충돌했던 지점을 탐색하고 이미지 확장하기
	5	분열적 욕망 탐색 (충돌) '내가 도전하지 않았던 벽'	난화 작업을 통해 감정 표출 난화 즉흥이야기 만들기로 억압된 무의식 탐색 난화 재구성으로 좌절된 욕구 공감과 지지 젠가 놀이하하며 나의 욕망나누기
중기	6	탈주선	나의 것과 부모, 사회가 요구한 욕망 구별하기 욕망의 주체가 '나'로 바뀐 것을 찾고 소감 나누기 나의 욕구 및 부모와 사회의 욕구 구별하기
	7	탈주선	변화하고 싶은 욕구 찾고 이유 말하기 나의 나무 만들기에서 열매로 표현하고 이름 짓기 가족관계에서 나의 욕구 탐색 후 나열하기
	8	재코드화 (가족장)	'나의 욕망 기차 만들기' 후 주체 탐색하기 기차의 순서를 재배열하고 새롭게 느낀 점 나누기
후기	9	재코드화 (사회장)	학교나 사회에서 욕망 충족을 위해 했던 일을 나열하여 구슬 팔찌 만들기/좌절된 욕망 찾기 원하는 대로 구슬 교환하여 팔찌 완성하기
	10	재코드화 (분열적 장)	동굴 밖 장면(욕망 성취) 그린 후 탈출 방법 나누기 자신이 새롭게 변화될 것 탐색하기

단계	회기	목표	내용
후기	11	자기생산	현재 '나'를 표현하는 이름 3행시 짓기 첫 회기의 작품과 비교해서 변화된 부분을 비교하여 이야기 나누기
	12	종결	가정, 사회 영역에서 변화 탐색하기 나에게 편지쓰기와 답장 보내기

<표 IV-4>와 같이 이 연구의 프로그램 초안 구성에서는 위와 같이 주체성 생성 이론의 구성요소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욕망을 탐색하고 자기생산 과정을 통해 주체성을 발현시키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1차 전문가 평가를 위하여 14년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상담전문가 교수 1인, 18년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미술치료 전문가 교수 1인, 25년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교차 문화 상담전문가 박사 1인 등 총 3인의 전문가에게 대면과 비대면 슈퍼비전을 받고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1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내용은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1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내용

구분	평가 및 의견
전문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열 분석 개념을 잘 이해하였으며 회기 구성이 적절하다. ·욕망 실현을 위한 과정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체가 분열 분석인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구슬 꿰기'활동으로 코드화한 후 재 코드화 피드백을 한 부분이 좋다. ·예술치료로 코드화를 했을 때 결과가 추상적이라 다소 어려움이 있다. ·코드화가 분열 분석의 특성인 순서나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회기가 부족하다.
전문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에서 연구참여자를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전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작업이 많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나의 욕망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기 구성이 다소 피상적이다. ·프로그램 특성상 연구참여자가 말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오리엔테이션을 매우 탄탄하게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초반 라포형성이 특히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므로 그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업 샘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분	평가 및 의견
전문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입국청소년은 세 글자 이상의 모국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는 곤란한 활동이 될 수 있다. ·가족장을 탐색하는 회기 진행 시,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자녀를 본국에 놓고 부모가 한국으로 먼저 들어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상 분리와 이주에 대한 이슈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 ·중도입국청소년과의 상담/치료의 어려움은 언어소통이다. 치료사의 노력이 필요시 되는 부분이다. 쉬운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표 IV-5>와 같이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1차 프로그램을 평가한 전문가들은 집단 표현예술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가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주제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 A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주체성 생성 이론인 분열 분석에 대한 개념 이해는 잘 되어 회기를 구성하였으나 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때 분열 분석 코드화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문가 B는 프로그램이 연구참여자가 수행하기에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며 회기별 내용이 많고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C는 연구참여자의 언어, 환경의 제약 및 분리와 이주의 이슈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평가 결과 프로그램 초안이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실행하기에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였다.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구성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를 위한 구성요소를 주체성 관련 척도 논문 4편을 분석하여 자아정체성 척도(박아청, 1996)와 대학생 주체성 척도(기희경, 2022)의 하위 요인을 도출하여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총회기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12 회기에서 8회기로 줄였으며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로 신체 동작 활동을 추가하였다. 이를 재구성한 1차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1차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단계	회기	주제	목표	내용
초기	1	자유로운 이야기	O.T, 라포형성	사진 카드로 자기소개 및 개방
	2	나의 이름은	흥미 유발 라포형성	지그재그 공간 신체 동작 활동 나의 이름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3	마음속 이야기	안전한 공간 및 자기 탐색	신체 물방울 동작 활동 사진 카드로 이야기 꾸미기
중기	4	여기 지금 나	억압된 욕구 인식	마주 보고 걷기 신체 동작 활동 즉흥 만들기
	5	옛날 옛적에	내면 무의식 탐색 및 표현	신체 동작 미러링 활동 먹물 난화 스토리텔링
	6	꿈으로 가는 여행	나의 억압된 관계욕구 탐색	손가락 그림 그리기 기차여행 터널화
후기	7	내가 만약 새라면	감정 해소 및 공감과 수용	동작 미러링 신체활동 나를 닮은 인형 꾸미기
	8	내가 만날 너, 네가 만날 나	현실 수용과 자율적 역량 발휘	신호등 스티커 신체 동작 활동 나의 신체 모형 만들기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전문가 평가를 마친 프로그램의 예비 사례연구 실행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고려인 청소년 단체 SNS에 프로그램 연구참여자 모집 글을 게시하여 신청자를 모집한 후 참여자를 통하여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 5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3~4회의 사전모임을 가지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예비 사례연구 실행 직전에 공장 취업 및 한국어 학원 출석 등 개인 일정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하고 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참여가

저조한 1인은 중도 탈락하고 최종 2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19일~7월 2일까지 주 1회, 회기 당 90분,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프로그램 실행을 마친 후 신체활동 추가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원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요청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최종안에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과 실행 및 중도입국청소년이 수행하기 적절하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2차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였다. 2차 전문가 평가를 위하여 29년의 경력을 보유한 질적연구 전문가인 교수 1인, 25년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표현예술심리치료전문 감독관 교수 1인, 10년의 임상 경력의 표현예술심리치료학 전공 박사 1인 등 총 3인의 전문가에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2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 내용은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2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내용

구분	평가 및 의견
전문가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와 표현예술치료 변화모형이 12회기 프로그램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주제성을 발현하도록 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상호주관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창조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활동과 표현의 연결성 및 즉흥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제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타자를 전제하는 집단치료로 진행한 것이 적절하다. 집단치료의 특성은 표현예술치료로 설명하고 그 안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주제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 구성이 중요하다. ·8회기는 다소 짧아 16회기를 추천하지만 상황에 따라 12회기로 조정이 가능하다.
전문가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회기 구성이 잘 된 프로그램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발달기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참여자들이 자신의 언어의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료자 역할이 중요하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의 중요 이슈인 분리와 이주에 관한 주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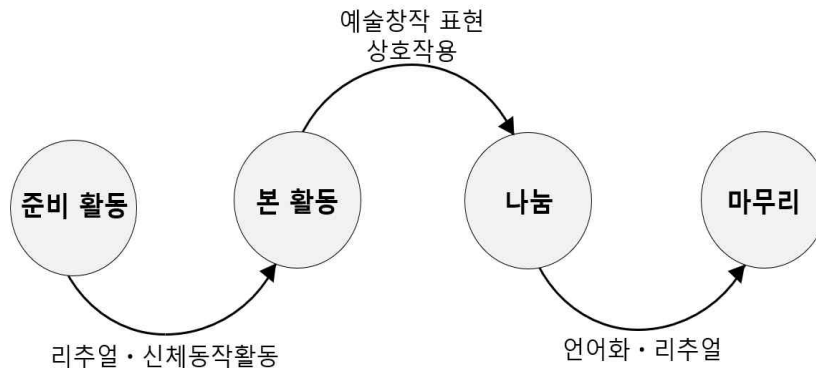
<표 IV-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차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에서는 집단표현예술 치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이주와 청소년 발달기 특성 등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D는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주체성의 구성요소와 표현예술치료 변화단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논리적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E는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성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매체를 연결한 활동과 표현을 강조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이 타자에 대한 인식을 돕도록 집단치료로 운영하여 표현예술치료의 특성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적절한 프로그램 회기 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F는 전반적으로 구성이 잘된 프로그램이라 평가하며, 중도입국청소년의 발달기 특성을 고려한 회기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서 치료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가 쉽도록 난이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분리와 이주에 관한 주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2차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을 집단표현예술치료의 변화 단계 및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서현주, 김영순, 2023).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른 활동 내용은 예술 매체와 신체 동작 활동 등 비언어적 요소를 추가하였고 프로그램의 단계별, 회기별 목표와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2.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단계 및 내용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은 목표에 따라 회기별, 단계별 계획안을 진행하여 회기 내에서 치료사와 집단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라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회기 시작에서 명사¹²⁾ 소리로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고

12) 명사(Tingsha)는 집중 또는 이완된 심신 상태가 필요한 명상이나 요가 수행에서 시작할 때, 중간, 마무리할 때, 울리는 소리와 섬세한 파장으로 의식을 각성시키고 수행 과정을 환기할 때 사용한다. 소리를 이용하는 티베트의 명상 도구인 울리는 주발(Singing Bowl)과 더불어 널리 쓰이며 양손으로 끈을 잡고 부딪쳐 소리를 내는데, 부딪치는 강도와 위치에 따라서 소리의 강도와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Shrestha, 2015).

준비 활동으로 호흡을 통해 몸을 이완하고, 신체 동작 활동으로 연구참여자의 자기 인식을 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한다. 신체활동 준비 후 집단원은 별칭 만들기를 통해 자기를 탐색하고 인식하는 시간을 가진다. 별칭 짓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리며(최외선 외, 2006) 긴장을 해소하고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자기 개방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성미나, 홍성화, 2010). 집단원들은 자신의 별칭을 소개할 때, 준비된 털실 뭉치를 다른 집단원에게 전달하는 ‘털실 주고받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집중하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정여주, 2016). 집단원들이 별칭을 소개하며 털실을 전달하는 동안 서로 연결된 털실을 보며 전체 공동체에 대한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활동으로 회기의 소감을 나누고 호흡을 이완한 후 명사 소리로 회기의 종결을 알려 집단원이 자신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회기별 진행 단계는 준비 활동, 본 활동, 나눔, 마무리의 4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준비 활동 20분, 본 활동 40분, 나눔 50분, 정리 10분으로 전체 100분간 진행하였다. 회기별 진행 단계 및 내용은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단계 및 내용

[그림 IV-2]와 같이 첫째, 준비 활동 단계는 회기의 시작으로 명사를 치고 호흡을 이완하는 간단한 리추얼¹³⁾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일

13) 리추얼은 제레나 의식이라는 의미로, 표현예술치료에서 할프린의 동작리추얼(Movement Ritual)이란

상생활에서 집단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 준비 활동에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나 감정을 느끼고 긴장을 풀고 흥미를 유발하여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본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둘째, 본 활동 단계는 준비 활동에서 자각한 신체감각을 유지하고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회기별 주제에 따라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자연스럽게 탐색한 후 개인 혹은 집단원 공동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시간이다. 본 활동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정서 및 작업 동기에 부합하는 예술 매체를 스스로 탐색하여 자신의 의식·무의식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치료자는 불필요한 지시나 개입을 자제하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작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치료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셋째, 나눔 단계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예술창작품에 제목을 짓고 작품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감상을 나누며 내면 정서를 의식화한 언어 표현으로 자기 통찰을 돕는다. 연구참여자의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를 나누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이다. 나눔 단계에서 치료자는 회기별 진행 상황에 따라 1:1 나눔, 소그룹 나눔, 전체 나눔 등으로 유연하게 조절하여 연구참여자가 자기 개방에 대한 방어를 줄이며 집단원과 안전한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며 자율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넷째, 마무리 단계는 매회기의 활동과 나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연구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소감을 각자 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마무리 단계는 사전 활동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 이완하고 리추얼로 종결하여 회기를 정리하고 집단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다.

2.3. 단계별 프로그램 과정 및 내용

프로그램의 전체 회기는 총 12회기로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회기별 프로그램의 구성 단계는 1~2회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유발,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라포를 형성하는 탐색단계이다. 3~5회기는 자기 탐색, 자기 이해 및

일련의 움직임들로 짜이고, 타말파 연구소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형태로 공유되는 무브먼트 리추얼이라는 활동으로 고유명사로 취급해 영문식을 표기한다(임용자, 2004). 이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차용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교육 형태의 공유가 아닌 동작을 이용한 의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타인 인식의 단계이다. 6~8회기는 자기 수용 및 집단원 간 공유된 이해로 공감과 지지하는 변화 단계이다. 9~10회기는 집단원 간 소통과 감정교류 및 상호작용의 성장단계이다. 11~12회기는 집단원들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통합하는 단계이다. 프로그램의 단계별 내용 및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3.1. 초기 단계 (1~2회기)

초기 탐색단계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도록 안전한 심리적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자신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매회기의 시작과 끝은 구조화하여 집단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집단원은 매회기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호흡을 이완하며 명상 소리로 시작하는 간단한 리추얼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고 집단 동질감과 신뢰감을 느끼며 회기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회기를 마칠 때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언어화하여 표현하여 명료화하고 시작과 같이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집단원이 자신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하였다. 매회기의 시작과 종결이라는 의례적인 반복은 안정감을 주고, 인간관계의 애착 형성을 위한 신뢰의 경험을 쌓는다(정남주, 2010). 다음은 전체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와 활동 내용이다.

1회기 ‘나의 이름은’ 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기 탐색 단계로, 명상을 치며 호흡을 통해 신체와 정서를 이완하고 간단한 집단 리추얼로 회기를 시작한다. 1회기 준비 활동에서 ‘마주 보고 걷기’ 로 자기 몸의 감각에 지각하고 자신의 심리적 거리를 인식하도록 한다. 자연스럽게 공간을 걸어 다니며 신체를 이완하고 프로그램 초기에 어색함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치료 동맹을 맺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본 활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불리고 싶은 자신의 별칭을 정하고 꾸미기를 하며 자유로운 자기 탐색과 표현을 돕는 역할을 한다. 별칭 짓기는 긴장을 해소하고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연구참여자가 첫 회기에 자기 개방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심리적 방어를 줄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성미나, 홍성화, 2010). 별칭 만들기를 마치면 각자 들고 있던 털실 뭉치를 건네며 별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털실을 건네받은 연구참여자가 자



신의 별칭을 소개하고 또 다른 연구참여자에게 건네며 집단원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털실 주고받기는 순서 없이 전달되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별칭 소개가 모두 끝난 후 서로 간에 연결된 털실을 보며 프로그램을 함께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나눔 활동은 집단원들 모두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자기 서사를 나누고 경청한다. 마무리 활동으로 한 문장으로 소감을 나눈 후 명사를 이용한 리추얼로 회기를 종결하여 환기한 후, 집단원이 자신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하도록 한다.

2회기 ‘내 마음은 지금’ 준비 활동에서 ‘신체 물방울’ 활동으로 시작한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양손을 둥글게 벌려 몸 주위에 자신이 편안하게 여기는 거리만큼 경계를 만든 후, 집단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교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때 다른 집단원들을 만나게 되고, 연구참여자가 자신에게 심리적·물리적 안정감을 주는 적절한 경계를 탐색하며 타인과의 거리를 인식하는 활동이다(서현주, 최명선, 2021). 본 활동에서 연구참여자는 자기의 내면을 탐색하고 각자 끌리는 한 가지 색상을 선택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색상 콜라주로 연결하여, 현재 감정과 경험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콜라주는 그림 그리기에 거부감이 있을 때 사용하기 적합한 방법으로 표현예술치료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 초반,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잡지를 넘기며 눈에 띄는 색상이나 이미지를 무작위로 오려 붙이며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다(김병철 외, 2016). 이밖에 감각각극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자기 탐색과 시각적 표현을 창작하며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가진다. 나눔과 마무리 활동은 12회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단원이 나눔을 거부할 경우, 나눔을 독려하되 반드시 발표하도록 하는 대신, 소그룹으로 나눔을 진행하는 등 비지시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3.2. 중기 단계 (3~10회기)

중기는 3~10회기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인식, 변화, 성장단계를 포함한다. 3~5회기는 자기 탐색 및 타인 인식을 목표로 하는 인식단계이다.

3회기 ‘옛날 옛적에’ 준비 활동은 연구참여자가 직선 걷기, 곡선 걷기, 지그재그 걷기 등 서로 다른 움직임 규칙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다른 집단원과 마주치며 느끼

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공간 내에서 대면하는 타인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탐색한다. 본 활동은 먹물 난화 그리기이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쪽의 손을 사용하고, 생각을 멈춘 후 여러 장의 난화를 그린 후 발견한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 새롭게 그림으로 구성한다. 난화는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억압된 정서를 이끌 수 있으며 정서와 지각 운동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공마리아, 1995; 최외선 외, 2007). 난화를 보며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이야기 만들기를 한다. 같은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해받는 것은 일종의 ‘말하기 치료’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집단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음으로 내면을 치유할 수 있고, 자신뿐 아니라 타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유강하, 2023: 86). 이렇듯 신체활동과 더불어 예술창작 작업은 자기와 타인을 인식하고 의식·무의식을 탐색하며 자기 개방에 대한 방어를 줄이며 한층 더 깊은 자기 이해를 돕는다.

4회기 ‘짐가방을 싸던 그 날’ 준비 활동은 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녁에 써 놓은 감정 단어를 화살 쏘기로 맞추며 본 활동을 위한 신체와 정서를 환기한다. 본 활동은 이주 과정에서 경험했던 억압된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신문지와 색상지 등 종이 찢기로 안전하게 발산하는 작업이다. 비언어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발산하는 작업은 우울하거나 타인 및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을 피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자기 개방을 꺼리는 청소년에게 유용한 방법이다(송현중, 신소영, 2014). 발산 작업에는 신문지 찢기, 점토 두드리기, 던지기, 물감 뿌리기 등이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나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을 할 수 있게 된다(전순영, 2011). 발산 작업을 마친 찢어진 종이는 다시 뭉쳐 색 보자기에 감싸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기보다, 이를 인정하며 집단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주와 분리의 상실로 인한 내면의 정서를 함께 수용하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진 후, 자기 일상을 둘러싼 타인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환기하도록 돕는다.

5회기 ‘안아주는 집’ 준비 활동은 다양하게 주어지는 자극 그림 중 2개를 선택하여 관계 양상을 그림으로 꾸미는 DAS(Draw-a-Story)를 실시하여 내면의 불안, 우울 등의 정서와 스트레스를 탐색하였다(최윤영, 2014). 본 활동은 연구참여자가 자신



이 인식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과자를 재료로 하여 ‘안아주는 집’을 만든다. 연구참여자들은 과자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단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자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탐색하며 타자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도록 한다. 과자로 만들기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집단원이 매우 흥미 있게 여기는 매체다. 음식을 먹는 행동은 심리치료 관계에는 상징적이거나 심리적인 의미로 양육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작업하면서 집단원들은 심리적 상태, 즉 내면의 갈등이나 채워지지 않은 요구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밖에 집 만들기 주제는 집단원의 자기개념, 내면 욕구, 갈등 및 가족과의 이슈들이 드러나는 작업으로 연구참여자들 이해에 도움이 된다(주리에, 2013).

6~8회기는 자기 수용 및 공유된 이해를 통해 집단원들 서로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변화단계이다. 6회기 ‘내가 건넌 징검다리’의 준비 활동은 집단원들이 바닥에 깔아놓은 신문지에 떨어지지 않고 서바이벌하는 동작 활동으로 미션이 성공하며 신문지 크기를 줄이며 신문지 위 서바이벌을 위해 집단원들의 의견을 모으며 협동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친밀감을 높이며 집단응집력을 기른다. 본 활동은 넓은 물을 상징하는 파란 천 위에 징검다리를 만들어 중도입국청소년이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이주의 경험을 재현하는 활동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모양의 무지 봉제 인형 중 자신을 닮은 모양을 골라 캐릭터를 꾸미고 징검다리를 건넌다. 심리치료에 활용되는 인형 상징물의 특징은 추상적이고 비언어적인 부분을 언어와 의미 부분에서 구체화하고 확장해 준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인형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내면 아이¹⁴⁾와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다(최광현, 2014).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 이주 전 모국의 추억을 나누며 잊고지냈던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집단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주와 분리의 경험을 드러내고 상호 수용하고 지지받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자기 가치를 깨닫고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립하는 시간을 가진다.

7회기 ‘나무를 심자’는 자기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자기 수용하며 나의 나무를

14) 내면 아이란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아를 의미하는 말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속해서 영향을 미쳐 우리의 자아 기능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과거 상처의 경험이 가진 영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Subramanian, S., & Raj, I. D. F., 2012).



꾸미는 상징적인 작업을 통해 자아상을 재정립하고 주체적인 성장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준비 활동은 집단원이 각자 나무와 바람으로 역할을 정한 후 나무 포즈를 취한 연구참여자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대처하는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자기 이해를 도모한다. 본 활동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나무를 선택하여 씨앗을 심고 ‘나의 나무 만들기’ 작업에서 자신의 주도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서로의 나무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심리치료에서 나무는 자아상을 나타내며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무는 개인적 삶의 내용, 전기적 상황과 개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 개인 무의식에 있는 감정을 반영할 수 있다(김선현, 2016).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모양의 나무모형을 선택하여 자아상을 반영한 나무를 꾸며 자신의 미래상을 계획하고 나눔을 한다.

8회기 ‘Don’t worry we’re here’ 의 준비 활동은 탄력이 강한 천으로 만들어진 원형밴드에 집단원 모두 들어가 함께 밴드를 지탱하며 흔들림이 강한 탄력밴드 내에서 서로 위치를 교환하는 등의 신체활동이다. 이때, 공동체의 지지를 체험하며 흔들림 내에서의 내적 정서를 인식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집단응집력을 기른다. 탄력밴드 활동은 무용/동작 치료의 하나로 움직임을 통해 집단원들의 신체, 감정, 정신이 상호작용을 하며 이 셋을 통합시켜 준다. 탄력밴드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통해 치료자와 집단원들이 유대감과 신뢰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체 동작 활동을 통해 무의식적인 자유연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창의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어 심리적 억압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의 자기회복에 도움을 준다(류분순, 2000). 본 활동은 탄력밴드 활동에서 경험한 신체감각과 자신의 심리·정서를 탐색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함께 나누며 상호소통과 상호 이해를 경험한다.

9~10회기는 소통을 통해 감정을 교류하고 집단원과 상호 주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성장단계이다. 9회기 ‘따로 또 같이’ 의 준비 활동은 현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카드를 선택하고 사진에 투사된 자기개념 및 상황을 표현하며 시각적인 자기 이해를 도모하고 집단원 간 상호 소통한다. 사진의 역할은 사진 속에 나타나는 상징과 상징에 대한 투사를 이용하여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다. 선택한 사진은 연구참여자의 자기 진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참여자의 정신세계와 내면을 반영하여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극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민화, 김준형, 2013). 이어지는 본 활동에서는 점토를 이용하여 공동체 내

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모습을 만든 후 집단원들은 다른 집단원이 만든 작품을 보완하거나 확장하여 발전시켜 준다. 점토는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매체로 창작 과정에서 자기 주도, 자기 조절, 자신감, 자기 효능감 등 성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쳐 새로 작업하며 패배감을 해소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사고를 자극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김병철 외, 2016). 연구참여자는 점토 작업을 통해 자기 성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극과 더불어 집단원들의 작품을 보완, 확장하는 작업에서 나와 상대방의 내면 욕구와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탐색하고 공감하고 지지한다. 이를 통해 상호이해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을 원형 종이 만다라에 위치시키고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나눔으로 마무리한다.

10회기 ‘어느 멋진 날’의 준비 활동은 치료자가 따뜻한 물로 집단원의 손을 닦아주고 로션을 발라주며 정서적 보살핌과 애착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돌봄의 경험을 통해 애착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 가치, 자기 수용을 경험하며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돌봄의 상호작용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술 창작 작업이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심리치료에 필요한 긍정적인 전이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서현, 2007). 본 활동은 연구참여자가 2명씩 짝을 이루어 서로에게 석고붕대 붙여주는 활동으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는 손 모양 트로피를 만든다. 10회기는 집단원들이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돌봄을 주고받으며 상호 소통하고 지지한다. 자기의 손 모양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트로피를 보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석고붕대 작업은 외형적인 틀로 현재 나타난 결과물을 관찰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연구참여자가 자신을 상징하는 손 모양을 보며 삶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해준다(김병철 외, 2016).

2.3.3. 후기 단계(11~12회기)

후기는 11~12회기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찰하고 공유하는 통합단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자기 인식 및 타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관계를 이룬다. 연구참여자는 자기 경험과 통찰을 집단원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미래 목표 지향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며 프로그램을 종결한다.

11회기 ‘내가 만날 너, 네가 만날 나’의 준비 활동은 다양한 색상의 컬러 시트를 몸에 붙이고 치료사의 지시에 맞춰 같은 색상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통해 활력 있는 상호작용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신체활동에서 나, 너, 우리를 경험하며 사회성을 향상하고 활력을 증대하며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다(한유진 외, 2022). 이어지는 본 활동은 나의 내면의 활력과 잠재력을 생각하며 다양한 신체 본 중 자신을 표현하는 모형을 선택하여 자신의 역량을 부각하여 꾸민다. 입체적으로 만든 나와 집단원 서로의 모습을 보며 서로의 내적·외적 역량을 인식하고 통합하도록 지지한다. 신체 본을 활용한 작업에서 내면의 안정감과 자아개념을 확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깨닫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차소현, 이예스더, 2020).

12회기 ‘Go go into the world’의 준비 활동은 인간사슬 풀기 신체 동작으로 집단원이 손을 잡고 큰 원으로 둥글게 서서 인간 사슬을 만든 후 반대 방향으로 풀어내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집단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신체 동작 활동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학교 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또래 집단에 소속되어 인정받고 우정을 나누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인간사슬 풀기 신체활동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은 효율적인 학습 수단이 될 수 있다(김승일, 2009). 이어지는 본 활동에서 집단원은 지난 회기에 만든 자기 신체 모형을 모아 함께 살아갈 마을 꾸미기를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협동 작업이다. 마을 꾸미기 작업은 연구참여자들이 협동하며 마을 내의 다양한 환경을 꾸미며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와 집단원들 상호 간에 자유와 임무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김진숙, 2005). 이 과정에서 관계 역량과 주체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발휘한 연구참여자들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주체적 실천 역량을 발휘하며 삶의 목표를 수행해 단계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게 된다. 이어지는 나눔과 마무리 시간에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소감과 참여 경험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누고 리추얼을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종결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포함하여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제와 목표 및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최종안을 구성하였다.

3.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최종안

3.1.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내용

중도입국청소년 상호주관성 형성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12회기 프로그램의 주제와 목표 및 활동 내용은 다음 <표 IV- 8>과 같다.

<표 IV- 8>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목표와 활동 내용

단계	회기	주제	목표	활동 내용
초 기 탐 색	1	나의 이름은	주도성 · 감각 자극	O.T 흥미 유발 라포형성 마주 보고 걸기 신체 동작 별칭 짓기와 자기소개
	2	내 마음은 지금	공간인식 자기 탐색	신체 물방울 신체 동작 나의 색 콜라주
중 기 인 식	3	옛날 옛적에	자기 수용성 · 은유와 상징	무의식 탐색 지그재그 신체 동작 먹물 난화 스토리텔링
	4	짐 가방을 싸던 그 날	자기 인식 타인 이해	내면 정서 표출 감정 카드 퀴즈 이주 시점 정서 다루기
	5	안아주는 집	자기 인식 타인 이해	DAS 그림 검사 보호 요인 탐색
변 화	6	내가 건넌 징검다리	친밀성 · 정서 조절 정체성 확립 내적 자원 탐색	신문지 서바이벌 내적 자원 탐색과 지지



단계	회기	주제	목표	활동 내용	
중 기	변 화	7 나무를 심자	친밀성 · 정서 조절	자기 수용 상호작용	나무와 바람 신체 동작 나의 나무 꾸미기 탄력밴드 신체 동작 정서 반응 이미지 작업
		8 Don't worry we are here			
	성 장	9 따로 또 같이	주체성 · 돌봄 지지	상호인정 상호관계	풍선 전달 신체 동작 점토 만들기와 만다라 애착 돌봄 작업 석고 손 트로피
		10 어느 멋진 날			
후 기	통 합	11 내가 만날 너, 네가 만날 나	미래 확신성 · 목표 지향성 · 공감	현실 수용과 자율적 역량 발휘	신호등 스티커 신체 동작 나의 미래 모습
		12 Go go into the World		경험과 통찰의 미래목표 설정	인간사슬 풀기 신체 동작 마을만들기 협동작업

3.2 프로그램 회기별 계획안 예시

이 연구의 프로그램 회기별 계획안 예시를 초기, 중기, 후기단계에 따라 다음 <표 IV- 9>, <표 IV- 10>, <표 IV- 1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V- 9> 프로그램 초기 단계 1회기 계획안

회기	01/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 목표	프로그램 소개, 흥미 유발과 라포 형성					
주제	나의 이름은					
준비물	호흡 이완에 필요한 땀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목걸이 이름표, 다양한 색상의 털실 뭉치, 채색 도구(색연필, 사인펜, 파스텔 등), 연구 참여동의서					
구성/시간 (100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사를 치는 신체 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연구자와 보조 관찰자, 통역사를 소개한다. · 활동 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구 참여동의서를 작성한다. · 공간 양쪽에서 마주 선 집단원이 걷기 활동을 통해 신체감각을 인식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프로그램 12회기 동안 불리고 싶은 자신의 별칭을 짓고 꾸민다. · 다양한 색상의 털실을 가지고 자신의 별칭을 소개한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집단원에게 털실을 전달하여 별칭을 들으며 서로를 알아간다. · 모두가 털실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며 집단의 동질감을 경험하도록 한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표 IV- 10> 프로그램 중기 단계 3회기 계획안

회기	03/12	일시	20 년	월	일	요일
활동 목표	내면 무의식 탐색					
주제	옛날 옛적에					
준비물	땃샤, 먹물과 먹물 붓, 채색 도구, 다양한 색상의 도화지, 풀, 가위					
구성/시간 (100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땃샤를 치는 신체 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연구참여자가 직선 걷기, 곡선 걷기, 지그재그 걷기 등 서로 다른 움직임 규칙으로 공간을 이동한다. · 타인과 마주침에서 내면의 정서를 경험하고 소통방식을 탐색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을 이용하여 먹물로 자유롭게 난화를 그린다. · 난화에서 이미지를 찾아 그림으로 구성한다. · 난화 이미지로 구성된 그림을 보고 즉흥 이야기를 만든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화 이야기 나눔을 통해 나와 타인을 인식하고 의식 무의식을 탐색하며 나와 타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돕는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표 IV- 11> 프로그램 후기 단계 11회기 계획안

회기	11/12	일시	20 년	월	일	요일
활동 목표	현실 수용과 자율적 역량 발휘					
주제	내가 만날 너, 네가 만날 나					
준비물	땃사, 다양한 모양의 신체 모형본, 도화지, 채색 도구, 풀, 가위, 글루건.					
구성/시간 (100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땃사를 치는 신체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다양한 색상의 칼라 시트를 몸에 붙이고 치료사의 지시에 맞춰 같은 색상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통해 활력 있는 상호작용 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신체본 중 자신을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며 신체본을 꾸민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 모형으로 만든 나와 집단원 서로의 모습을 보며 나의 내적·외적 역량을 인식하고 통합하도록 지지한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V.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

V 장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을 예술창작 작품과 자기 서사로 제시하고 단계별 변화과정을 기술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시간과 요일은 연구참여자의 학과 수업 일정과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로 너무 좁지 않고 조용한 독립된 공간이다. 교실 전면에 프로그램의 제목과 주제를 적은 러시아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회기별 목표에 따라 책상 배열을 달리하고, 매회기 다양한 종류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여 활동과 나눔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신체 동작 활동과 예술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별된 공간으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실행은 동일 시간, 동일 장소로 정하여 변동이 없고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 안정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다. 프로그램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참여 관찰자 및 통역사를 소개하여 프로그램 진행 시 연구참여자들이 가질 의구심을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 활동 녹화영상 및 작품 사진 등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 추후 연구 활동의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와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설명하고 기본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동의서 작성 후 연구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회기의 프로그램 진행은 준비 활동, 본 활동, 나눔과 마무리 순으로 이루어졌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신체활동과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의 위축되고 경계하거나 회피하던 태도는 점차 상호소통과 이해로 확장하였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하며 서로를 주체적인 일원으로 수용하고 지지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나타난 단계별 변화과정은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 1> 연구참여자의 프로그램 단계별 변화과정


구분	단계	단계별 특성
연구참여자 A	초기	• 예술 매체 활용에 익숙함, 집단의 상호작용은 거부하고 개인 작업 선호
	중기	• 새로운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 경험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 집단활동을 통한 애착 경험 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상호관계 실천
	후기	• 집단원과 주체적인 소통과 타자 지향적 돌봄의 상호관계 확장
연구참여자 B	초기	• 우울 및 무기력한 정서에도 매체를 통한 자기표현에 관심
	중기	•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애착 상실을 애도하며 감정의 정확을 경험 • 집단의 지지 환경에서 내적 역량 인식과 자기표현 및 긍정 정서 향상
	후기	• 집단원과의 소통에서 명료한 자기주장과 존중의 상호관계를 시도
연구참여자 C	초기	• 긴장이 높고 타인의 욕구에 순응하고자 행동하는 위축된 모습
	중기	• 내면 욕구 탐색과 표현 후 상호관계에 자신감과 친밀감 표현 • 타자와 상호관계에 신뢰감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자아상 형성
	후기	• 자기 이해와 정체성을 형성 후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목표를 설정
연구참여자 D	초기	• 집단원과 거리를 두거나 특정인과만 소통하는 등 상호관계에 방어적
	중기	• 긍정 정서 향상에 따라 자발적 동기를 발견한 후 상호작용 범위 확장 • 주체성 인식을 통해 미래 성장 욕구와 신뢰감 회복
	후기	• 나와 타자를 상호 인정하며 자신의 미래 계획 설정에 구체화
연구참여자 E	초기	• 인정욕구와 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하나 자아정체성 정립의 어려움
	중기	• 과장된 자기표현은 집단 상호활동 후 안정적인 자기 인식의 변화 • 집단원과 상호관계에서 친밀감과 유대감 증진
	후기	• 자아정체성의 통합은 나와 타자와의 동등한 상호관계와 소통 확장
연구참여자 F	초기	• 또래 상호작용에 무관심하고 개인 작업에 집중
	중기	• 경제활동의 우울감과 학업 걱정 등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갈등 • 내면 정서의 표출과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새롭게 인식
	후기	• 유대감과 친밀감을 경험하고 청소년기 활력 회복과 미래 희망 고취
연구참여자 G	초기	• 낯선 환경의 불안감으로 강한 반항과 경계심 표출
	중기	• 또래 관계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욕구 추구 • 집단의 규칙보다 개인 역량에 의존하며 상호관계 거부
	후기	• 집단원과의 돌봄과 지지 경험을 통해 상호연대의 소속감과 유대감 경험

1. 연구참여자 A: 돌봄을 나누며 성장을 꿈꾸는 ‘굴민우’

1.1. 초기 단계

연구참여자 A는 초기 단계에 다양한 예술 매체를 다루는 것에 자신감을 보이며 반응하는 반면, 진지한 자기 탐색에는 소극적이고 내면의 좌절된 욕구를 숨기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A의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 2>와 같다.

<표 V- 2> A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	굴민우		나는 굴미나, 굴민우라고 지을래요. 나는 굴을 좋아해요. 내 이름과 발음이 비슷하기도 해요.
2	Memory		나에게 좋은 기억은 없고, 가지고 싶은 기억도 없어요.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 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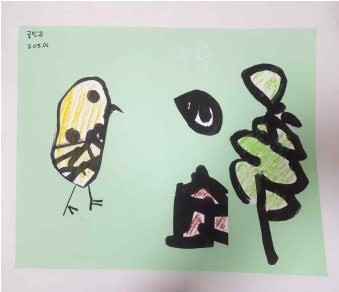
A는 의욕 없는 태도와 졸린 듯한 눈빛 등 무기력한 태도로 프로그램 참여를 망설이다 참여를 결정하였다. A의 참여 동기는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은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도전할 동기가 되었다. A는 “빌딩이 가득한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놀이” 사진과, 굴을 좋아하는 본인을 ‘굴민우’라고 감각적이고 화려하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A는 자신을 상징하는 색으로 망설임 없이 보라색을 선택하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색 콜라주로 자신을 탐색할 때는 집단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자기 인식


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색 콜라주 작업은 잡지를 넘기며 눈에 띄는 색상이나 이미지를 탐색하는 가운데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이다(김병철 외, 2016). 색채심리학에서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색으로 긍정적으로 미적이고 친밀한 느낌이며 부정적인 경우, 불안과 우울감, 최면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김선현, 2009: 31). A는 자신의 콜라주에 ‘Memory’ 라는 이름을 붙이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덮을 새로운 기억을 원하였다. 이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과 좌절을 의미하며 보상적 욕구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A는 프로그램 도중 F에게 “피자가 먹고 싶다, 포도 주스가 마시고 싶다, 배고프다” 등 계속해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모습에서 실제 허기 외에도 내면 정서의 결핍도 예상할 수 있다. 음식을 먹는 행동은 심리적인 의미로 양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면 욕구의 갈등 및 가족과의 이슈에 대한 내적 결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주리아, 2013). 그러나 A는 연구자가 간식을 권하자 정색하고 거절하며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거부하였다.

1.2. 중기 단계

①중기 인식단계에서 A는 이주로 인한 가족 해체와 자신의 미래 성장 욕구 좌절에 대한 부정 정서를 인식하였다. 양육자에 대한 의존과 불신의 양가감정을 지닌 채, 현실에 대한 대면 보다는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며 아프고, 성장이 멈춘 외로운 자아상에 대한 상실을 드러냈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 3>과 같다.

<표 V- 3> A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3	크지만 약한 나무		옛날 옛적에 새가 집을 찾아,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왔더니 집 앞에 예쁜 나무가 있었어요, 새가 눈으로 집을 봤어요. 나무는 너무 커요, 20살 정도. 그렇지만 이 나무는 좀 약한 나무예요, 날씨는 좋지만, 주변에 다른 나무는 없고 한그루만 있어요. 나무를 더 그리고 싶지는 않아요.

회기	제목	작품	서사
4	마법의 집		이 병아리는 다른 병아리와 다른 특별한 병아리예요. 가족을 떠나서 사과나무에 사과를 먹으러 온 거예요. 병아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건 없고, 사과를 먹고 나서 잠자러 가요. 이것으로 만족할 듯해요. 내가 만든 집은 예쁜 집이지만 사람이 들어오면 죽는 마법의 집이에요.

A는 난화에서 자신을 이주로 인해 내면 성장이 멈춘, 크지만 아픈 나무로 묘사하였다. 맑은 날씨의 좋은 환경이나 주위에 숲 없이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라 하였다. 난화는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억압된 정서를 끌어내기 유용한 작업으로 정서와 지각은 서로 연결되어 작용함을 근거로 무의식을 탐색하는 작업이다(공마리아, 1995; 최외선 외, 2007). A는 정체성의 뿌리가 된 가족 및 미술 공부 등 내적 자원을 이주로 인해 상실하고 양육자와의 관계 결핍에 대한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외로움을 홀로 서 있는 나무로 묘사하여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신을 표현하였다. A는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을 하기보다 혼자 떨어져 작업하기를 원하였다. 심각하고 진지해 지기를 꺼려 웃음이나 장난으로 넘기고 아무 문제 없는 듯 행동하다가도 멍하게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집단원과의 대화도 과하게 밝게 행동하다가 의견 대립이 생길 경우, 큰 소리로 자기주장을 고집하거나 적대감을 보이고 연구자가 다가가면 정색하며 표정이 바뀌는 등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정서 조절과 문제해결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회피하며 스스로 고립시켰다.


A는 학업에 대한 고민도 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은 대체로 가능하지만 심도 있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 어려워하였다. A는 “캄캄한 밤바다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 그림”이라며 내면을 탐색하고 “등대가 예뻐서” 라고 말했으나, 잠시 후 “고요한 바다의 배를 안내하기 위해서요.” 라고 작게 말해 안내자에 대한 의존 욕구를 드러냈다. 그림에 나타난 상징을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바다는 모성, 감정, 무의식 등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유, 평온함, 외로움, 혼돈 등 다양한 의미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다는 또한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 등, 사람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비유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등



대와 같은 조명의 경우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계몽, 지식, 신성을 상징한다(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7). 이러한 맥락에서 A가 선택한 “고요한 바다 위의 등대”는 지금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안내자를 원하는 A의 성장에 대한 내면 욕구와 달리 현실에서는 수동적이며 현실 회피적인 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는 대인관계를 탐색하는 작업에서 구름과 꽃이 가득한 그림을 그린 후 “가족을 떠나온 특별한 병아리”가 사과를 먹고 잠자는 것에 만족할 것이라 하였다.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과자집 만들기에서 A는 매우 즐겁게 집단원들과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활기차게 상호작용하고 친밀감을 느끼며 집단원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인식을 전환하였다. 매체를 활용한 만들기 주제는 집단원의 자기개념, 내면 욕구, 갈등 및 가족과의 이슈들이 드러나는 작업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주리아, 2013). A는 평면으로 된 집을 “예쁜 집이지만 사람이 들어오면 죽는 마법의 집”이라 설명하며 이주 후 현재 환경과 가족이 보호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가적인 내면 정서를 표현하였다.

②중기 변화단계는 내면의 좌절된 정서 및 관계에 대한 욕구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새로운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 과정을 통해 회피보다는 현실에 도전하고 문제 해결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감정 기복이나 과장된 외모 표현 등 심리적 결핍을 채우려는 보상적 과정도 나타났으나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고 조절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경험하는 변화가 있었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 4>와 같다.

<표 V- 4> A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6	보라 물고기		나는 잘 잊어버리는 약점이 있어요. 아하~잘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적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뭐 새로 시작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기	제목	작품	서사
7	보라 나무		내 나무는 보라 나무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나는 미술을 잘해요. 그래서 미술을 다시 시작하고 영어학원도 다시 다니고 있어요.
8	가족들과 본 바다		파란 부분은 바다구요, 아래 노란 부분은 모래사장이에요. 옛날에 가족들과 바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기억났어요. 즐거운 기억이었어요.



A는 내적 자원을 탐색작업에서 물고기 인형을 선택하였다. 물고기는 자유로움과 풍요, 만족감 등을 나타내는데, 심리치료에 활용되는 인형 상징물의 특징은 추상적이고 비언어적인 부분을 언어와 의미 부분에서 구체화하고 확장해 주므로 인형에 투사된 자아상을 통해 자기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최광현, 2014). A는 인형 양면에 마법사의 모자와 음표, 보라색 줄무늬로 각각 표현하여 환경에 대한 적응과 회피에 대한 갈등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A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눈썹 문신과 짙은 아이라인, 인조 눈썹 등 외모가 더 과감하고 화려해졌다. 이는 심리적 발달과정에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내면의 정서를 숨기고자 과감하고 화려하게 외모를 꾸미는 자기방어적인 퇴행이라 할 수 있다(최은우, 최선남, 2014). 즉, 자기 성장 과정에서 내면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심리 반응으로 볼 수 있다(Ernsberger, 1976). 이후 A는 타자와 상호작용을 경계하고 회피하던 모습이 변화하여 단점이 장점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인식변화로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쳐 물을 건너는 제스처의 주체적인 실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A는 분홍과 보라색으로 나의 나무를 만들었다. 심리치료에서 나무는 자아상을 표현하며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란 나무는 개인의 성격이나

삶의 내용을 표현하고 전기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감정을 반영하기도 한다(김선현, 2016). A는 나무줄기가 혈관같이 열매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과일이 가득 나무를 완성하였다. 과일은 애정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삶의 성취를 바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옌원화, 2014). 이는 부정적이고 의존적인 A가 자기 삶에 성취를 바라며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대인관계 변화에도 나타났다. A는 흔들리는 탄력밴드에서 서로 의지하며 즐겁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태아 자세로 스스로 안정감을 취하였다. A는 이어지는 이미지화 작업에서 모국에서 어린 시절 즐거웠던 추억을 회상하며 가족과의 교정적 치유 경험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고 대인관계 신뢰감과 유대감을 경험하였다.

③중기 성장단계에서 A는 집단원과의 상징적인 돌봄과 애착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집단원과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상호관계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 5>와 같다.

<표 V- 5> A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빛나는 예쁜 별		<C가 A의 찌그러진 그릇을 매만지고 펴는 상호 보완을 통해 만듦한 그릇에 별이 담긴 작품으로 완성했다>.
			내 별이 들어있던 그릇이 찌그러진 모양이었는데 동그랗게 변했어요. 그릇이 예쁘게 변해서 별이 더 빛나 보여요. 예쁜 별이에요.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0	그림을 그리는 손		나는 웹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아요. 내 석고 손 트로피는 그림을 그리는 손 모습이에요.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런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친절하고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A는 사진 매체를 통해 진지하게 자기 탐색하였다. 프로그램 초반, “예뻐서”, “그냥” 이라던 태도와 달리 “여성은 남성의 권위에 붙잡혀 있지 말고 더 강해져야 해요.” 라며 큰 파도 위에서 서 있는 여성을 선택하여 강한 여성상에 대한 동경을 드러냈다. 점토를 통해 자아상을 탐색하였다. 점토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매체로 자기 주도, 자기 조절, 자신감, 자기효능감 등 성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이 만든 점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다시 뭉쳐 새롭게 작업할 수 있어 패배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 도전하는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김병철 외, 2016). 그러나 A가 점토로 만든 자아상은 찌그러지고 납작한 그릇 안의 별로 불만족한 환경 속에서 내적 소망이 좌절되었음을 표현하였다. A는 자기 작업을 끝낸 후, C가 만든 사람이 없는 농구대를 보고 사람을 만들어 농구를 즐기도록 작업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는 A가 타인 작품의 결핍을 보완하며 자기 내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신 C가 A의 찌그러진 그릇을 매만지고 펴는 상호 보완을 통해 반듯한 그릇에 별이 담긴 작품으로 완성 시키며 상호주관적인 관계 경험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따듯한 물과 로션을 이용한 신체접촉은 집단원들에게 애착의 돌봄을 경험하게 하였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신체활동은 나쁜 아니라 타인과 집단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성을 향상하고 활력을 증대하며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다(한유진 외, 2022). A는 연구자와의 작업에서 상징적인 돌봄을 경험하고 애착 욕구를 충족하자 낯선 환경에 정색하거나 경계하던 초반 회기와는 달리, 집단원과 상호작용하며 돌봄의 관계를 실천하였다. 돌봄의 상호작용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술창작 작업은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심리치료에 필요한 긍정적인

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서현, 2007). A와 F가 짝을 이루어 석고 손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내내 깔깔 웃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였고, 늦게 도착한 D와의 작업을 자청하여 상호 돌봄의 관계를 이루었다. A는 쿡을 까서 D에게 먹여주고 함께 작업하며 내면의 돌봄 욕구, 상호작용의 관계욕구 등을 자유롭게 표출하였다. 이후 자신의 석고 손 트로피를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소통과 애착 욕구를 드러내고 자신의 미술 재능과 실력을 스스로 인정하며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였다.

1.3. 후기 단계

후기 통합단계에서 A는 자신의 내적 역량을 깨닫게 된 후, 집단원들과 상호소통하고 집단원들에게 돌봄을 실천하며 타자와 상호관계를 이루었다. 이밖에 모국에서 성취한 자신의 내적 자원을 재확인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자 현재 자기 삶의 영역에서도 지속하여 역량을 발달시켜 나갔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6>과 같다.

<표 V- 6> A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1	그래픽 디자이너		할아버지는 화가였고 나도 카작에서 할아버지에게 미술을 배웠어요. 나는 미술에 소질이 있어요. 지금 영어학원도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요.
12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곳		친구들과 과자로 집 만들기를 할 때 너무 즐거웠고 과자도 먹고 웃고 만들고 떠들고 함께 하는 작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나는 토픽 시험을 보고 미술을 다시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픽 디자인도 공부하고 싶어요.





A는 신체 모형작업에서 주체적인 자아상을 구현하였다. 신체 본을 활용한 작업은 내담자가 자기 내면의 안정감과 자아개념을 확립하여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깨닫고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차소현, 이에스더, 2020). A는 신체 모형을 선명한 눈매의 얼굴, 단정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재확인하여 한국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자, 미술과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다. 졸업 후 목표도 역량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선택하였다. 초반에 집단의 상호관계를 피해 고립되어 혼자 머물던 것과 달리 자기 인식과 내적 역량을 깨닫게 되자 주도적으로 늦거나 결석하는 집단원을 챙기고, 통역을 자처하며 집단의 상호소통을 돕는 조력자로 자리매김하였다. A는 마을 꾸미기 활동에서는 꽃과 하트가 많은 환경을 꾸며 사람들이 함께 모인 화사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또래 집단에 소속되어 인정받고 우정을 나누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집단에서 건강한 신체 동작 활동을 통해 집단원과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은 발달기 청소년이 상호작용하며 유대감과 응집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김승일, 2009). A는 회기 초반 자신을 안내해 줄 등대 불빛을 의존하던 모습, 아프고 외로운 고립된 나무로 자기 인식하던 것은 타자와 상호작용하며 성장하였다. 회기를 마치며, A를 안내주자 연구자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서 있다가 밝은 얼굴로 작별 인사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2. 연구참여자 B: 과거와 미래 중간에서 나를 찾는 ‘배트맨’

2.1. 초기 단계

초기 탐색단계에서 연구참여자 B는 프로그램 참여시 우울하고 무기력한 정서를 보인 것과 달리, 비언어적 예술 매체에서 모터사이클 사진으로 과거 역동적이던 자신을 표현하는 대비되는 행동을 보였다. B는 초기 단계에서 내면의 억압된 정서로 자기 탐색을 거부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 7>과 같다.

<표 V- 7> B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	배트맨		우즈베키스탄에서 모터사이클을 탔었어요. 배트맨은 밤에는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구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긴 했지만 기대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고 느끼는 감정도 다 없어요. 나는 한국말 몰라요.
2	갱스터		토마스라는 배우인데 남자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고 붙였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B는 검은색 후드티의 캐주얼 차림으로 조용한 남학생이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서 어색함을 숨기는 듯 낄낄거리고 웃거나 딴짓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 매체를 통한 자기 탐색 시 바닷속 다이빙과 모터사이클 사진을 가지고 망설이다가 모터사이클 사진을 최종 선택하였다. 바다는 대체로 모성, 감정, 무의식을 상징하며 생명의 원천이자 죽음을 상징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모터사이클은 마



초의 상징으로 남성성을 상징하며, 질주, 위태함, 반항, 자유 속도, 청소년 등을 의미한다(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7). B는 집단에서 자신을 개방하기는 원치 않으나 배트카를 타고 다니는 배트맨의 모습과 고향에서 모터사이클을 타던 자신을 동일시하며 상실한 자아에 대한 우울감을 느끼며 보상받고자 하였다. B는 과거 담임의 권유로 학교 상담 경험이 있으나 본인의 강력한 거부로 조기 종결한 이후 상담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황을 회피하는 등 타인과의 소통을 거부하였다. 색 콜라주 작업에서는 원하는 회색이 없다면 불만을 표시하며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콜라주는 작품을 만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개방시켜 심상을 발견하도록 한다(정현희, 2006). B는 콜라주 소개에서 배우와 갱스터, 스파이더맨, 팬더 중 자신을 배우로 칭하며 주변에서 자신을 보고 웃지만, 친구라고 생각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또래 관계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2. 중기 단계

①중기 인식단계에서 B는 자기 개방을 거부하며 내면의 억압된 정서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기 탐색에 몰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또래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 8>과 같다.

<표 V-8> B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3	박테리아 피자		옛날 옛적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피자를 먹고 싶었고 큰 피자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나 혼자 다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피자를 먹어서 기뻐어요.

회기	제목	작품	서사
4	감싸인 마음		<노란 감정 뭉치에 하트 스티커를 가득 붙이고 파란 보자기에 감싸 매듭을 여러 번 단단히 묶은 후, 두 손으로 감정 뭉치를 감싸고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가> 그냥 한 거예요.
5	카자흐스탄 전통집		작은 집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집은 카자흐스탄의 전통 집이에요.

B는 G와 장난하거나 발로 차는 거친 신체접촉이 많으며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핑계로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않으려 하였다. B는 난화의 무의식 탐색에서 노란색 큰 원형을 미로처럼 꾸몄다. 난화의 목표는 난화를 그려감에 따라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내적 변화를 통해 참여자의 내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공마리아, 2006). B는 원형이미지를 커다란 피자라고 하며 혼자 모두 먹겠다고 하였는데, 상징 표현에서 아동·청소년이 그린 음식은 먹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B는 무의식 탐색에서 자아상의 혼란과 내적 결핍 충족 욕구를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후 소감도 ‘없음’이라고 소통을 거부하였다. B는 과거 고향의 경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자기 개방은 소극적이다. 반면, 매회기, 결석이나 지각없이 참여하여 또래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엿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 형성은 사회성 발달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예술과 신체 동작을 활용한 집단표현예술치료는 청소년이 자신과 타자를 알아가는 인지 확장, 감각 전달과 운동 매체로의 도전, 동일시 및 또래와의 협동과 나눔, 논리적 사고 증진 등, 간접경험을 통해 현실 감각을 증대하여 청소년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한유진 외, 2022). 이러한 관점에서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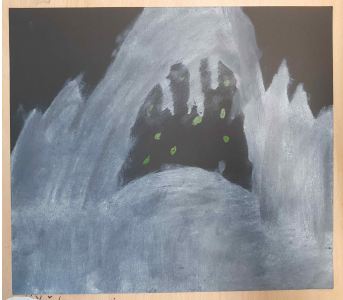
단표현예술치료가 B의 주체적인 또래 상호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B는 감정을 탐색하고 표출하기 위해 신문지를 찢고 뭉치며 내면의 억압된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고 수용하는 예술치료 작업에서 큰 감정 뭉치를 만들었다. B는 감정 뭉치를 단단하게 고정하고자 테이프를 돌려 감고 입으로 뜯어 붙이며 작업에 몰입하였다. 노랑과 분홍색을 주로 사용하고 스티커로 과도하게 접착하였다. 이후 노랑 감정 뭉치를 감쌀 보자기를 신중하게 탐색한 후 파란색을 골라 반복하여 매듭짓고 단단히 고정하는 모습에서 연결 욕구를 반복하여 드러냈다. 노랑은 밝음, 어린이, 새 생명과 연관이 있는 색상인 동시에 많은 문화에서 질투, 소심하고 비겁한 겁쟁이를 상징하기도 한다. 파랑은 평온한 분위기의 색으로 고요함, 안정성 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울, 슬픔, 바다, 그리움 등을 의미하는 색이다(김선현, 2009). B는 감정 보따리 접착을 반복하고 손으로 감싼 후 생각에 잠기는 행동에서 현실과 과거에 대한 양가적으로 대립하는 정서 및 양육자와의 애착 외상을 예상할 수 있다.

B는 내면의 억압된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고 담아주는 활동을 경험한 후 ‘눈이 덮인 비석 사진’을 선택하며 억압된 내면 정서에 관한 자기표현이 증가하였다. G는 B의 행동을 “자살 생각처럼 보인다”라고 사진 교체를 제안하였으나 B는 “내가,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선생님에게 데려오면 어떻게 고칠 거예요?”라고 질문하며 내면의 진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집단원들은 비밀이 노출된 것처럼 당황하였으나 연구자는 B의 자살 관련 질문을 은폐하거나 금기하지 않고 집단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청소년이 자살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경우, 치료자가 수용과 변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내담자의 문제를 단정 짓지 않는 태도가 내담자의 자살 행동을 감소시킨다(Shearin & Linehan, 1992). B는 궁금증을 개방한 후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이 편안해지고 신체 이완 호흡 활동 중, 자신은 16세부터 복식호흡을 해 보았다고 자랑하였다. B는 관계 스트레스 탐색에서 남자와 고양이가 긴장한 모습을 통해 대인관계에 긴장감을 드러냈고 이를 위한 안전한 집으로 크기가 작고 지붕에 눈이 쌓인 집을 만들었다. 집은 모태이자 외부 세계에서 분리된 영역을 의미하며 안전한 공간, 가족, 가정, 휴식처 등을 상징한다(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7). “눈 쌓인 집 안에 누군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 결핍과 긴장감을 드러냈다. B는 자살 관련 궁금증과 대인관계의 긴장감으로 내면 갈등에 몰두하여 타인과 상호작용에 걸림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중기 변화단계에서 B는 고향의 추억을 집단원과 함께 나누며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였다. 자신의 내적 자원을 탐색하고 지지받으며 집단원들과 공유된 이해를 나누며 긍정 정서를 경험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9>와 같다.

<표 V-9> B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6	가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카자흐스탄에서 먹은 러시아식 말고기 소시지에요 가짜라고 해요. 가짜, 가짜. 나는 이 요리도 만들 수 있어요.
7	음식 나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예요. 나무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잘 몰라요. 친구를 사귀는 나무가 되는 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8	동굴 속 반딧불		기분 좋았어요. 옛날에 내가 모터사이클 타던 기억이 났어요. 하얀 동굴 속에 노란 반딧불이 빛나고 있어요. 고향에서 반딧불을 본 적은 없지만 반짝이는 반딧불을 그렸어요. 밴드를 뒤집어쓰고 누워있을 때 동굴 안에서 반딧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침착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B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캐릭터 만들기를 위한 봉제 인형을 차지하려고 신속하게 움직였고 원하는 말 그림을 꼼꼼하게 채색하였다. 작품 소개에서, 한국어로 말하기를 회피하던 과거와 달리 연구자가 알아듣도록 한국어로 말하려 노력하였다. B에게 연구자는 고향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청자이자 객체가 아닌 주체적인 타자로 상호소통을 하였다. B는 물 위의 징검다리 중간 즈음 집단원

들 인형이 모여있는 곳에 말 인형을 놓아 함께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연출하며 또래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였다. B는 많은 양의 아이클레이를 반죽하여 옹이가 있는 기둥에 많은 열매가 가득 달린 나의 나무를 만들었다. 상징분석에서 나무의 옹이는 성장 과정의 상처로 인해 회복되지 못하고 아파함을 나타낼 수 있다(엔원화, 2014). B는 나무에 아이클레이를 실처럼 늘어뜨리거나 단단히 붙인 조개껍데기, 반복하여 묶은 매듭, 강하게 두른 테이프, 많은 양의 스티커 등 지속해서 접착하고 연결하려 시도하였다. 테이프를 들들 감은 감정 뭉치, 보자기의 매듭을 반복하여 여미고 묶는 행동 등은 애착 외상에 따른 접촉과 연결 욕구의 보상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Winnicott, 1971). B는 탄력밴드 활동의 흔들림에서 고향에서 타던 모터사이클의 역동성을 재경험하고 난 후, 킁킁한 탄력밴드 속에서 태아 자세를 취한 채 동굴 속 반딧불로 고립과 희망의 양가감정을 느끼고 모성과 고향상실을 애도하며 감정을 정화하였다. 이는 표현예술치료에서 언어표현이 어려운 트라우마나 무의식을 표현하며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정성미, 2015).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감각자극과 후속되는 이미지화 작업의 창조적 연결은 B 내면의 창조성을 깨우고 이는 곧 치유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B는 내적 안정감을 드러내며 자아정체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였다.

③중기 성장단계에서 B는 집단원과 자연스러운 상호 소통하며 협동작업을 통한 돌봄과 지지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며 자기 조절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성장을 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0>과 같다.

<표 V-10> B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심장 포털 (전)		<E가 B의 프레임을 선택하여 네 모서리를 말끔하게 다듬어 주었고 F가 프레임 사방에 징을 붙여 입체감을 주고 하트 장식을 단단히 달아주었다.>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심장 포털 (후)		네모는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 현실과 다른 세계일 수도 있어요. 장식이 생겨서 액자 같아요.
10	좋은 손		제일 높은 트로피를 세우고 싶어요. 트로피 이름은 '좋은 손'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B는 점토 작업 전, 빨간 풍선을 입에 물고 들판에 누워있는 사진으로 평화로운 정서를 나타냈다. 점토 작업은 이미지에 투사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긍정적인 자기표현과 달리 B는 두 손에 점토를 감싸고 생각에 잠겨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다 회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가운데가 뚫린 프레임을 만들었다. 점토는 만들기를 하는 도중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 작업하며 패배감을 해소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질의 매체이므로 자기 주도, 자기 조절, 자신감, 자기효능감 등 성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김병철 외, 2016). B가 머뭇거리며 자신을 표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보아 완벽하게 구현된 자아에 대한 내적 기대감이 높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점토 작업은 집단원이 서로의 작품을 지지하고 보완하는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E가 B의 프레임을 선택하여 네 모서리를 말끔하게 다듬어 주었고 F가 프레임 사방에 징과 하트 장식을 단단하게 달아주어 입체감을 주었다. 이는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집단원들이 상호 보완하고 지지하며 서로를 수용하는 가운데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됨을 알 수 있다.


B는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는 석고 손 트로피 작업에서 따뜻한 물과 로션을 발라


애착 관계의 돌봄을 경험한 후 손등까지 석고 붕대로 덮어 작업이 끝났음에서 더 붙이고 싶다고 강하게 요청하며 작업을 반복하였다. 석고 작업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남아있는 자신을 상징하는 손 모양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삶의 연속성을 경험하는 의미가 있다(김병철 외, 2016). B는 석고붕대의 압박감을 좋아하며, 손을 뺄 수 없을 때까지 석고로 감싸면서도 이를 걱정하는 집단원들에게 “우루루루~ 하면서 뽐으면 돼” 라고 유머러스하게 대답하였다. 이 같은 의외의 반응에 집단원들은 모두 까르르 웃으며 분위기가 유쾌해졌다. B는 따뜻한 스킨십과 석고 붕대의 압박이 주는 안정감을 통해 정체성 인식과 내적인 공허감을 채우자 집단원들 사이에서 자기 존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우울하고 소극적인 태도 대신 유쾌하고 밝게 반응하였다. 기분이 좋아진 B는 흥얼흥얼 노래하며 간식으로 준비된 꿀을 까서 두 손에 담아 집단원들에게 다가가 “같이 먹을래?” 라고 친밀감을 표현함으로써 주체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타자와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로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2.3. 후기 단계

후기 통합단계에서 B는 행동과 자기주장이 명료해지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집단원들과의 대화에서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며 상호관계를 시도하였다. 이밖에 과거지향의 생각에서 나아가 미래 희망을 계획하는 변화를 보이며 자기 삶을 통합해 나갔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1>과 같다.

<표 V-11> B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1	멕시코 히피		이 사람은 멕시코에 사는 히피예요. 길고 곱슬한 머리고 꽃무늬 반바지를 입고 노래도 부르고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2	농촌과 도시		<p>농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도시에 차도 있는 곳에서 살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 마침내 내 작품의 첫째가 되었어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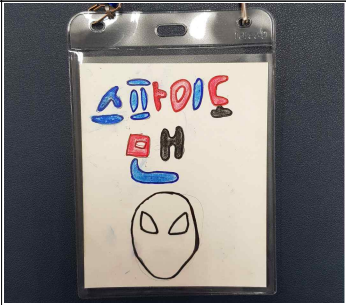

B는 미래 자아상을 만들며 행동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G와 B는 평소 험한 말로 놀리거나 말없이 노려보는 일부 집단원의 놀림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하던 것과 달리 G와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며 의사를 조율하였다. B는 늘 양보하던 태도를 전환하여 자기 결정을 실천한 후 미래 자아상을 만들 때 화려한 옷차림에 노란 머리를 하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얻고자 자신의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기주장을 실천하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박아청, 1996). 마을 꾸미기 협동작업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 숲, 오른편은 높은 빌딩과 자동차가 있는 도시로 꾸몄다. 그림분석에서 공간의 왼쪽은 자의식과 내향적, 과거로의 퇴행이나 공상적 경향을 의미하고 오른쪽은 미래지향적, 남성적인 면을 상징한다(김선현, 2013). B는 고향을 향한 과거지향의 정서를 염소가 있는 숲으로, 미래지향을 빌딩 숲으로 묘사하며 통합의 과정에 표현했다. B는 말 인형을 만들며 고향을 추억했던 것과 보자기에 감싼 감정 문치에 의미를 두었고 연구자 및 집단원들과 애착과 돌봄의 상호관계 경험이 인상 깊었음을 말하며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초기 가정의 교정적 체험이라는 치유과정을 통해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3. 연구참여자 C: 자신을 발견하고 시선에서 자유로운 ‘스파이도맨’

3.1. 초기 단계

초기 탐색단계에서 연구참여자 C는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며 자신 보다 타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순응하며 자신을 숨기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2>와 같다.

<표 V-12> C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	스파이도맨		어릴 때 내가 좋아하던 스파이도맨으로 별명을 짓고 싶어요. 글씨를 잘못 썼지만, 그냥 쓸게요.
2	Frame Tamer		나의 색은 흰색이나 검은색이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색이 잘 없고 이 사진에는 하얀색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잡지 사진 중에서 흰색 그림이 보이는 대로 골랐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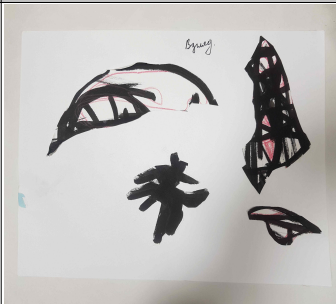

C는 보통 키에 다소 마른 체구로 눈빛이 예리하고 조용한 남학생이다. 말없이 눈으로 집단의 분위기를 살피며 긴장한 듯 눈치를 보았다.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으로 넓은 하늘을 배경으로 점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고 하였다. C는 자신감은 적으나 회기를 마친 후 연구자를 도와 교실을 정리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별칭 짓기에서 C의 가면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색 콜라주 작업에서 C는 자신의 색을 선택하지 못해 망설였다.

집단원들은 이전에 표현예술치료 등 비언어적 매체를 활용한 심리치료를 경험한 적이 없어 C는 통역사의 자세한 설명함에도 예술창작 작업을 어려워하였다. C는 집단원들 앞에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어색해하며 “제목이 없어요” 혹은 “그냥 작업한 거예요” 등,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였다. 인간은 마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된다(Fried, J., et al., 2009). C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없을 때는 연구자가 하는 교실 정리를 돕지만 다른 참여자들이 있을 때는 상호작용과 대담을 회피하고 회기를 마친 후 “나는 힘들어요.” 라며 지친 모습을 보였다.

3.2. 중기 단계

①중기 인식단계에 C는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무의식을 탐색하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C는 추상적인 개념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타자의 상호작용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중기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3>과 같다.

<표 V-13> C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3	화난 눈		옛날 옛적에 눈이 눈을 보는데 거미가 나타났어요. 둘 다 화가 난 눈이고 서로 싫어하는 눈이에요. 계속 싫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대로 둘 거예요. <침묵> 나를 쳐다보는 눈 중에 화가 난 눈은 없고 나도 화가 난 눈이 없어요.
4	내 감정		미술 재료로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연결하는 건 옛날에 안 해 본 거라 어려웠어요. 포기할 생각도 생각했지만 뭔가 만들면서 감정을 안는 게 재밌고 더 해보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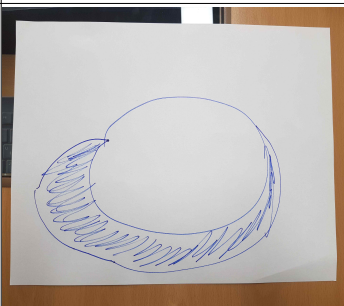
회기	제목	작품	서사
5	부모님과 사는 집		비즈니스맨과 고양이의 긴장한 모습이 같아요→작은 집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집은 카자흐스탄의 전통 집이에요.

C는 무의식을 탐색하는 난화 작업에서 추상적인 개념 이해가 어려운 까닭에 또래 관계에서 자신 표현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C는 이미지에 투사되는 무의식 탐색과 통찰이 쉽지 않았으나 표현을 시도하였다. C는 난화에서 찾은 ‘눈, 거미, 칼’ 이미지로 즉흥 이야기를 만들 때, “자신을 싫어하고 화가 난 타인의 눈”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했다. C는 무의식 탐색을 통한 내면 인식에 적잖이 놀라며 이내, “화가 난 눈은 없어요”라고 반복하며 내면의 분노를 억압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라고 하였다. 상징분석에서 눈은 사람이 내·외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외부환경과 접촉하는 의미로 관계에 대한 욕구를 상징한다(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7). C가 느끼는 화난 눈은 타자 및 타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으로 타자와 상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는 평소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탐색하며 자신의 스트레스가 무엇에서 기인하는 지는 인식하지 못하자 작업을 중단하였다. C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안전한 집을 만들 때, 나지막하고 전원이 개방된 집을 만들었다. 벽은 견고했으나 집의 앞쪽에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었으며 C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C는 위축되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타인과 적절한 경계 설정에 미숙하여 상호관계를 회피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은 자기 역할 책임을 주도성 있게 추구하는 것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박아청, 1996). 자기감정을 탐색해 본 경험이 거의 없던 C는 표현예술치료에서 새로운 자기 인식에 놀라워했고, 초기에 위축되어 눈치 보던 태도가 예술창작을 통한 자기 탐색과 표현에 몰입으로 변화하였다. C는 “중도 포기할 생각도 했다”라며 자신의 긍정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이는 표현예술 매체가 주는 감각자극과 신체활동이 C의 긴장과 위

축을 감소시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자기 인식과 표현 과정에서 자신을 수용하고 집단원들을 알아가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②중기 변화단계에 C는 자기 탐색과 집단원과의 상호작용 등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시에 순응하듯 무조건 작업을 시작하던 과거와 달리 내면의 욕구를 탐색하여 주제적으로 표현하고, 집단원들에게 자유롭게 소개하는 등 자기 가치를 깨닫고 타자와의 상호관계에도 친밀감을 보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4>와 같다.

<표 V-14> C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6	섬세한 토끼		나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끼 같은 면이 있어요. 이 토끼 모양 마음에 들어요. 내가 조심하는 게 많은데 토끼처럼 섬세해서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7	러시아 나무		내가 우즈벡 사람처럼 안 보여서 좋아요. 이 나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고 있고 그걸 느끼는 대로 만든 나무예요. 러시아 나무?
8	무제		나는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밴드 활동은 불안감을 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림도 빨리 끝냈어요. 나는 한국말 할 수 있지만 부끄러워서 잘 안 해요. 나는 평소에 편안하면 말을 잘 하고 표현도 하는데, 불안하면 잘 말하지 않아요.



C는 무지 봉제 인형을 신중하게 살피다가 토끼 인형을 선택하고 생각에 잠겼다. 상징분석에서 토끼는 심리적 보호를 원하는 마음, 민감함, 겁이 많음을 의미한다(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7). 인간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자기감정과 생각을 탐색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점차 자기 의견을 명확히 하며 목표를 성취하려는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기희경, 2022). C는 회기 초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작업을 진행하던 것과 달리 내면 욕구를 인식하고 의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변화를 보였다. C는 토끼 인형에 투사된 자아상을 이해하자 두 번째 징검다리에 인형을 놓고 “이쯤 건너고 있어요” 라며 현재의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고 회기를 마친 후 토끼 인형을 챙겨서 돌아갔다. C는 나의 나무 꾸미기로 자아상을 표현할 때, 깃털 3개를 나무에 꽂아 실제보다 커 보이는 나무를 만들었다. 집단원들은 나무가 러시아 국기 같다고 하자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C는 “러시아?” 하고 결연쩍게 웃었다. 상징은 다의적인 의미가 있으나 C는 자아상을 상징하는 나무를 모국보다 크고 강한 러시아로 표현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을 현재보다 큰 개념으로 지향하는 심리가 반영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C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많은 긍정 변화를 보였으나 흔들리는 탄력밴드 신체활동에서는 다시 긴장하며 위축되었다. 활동 초반에 밴드를 쳐다보기만 할 뿐 합류하기를 꺼렸으나 집단원과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C는 B가 팔을 잡아끄니 조심스럽게 탄력밴드에 들어갔다. C는 그러나 밴드가 머리를 덮지 않게 몸을 짓히며 긴장감 속에서도 정서를 조절하며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 중 하나인 집단응집력은 집단원과 상호작용하여 무조건적 수용과 지지 속에서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끼며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조건이 된다(이임숙, 2016). C는 흔들리는 탄력밴드의 불안정한 위기 상황을 집단원과 함께 극복하는 상징적인 활동에서 신뢰감과 유대감을 경험하며 관계 역량을 발전시켜 나갔다.

③중기 성장단계에서 C는 집단원의 지지와 응원의 상호관계 속에서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전의 부정적 타자 인식이 변화하여 주체적인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5>와 같다.

<표 V-15> C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농구 하는 사람		<A는 C가 만든 농구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농구를 즐기도록 사람을 만들어 작품을 확장하고 D와 실제로 공을 넣어 보기도 하였다>.
			나는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대를 만들었고 친구들이 사람을 만들어 줘서 농구를 하는 모습이 더욱 사실 같아졌어요. 친구들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농구 스포츠를 하게 되었어요.

C는 많은 시선이 식물을 보는 그림으로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며 “식물은 나예요. 많은 얼굴이 나를 보는 것을 표현했어요.” 라며 아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신을 표현했다.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C는 점토로 자신이 좋아하는 농구 골대를 만들었고 이를 본 A는 C가 농구를 즐기도록 사람을 만들어 작품을 확장하고 D와 같이 실제로 공을 넣기도 했다. 표현예술치료는 여러형태의 예술을 통해 깊은 내적 정서로부터 오는 자신을 발견해 가는 과정(Rogers, N., 2007)으로 C의 작품은 활동적으로 변화하였고, A는 C의 작품을 통해 돌봄을 실천하며 공동작업에서 관계 역량을 성장시켜 갔다. C는 집단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하자 주도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며 상호작용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밖에 진로에도 관심을 가지며 대학 입시 진로 설명회에 참석한 후,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 하였다. C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교실에 남아 집단원들과 한참 놀다가 돌아가곤 한다. 친밀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연함과 주체성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박아청, 1996). C는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예술창작과 신체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를 공유하는 가운데 관계 역량을 발달시키며 성장해 나갔다.

3.3. 후기 단계

후기 단계에 C는 감각을 자극하는 예술창작과 돌봄과 지지의 집단역동을 경험하며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을 쫓기는 자가 아닌 도둑을 쫓아내고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의 정체성으로 통합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6>과 같다.

<표 V-16> C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1	도둑 잡으려 가는 스파이도맨		내가 만든 건 스파이더맨인데 옆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도둑을 잡으려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잡아야 해요.
12	학교로 돌아가는 길		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섬세하고 예술성 있고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갈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새롭고 신기해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나의 감정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나를 알게 되니 친구들과 있을 때 내 행동도 알게 되었어요.

C는 프로그램 과정 중 B와 G의 언쟁으로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위축되어 자신도 덩달아 작업을 멈추는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종결을 아쉬워하며 연구자가 다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교에 오기를 바라는 등 환경에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었다. C는 예술창작과 더불어 돌봄과 지지를 경험한 프로그램에 대해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음을 말하며 자기 이해를 통한 자기 수용이 결과적으로 집단원들과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와 내적 안정감을 얻는 미래 확신성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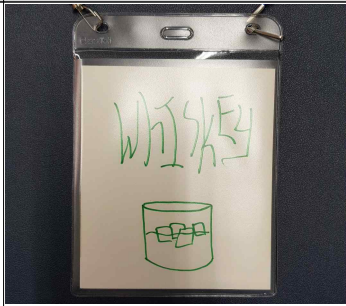

C는 협동작업에서 나무숲에서 도둑을 잡으러 가는 스파이드맨 모형을 꾸몄다. C는 대학 진학에 대한 뜻을 거듭 밝히며 자신의 장래 계획에 대해 또렷하게 목표를 설정하였다. 초기 단계에서 자기 인식이 쉽지 않고 또래 관계에서 위축하던 모습이 변화하여 내면 정서를 탐색하고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타인과 어떻게 상호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C는 프로그램 초반, 집단원의 놀림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웃고 넘기던 태도, 눈치를 보느라 집단의 분위기를 해치는 참여자의 의견에 동조하던 태도, 작품을 설명할 때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못하던 모습은 사라졌으며, 작업 도중 도를 넘는 말장난하는 집단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잠시 앉아 감정을 조절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기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는 만큼 타인 또한 같은 태도를 보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상호주관적인 관계욕구를 표현하였다. C는 자신을 타인에 시선을 피하여 쫓기는 사람이 아닌 도둑을 잡고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의 정체성으로 통합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4. 연구참여자 D: 가족의 꿈을 위해 마음을 감춰둔 ‘위스키’

4.1. 초기 단계

초기 탐색단계에 연구참여자 D는 예의 바른 태도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나, 자기 개방을 꺼리고 특정 집단원과만 소통하는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거리를 두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7>과 같다.

<표 V-17> D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	위스키		나는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별칭은 위스키예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한국에 오니 인터넷이 잘 돼서 좋아요.
2	Rich		나의 색은 흰색이나 검은색이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색이 잘 없고 이 사진에는 하얀색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잡지 사진 중에서 흰색 그림이 보이는 데로 골랐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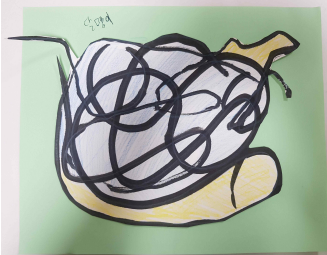

D는 긴 머리에 검정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차림의 여학생으로, 어깨에 맨 가방을 내려놓지 않은 채, 프로그램 내내 활동하며 낯선 환경에 경계하였다. 별칭 짓기를 위한 자기 탐색 대신 한국의 좋은 점으로 대답하며 자기 개방을 위한 답을 피했다. 예의 바른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무표정한 얼굴에 술 냄새를 풍기는 상반된 모습도 보였다. D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엄마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원인 모를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 역기능적인 부모에 의해 상호의존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어른아이의 경우,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내면의 화, 분노나 절망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인간 내면의 창조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Rogers, N., 2007). D는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자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 배경을 설명하며 배려하는 모습과 달리 집단의 특정인과만 인사하는 등 상호관계에 편차를 보였다. 색 콜라주 작업에서 검정을 바탕으로 술, 돈과 남자로 자신을 표현하여 자신의 역할 정체성을 표현했다. D는 콜라주는 “적당한 이미지가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자기 결정을 부인하며 환경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4.2. 중기 단계

①중기 인식단계에 D는 정서와 행동에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시 주어진 일은 수행하지만 자기 탐색과 표현에서 자발적인 동기를 찾지 못하며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함으로써 자기 인식이 약한 모습이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8>과 같다.

<표 V-18> D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3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달팽이		옛날 옛적에 달팽이가 있었어요. 그 달팽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달팽이가 만약 꽃 위에 떨어지면 죽지 않을 것예요. 달팽이가 부드러운 꽃 위에 떨어졌다면 다시 나무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5	모르는 사람의 집		화산과 성이 서로 가까이 있어서 선택하였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집은 모르는 사람의 집이고 빈집이라서 상관없어요. 그 옆에 화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산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D는 조용히 앉아 순응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난화로 무의식을 탐색한 후에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거부하다 자신을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달팽이” 로 묘사하며 “만약 꽃 위에 떨어졌다면 죽지 않을 것이고 다시 나무에 올라가고 싶어요” 라는 소망을 드러내며 좌절된 욕구와 더불어 회복과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표현했다.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 시기에는 주도성이 높은 사람이 자아 성장 욕구가 강하고 새로운 문제에 호기심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찾는다(박아청, 1996). 이러한 성장 욕구에도 불구하고 D는 프로그램에 늦는 경우 타인을 방해할 것을 염려해 아예 불참하는 등 타인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였다. D의 이러한 행동에서 자신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발현할 수 없는 억압된 정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는 비지시적 집단표현예술치료를 경험한 후 회기 초반의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변하여 명사 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이완하는 신체활동에서 “나중에는 우리가 연꽃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리며 의욕 없는 표정으로 학교가 힘들고 지루하다고 불평하였다. 이는 오히려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지 않고 표현한 시도라 할 수 있으며 내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D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폭발하는 화산과 접촉해 있는 성이라 묘사하고도 이 상황을 위험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모르는 사람의 빈집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지나쳤으나 마그마는 계속 흘러내리는 위험한 상황임을 말하였다.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작업에서 D는 나지막한 지붕과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문이 없는 집을 만들었다. 문이 없는 집의 경우 심리적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선현, 2016). 집 밖에 서 있는 사람 모습은 가족이 보호 요인 없는 D의 심리적 결핍을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이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여 내면의 부정 정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수용성을 강화하고 주체성을 발현하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아청, 1996: 기희경, 2022).

②중기 변화단계에 D는 긍정 정서가 증가하고 태도에 적극성을 보이며 자기 탐색에도 성장의 욕구를 보였다. 집단원과의 상호작용 또한 개인에서 전체로 확장되는 변화가 있었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19>와 같다.

<표 V-19> D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7	사쿠라 나무		이 나무는 사쿠라 나무예요 씨앗에는 ‘안 아프고 싶어요’. 라고 썼어요. 나는 사쿠라를 좋아해요. 내가 꽃 피어서 그런 나무 되고 싶어요. 안 아프고 싶어요.

D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등교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늦게 도착할 경우, 전화를 걸어 사정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등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을 존중하고 소속감을 보였고 학교 교사들도 D의 긍정적인 변화에 놀란 반응을 보였다. D는 초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와 거리를 두고 혼자 있던 태도에서 변화하여 간혹 늦게 도착하더라도 집단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였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치료자와 집단은 내담자가 개인의 내적경험을 탐색할 때 동료 혹은 양육자의 역할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가지게 한다(Bowlby, 2009). D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밝게 활기를 띠고, 특정 연구참여자와만 소통하던 태도는 집단원들 전체로 확장하였다. D는 나의 나무로 자아상을 표현하며 내면 욕구를 수용하며 미래 진로와 마음의 건강을 소망하며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달팽이와 달리 자신도 꽃이 피는 나무처럼 되고 싶다는 성장 의지를 이전보다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상징분석에서 꽃은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미적 요소뿐 아니라 인간의 정서를 윤택하게 하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 특히, 벚꽃은 심리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한다(이근매, 아도키 도모코, 2017). D는 비지시적인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비언어적 표현예술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내면 욕구를 탐색하고 인식하게 되자 자발적으로 연구자를 돕고 연구참여자와 상호작용하며 친밀감과 소속감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도 D가 엄마를 도와 가정경제를 일부 감당하느라 아르바이트 등으로 프로그램에 늦을 경우는 D의 간식을 챙겨주고 집단활동을 권유하는 등, 집단의 일원으로 돌보았다. D는 웃음으로 반응하고 대화하며 함께 집단활동을 충분히 못하더라도 늦게라도 참석하여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키워갔다.

③중기 성장단계에 D는 자신의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하며 미래 희망과 성장 욕구를 표현하였다. D는 연구참여자들과 상호 돌봄 관계를 경험하며 친밀감을 경험했고 주체적인 자기 인식과 더불어 타자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0>과 같다.

<표 V-20> D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따뜻해 보이는 난로		<C는 지구본을 지지하는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고 F는 하트 고리를 붙여 난로 모양을 완성하였다>.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쉽지 않아요. 서커스 사진처럼 밖으로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척을 하며 속에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난로가 되었네요. 따뜻해 보여요.
10	정상적인 사람		나는 내 손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만 움직이고 싶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사람하고 같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활동을 해서 기분이 좋아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작업에서 나는 온천처럼 따뜻함을 느꼈어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D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서커스의 고양이와 불붙은 링을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 카드를 선택하여 현재 생활에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D는 순응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와 달리 “우리의 인생이 서커스와 같아요. 예측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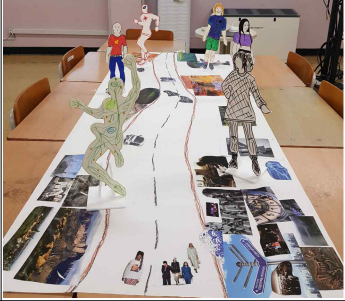
없는 스티일이 있고 모험을 하게 되는 확실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라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말하였고 점토로 지구본을 만들어 자기 생각을 표현하였다. D의 이야기를 들은 C는 지구본을 지지하는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고 F는 하트 고리를 붙여 난로 모양을 완성하였다. 점토 조형 활동은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며 자아와 타인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Lowenfeld, 1957: 김병철 외, 2016 재인용).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관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D는 연구자로부터 물과 로션이라는 상징적인 애착을 경험할 때 어색해했으나 편안하게 돌봄을 받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활력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내 자기 작품을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해 지지 세력이 약함을 드러내며 D의 우울감이 관계 및 애착 욕구의 좌절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다. D는 A가 먹여주는 간식을 먹고 돌봄을 몇 번 사양하며 어색해했으나 반복되는 A의 돌봄을 통해 경험하는 부드러운 분위기의 소통에서 친밀감을 느끼며 상호 돌봄과 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4.3. 후기 단계

후기 통합단계에 D는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자기 마음의 소망도 드러내고 나와 타자를 상호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 계획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후기의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1>과 같다.

<표 V-21> D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1	인터넷 매니저		인터넷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아직 공부 는 잘 모르지만, 대학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를 도와드려서 바쁘지만, 내년엔 TOPIK도 볼 거예요.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2	모두 모여 사는 마을		직업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일은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고 힘든 건 괜찮아요. 우리 가족만 여기 왔어요. 이 마을처럼 가족들, 친척들이 모두 모여 함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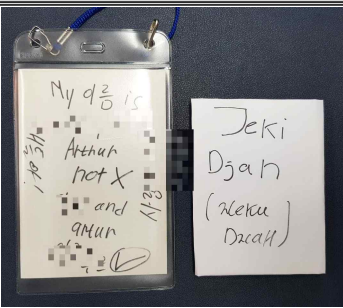

D는 F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또래 관계를 확장해 가고, 회기를 마친 후 자발적으로 교실 정리를 돕는 등 소속감도 향상되었다. D는 B와 G의 언쟁에 대해 “B와 G의 언쟁에 대해 싸우는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라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강하게 농담하는데 외국인들(한국인들)은 예쁘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라며 문화 차이라 설명하고 상황을 이해시키며 연구자가 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동시에 자문화에 대한 주체성과 자긍심을 보였다. D의 장래 희망은 인터넷 매니저가 되는 것이라 하며 현실적인 미래 진로를 계획하는 능동성을 가진 적응적인 변화를 보였다. D의 마을 꾸미기는 많은 사람이 거리를 걷고, 음악회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로 꾸미면서 관계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다. 집단표현예술치료는 D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시도하도록 도와 자기 삶의 형식과 사회의 가치를 찾아 주체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김미란, 1996). D는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망을 터놓으며 고향의 친척들에 대한 그리움을 마을 환경으로 구현하였다. 반면, D는 여전히 한국인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며 경계 짓는 모습에서 고향과 친척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큰 만큼 이주 후 새로운 관계 맺음에 다소 수동적인 모습이 있음을 드러냈다.

5. 연구참여자 E: 마음 나눌 친구를 찾는 ‘제키찬’

5.1. 초기 단계

초기 탐색단계에 연구참여자 E는 연구자에게 다가와 대신 통역을 해주겠다고 친절을 베풀며 관심을 끌었다. E는 별칭을 지으며 다양한 글을 썼으나, 자신을 대표하는 별칭은 결정하지 못했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2>와 같다.

<표 V-22> E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	제키찬		선생님 제가 한국어를 잘하니까 프로그램 할 때 통역을 해줄 테니 걱정 마세요. 죄송하지만 이름표 다시 주실 수 있어요?
2	누가 유럽에 가게 될 사람인가?		나는 화려한 빨강이에요. 가운데 그림은 유럽이에요. 유럽 가고 싶어요. 제목은 누가 유럽에 가게 될 사람인가?로 지을 거예요. 커피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좋아요, 흰색은 있지만, 빨강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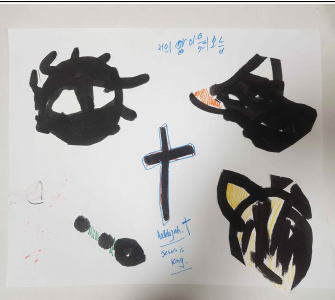


E는 별칭을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소통도 피상적인 모습으로 “수학 문제집을 프로그램 시간 중에 풀겠다” 라며 연구자의 관심을 끌려다 여의치 않자, 이내 태도를 전환하고 빨간색을 골라 콜라주 작업에 몰입하였다. 상징은 무의식의 측면에서 언어와 같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 대신, 넓은 의미를 전달한다(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7). 빨강의 상징은 분노, 에너지, 열정 등을 나타내며 애정 갈구 등의 의미가 있다(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7). E는 작업 중 집단원에게 실수

할 경우, 바로 사과하고 악수를 청하며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지만 어색하고 회기를 마친 후 “나는 지금 피곤해요.” 라며 낮은 관계에서 긴장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5.2. 중기 단계

①중기 인식단계에 E는 타인의 관심에 민감하며 자신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내면 탐색을 통해 불안과 고립된 정서를 가진 자기 내면을 인식하였다. 중기의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3>과 같다.

<표 V-23> E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3	내 마음의 모습		이 세상에 오리랑 병아리랑 애벌레가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는 눈이고 예쁜 동물을 볼 수 있었어요. 필리핀에 가보고 싶어요. 바다가 예뻐서 보고 싶고 사랑을 그리고 싶어요. 내 마음의 모습이에요.
4	눈물방울		이건 눈물방울이에요. 나는 이걸 만들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쉬워야 해요. 여기 한국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은 잘하지 못해요. 러시아에서는 문제없었어요.
5	러시아 전통가옥 이즈바		선생님, 선생님 제 것을 보세요. 집은 위로 굴뚝도 있고 높은 집이에요. 집안에 사람도 있어요. 지붕이 높은 집이에요. 중간에 다락방이 있어요. 보여요?




E는 C와 장난을 치며 집중하지 못하다가 연구자가 자신의 난화에 관심을 보이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애정욕구와 인정욕구를 보였다. 자신의 난화를 C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예술 매체가 표현하는 느낌에 호기심을 보였다. “난화를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하며 자기 작품에 애착을 드러냈다. 표현예술치료가 포괄하는 다양한 의미 중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이다(McNiff, 2017). 개인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깨닫는 것이 창조적인 표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오영애, 최명선, 2019). E는 십자가, 달팽이, 눈, 애벌레, 오리, 병아리 등 비교적 약하고 어린 동물의 이미지를 주로 찾아 “신이 다양한 동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해외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자기 개방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E는 연구자에게 자기 일상의 영상물을 보여주고 연구참여자들보다 연구자와 상호작용하려 했다. E는 억압된 내면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지를 찢고 구기며 창작하는 작업에서 하늘색 물방울을 만들어 파란 보자기에 감싼 후 한 동안 들고 있다가 “이건 눈물방울이에요” 라고 하며 연구자의 눈앞에 내밀었다. E의 밝고 자신감 있던 태도와 달리 자기 안에 불안감이 있는 것, 이주 후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것을 인식하였다. 표현예술치료의 특징인 창조성은 내적 직관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깨닫고 자신을 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한유진 외, 2022). E는 찢고 구기는 즉흥적인 활동에서 억압된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며 내면의 창조성을 발견하고 자기 인식을 확장할 수 있었다.

E는 간혹 집단원과 멀찍이 떨어져 벽을 보고 음악을 듣거나 “1:1로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등, 또래 대인관계가 적은 모습이었다. 자신을 마른 담쟁이넝쿨이 낡은 창문을 뒤덮고 있는 사진으로 표현하며 소통 욕구가 차단된 현재 상태의 좌절감을 표현하였다. E는 불편한 감정을 통역사에게 쏟으며 어렵고 긴 러시아 단어를 빠르게 반복하며 통역하라고 시험하거나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니 꼭 바로 통역하세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E는 자신을 다른 타인보다 우월한 존재로 상정하고 안아주는 집도 높은 굴뚝과 다락방이 있고 앞마당까지 꾸민 크고 화려한 러시아 전통 집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락방에 혼자 있는 D의 모습에서 자아의 고립감을 드러내며 상호주관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냈다.

②중기 변화단계에서 E는 고대문화를 언급하며 황금색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우월하고 과장되게 묘사하는 자아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나, 연구참여자들과 신체활동을 함께 한 후에는 과장 없는 자기표현을 시도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4>와 같다.

<표 V-24> E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6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면 같은 거예요. 문화가 오래 됐고. 러시아도 그래요. 나는 굉장히 크고 멋진 러시아 전통 집 이즈바에서 온 가족이 살았어요. 과자로 만든 집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위대한 나라에서 왔어요!
7	빛나는 나무		이 나무는 금색과 흰색이 섞여서 빛이 나는 나무예요. 나는 통역도 하고 영어도 잘해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도 벌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저축하고 나머지는 옷을 살 거예요.
8	큰 혜성		나는 큰 혜성을 그렸는데 마음에 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뭔가 우주에서 큰 혜성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느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요.


E는 무지 인형을 선택하여 아프리카의 마스크처럼 꾸미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한 러시아를 언급하며 고대문화와 러시아를 통해 위대한 민족 정체성으로 자신을 우월하게 표현하고자 하였고 자신도 “위대한 교수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였다. 페이스페인팅이나 가면은 원시 신앙의 하나로 그려져 자신과 가족을 보



호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김병철 외, 2016). E는 자신의 신앙과 모국에서 경험한 예술과 문화를 상기하고 자신의 신앙과 예술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 마스크 인형을 징검다리의 중간에 놓으며 “이 정도 건너가고 있어요” 라며 현재 자기 목표를 확인하였다. E는 흰색과 금색으로 신성한 나의 나무를 만들고 줄기 하단은 원래 색이 드러나도록 그대로 두어 연한 색의 다양한 꽃을 붙여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의 나무가 완성되었다. 자아상을 상징하는 나무 꾸미기에서 하얀색과 금색으로 나무를 표현하며 신성하고 이상적 자아에 대한 욕구와 현재 생활의 목표를 조절하였다.

E는 또래 관계 활동에 탄력밴드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A가 탄력밴드 활동을 즐거워하자 G와 함께 A를 탄력밴드로 돌돌 말아 이리저리 움직여 주었다. 연구참여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E는 자기 내면에 큰 혜성같이 아름다운 힘이 있는 것을 느낀다며 만족하였다.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신체 동작 활동에서 집단원이 자기의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작 활동의 전제는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심리·정서 혹은 육체적으로 억압된 에너지를 안전하게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Rogers, 2007). E는 연구참여자와의 신체활동에서 다양한 감각과 상호작용의 경험을 과장하는 대신 내면의 느낌과 변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하고 수용하는 변화를 보였다.

③중기 성장단계에 E는 점차 과장된 자기표현보다 일상을 나누며 집단원들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졌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5>와 같다.

<표 V-25> E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엄마 뱀 (전)		<F가 E의 뱀을 선택하여 날카로운 이빨을 붙이고 알을 만들어 알을 품고 보호하고 있는 엄마 뱀으로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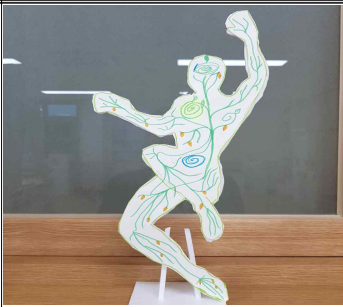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엄마 뱀 (후)		세상의 일 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했는데 날카로운 이빨도 있는 엄마 뱀이 되어 알을 품고 보호하고 있어요. 하하
10	my personal world		나의 개인적인 세계라는 의미예요. 제 손가락 모양의 그 기호는 저에게 다른 사람이 의견이 물으면 가리킬 거예요. 저의 자기 의견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E는 자신을 “칼 위에 앉아 있는 비둘기” 라 말하고 “이 세상의 선과 악의 세상의 일 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라며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고 점토로 굵은 뱀을 과시적으로 표현하였다. F가 E의 뱀을 선택하여 날카로운 이빨을 붙이고 알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알을 품고 보호하는 엄마 뱀으로 변화시켰다. E는 변화된 자기 작품을 보고 뜻밖이라는 듯이 “뱀이 암컷이었냐? 하하” 하고 웃었으나 F가 만들어 놓은 엄마 뱀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이상을 현실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되었다. E와 F는 점토 협동작업에서 돌봄과 보호 욕구를 충족하며 상호관계를 경험하였다. E는 연구자가 따뜻한 물로 손을 닦아주고 로션을 발라주는 돌봄을 경험하고 편안해하였다. 이후 E와 G가 짝을 이루어 처음 해 보는 작업이 신기한 듯 신중하게 포즈를 취하고 소통하였다. E는 집단원들에게 자기 작품을 소개한 후 자신이 만든 음악도 들려주고 싶다고 말하며 또래 관계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드러냈다. 석고를 이용하여 손 모양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은 이를 감상하며 삶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해준다(김병철 외, 2016). E는 석고 손 트로피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집단원 간 상호작용에서 자기효능감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5.3. 후기 단계

후기 통합단계에서 E는 집단원들과의 상호관계에 변화를 보였다. 또래 상호관계보다 연구자와 소통하려던 태도가 변화하여 집단활동과 예술창작 등을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을 통해 연구참여자와 유대감과 상호이해가 증가하자 상호 동등한 관계를 인식하고, 자아 개념 또한 과장되지 않는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가며 통합하고자 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6>과 같다.

<표 V-26> E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1	길을 찾는 사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12	넓은 세상과 사람들		선생님 혹시 이런 거 먹어요?. 뽕뽕로예요. 나는 마음을 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하면서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또 오세요. 다음에 또 할꺼예요. 안녕히 계세요.

E는 또래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연구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더 편안해하며 연구참여자들보다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사진 등 일상을 보여주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에서 또래 상호관계를 경험하며 상호주관성을 형성하였고, 자아 개념 또한 과장되지 않는 자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아가며 통합하고자 하였다.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한 창조적 연결은 심리의 외현화 과정을 통한 통찰로 자신이 맞닥뜨린 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내담자가 성장과 치유를 경험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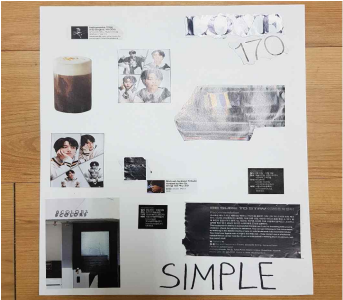
자발적인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할 때 변화가 이루어진다(Rogers, 2007). E는 온몸을 식물 줄기로 감싼 채 점프하고 있는 모습으로 꾸며 자신의 예술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성장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다. E는 자신을 특정하게 명시하지 못했으나, 성악가 흉내를 내는 등 지속해서 예술을 통한 자기개념을 정립해 나갔다. E는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 동안 자기개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정리하며 음악을 공부하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E는 지속해서 자신을 통찰하며 자기 및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는 마을 꾸미기 협동작업에서 자연과 도시의 다양한 환경을 꾸몄다. 큰 도로에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모습과 광활한 자연이 펼쳐진 세상을 꾸미고 폭넓은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다. 특히, 탄력밴드 활동의 상호작용을 하며 연구참여자들과 가까워졌고, 자기 내면의 힘도 느꼈다고 하며 자아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해 나갔다. E는 회기를 종결할 때 연구자에게 다가와 준비한 이별 선물을 건네주고 상호관계에 대한 주체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6. 연구참여자 F: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천사’

6.1. 초기 단계

초기 탐색단계에 연구참여자 F는 10살에 한국으로 이주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첫 회기에 어색함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어른스러운 말투와 태도로 여유를 보였으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여 또래 상호작용에 관심이 적고 개인 작업에 집중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7>과 같다.

<표 V-27> F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	천사		나는 착한 아이예요.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예요. 그래서 천사예요.
2	Simple		이야기할 게 없어용. 그냥 나는 흰색으로 표현했고 연예인이 좋아서 붙였어요. 잘 생겨서 좋아요. 잘 생기면 다 좋아요. 작품이 깔끔해서 다 좋아요. 나는 지금 즐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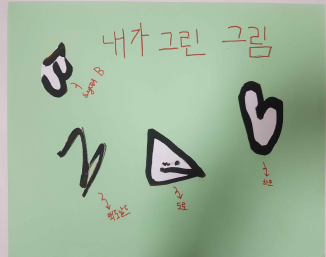

F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자신감을 보이며 프로그램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참여하여 별칭을 통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착한 아이라며 자신을 변호하였다. F는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어 이해가 어려울 때 통역해 주며 연구자와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책임감을 보였으나 또래 상호작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 작업에 몰입하였다. F는 피곤한 얼굴에 운동복 차림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오후에


등교하였다. 신체활동을 할 때 “샘 우리가 나이가 많아 팔이 안 올라가요.” 라며 활동을 거부하고 애교로 무마하며 집단의 규칙을 무시하였다. 감정을 탐색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자기 통찰을 위해 중요하며,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통해 내면 탐색을 할 수 있다(Rogers, 2016). F는 신체활동을 거부하고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콜라주 작업에 관심을 보이며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흰색과 검정을 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 확신이 적어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6.2. 중기 단계

①중기 인식단계에 F는 프로그램 활동 중 외부인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비즈니스와 관계된 일을 처리하는 등 집단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집단의 규칙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무의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학교 시험 공부를 걱정하며 학업에 대해 걱정하는 등 성인과 청소년의 이중적인 심리의 갈등이 드러났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8>과 같다.

<표 V-28> F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3	내가 그린 그림		옛날 옛적에 한 도로에서 буква-B를 만났어요. 도로에서 B가 눈을 마주쳐서 사랑이 생겼어요. 도로가 B에게 맥도날드를 가져고 했어요.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 가장 좋아요. 심플한 게 좋아요.
4	속이 시원해요		감정을 풀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알았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하니까 기분도 좋았구요, 내 속이 시원해진 것도 좋았지만 프로그램 같이하니까 친구들과하고 더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회기	제목	작품	서사
5	서로 모르는 사이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소파에 양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휴식하는 거예요.



F는 프로그램 참여 중에도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업무를 처리하며 집단의 규칙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난화를 통한 무의식 탐색에서 ‘도로, 맥도날드, 하트, 알파벳 B’ 이미지로 인간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며 “한국 아이들과는 문화와 사고방식 차이로 사귀지 않아요” 등 자신을 또래와 구분 짓고 성인인 듯 행동하였다. 그러나 혼잣말로 학교 시험을 걱정하는 등 학업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성인과 청소년의 양가 적인 갈등을 보였다. F는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태도로 또래 관계에서 러시아와 한국 문화 차이를 설명하며 18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여기는 러시아와 1~2년 나이 차이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며 비즈니스까지 하는 자신은 성인이라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인인 듯 여유 있어 보이는 태도와 달리 F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혼란으로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억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의 기본구조는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심리적 기체의 변화를 꾀함으로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주리에, 2010). F는 예술작품에 투사된 자신의 억압된 내면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고 정서를 이완하며 점차 집단원과의 공동체 활동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F는 프로그램 참여로 속을 풀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며 “너무너무, 엄청 기뻐요.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해요” 하고 만족하며 감사를 표현했다. 이후 F는 늦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쉬는 시간까지 몰입하여 작업하는 변화를 보였다. F는 프로그램 참여시 컨디션에 따라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사업상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청소년다운 활기는 적은 모습이었다. 현재 자신을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으로 표현하고,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탐색하는 작업에서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나무에 걸린 사람을 누군가 구해주는 장면으로 묘사하는 모습에서 대인관계 욕구는 있으나 피상적이고 친밀감이 부족한

모습을 나타냈다. 상대방을 “구해주는 사람” 이라 우호적으로 표현하고 의존적인 욕구를 드러낸 점에서 정체성 혼란의 상황에서 의존적인 대인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는 안아주는 집 만들기에서 사방이 개방되고 소파로 둘러싼 공간을 꾸민 후, 사람이 양쪽에 앉아 마주 보고 휴식을 취한다고 했다. 작품에서 대칭적인 구도는 우울한 내담자의 작품에서 볼 수 있으며 자기 통합을 통제할 때 나타난다 (오승진, 류정미, 2014). F는 성인처럼 자유로운 생활과 유아기 의존 욕구의 양가 대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래 상호관계 형성을 저해함을 알 수 있다.

②중기 변화단계에 F는 내면 정서의 표출과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아갔다. 이를 통해 잊고 있었던 청소년 발달기의 좌절된 욕구를 회상하고 애도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29>와 같다.

<표 V-29> F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6	유연한 고양이		이건 고양이예요. 나랑 비슷한 점은 유연한 거예요. 나는 유연해요. 나는 유연함이 나의 장점이에요. 정말 그래요.
7	내 꿈나무		일반적인 나무고 심플한 걸 좋아해서 표현했어요. 꼭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늦게 와서 끝 까지 못해서 아쉬워요.


중기 변화단계에 F는 무지 인형을 선택하고 무슨 모양인지 몰라 망설이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작업해도 괜찮다는 연구자의 말을 듣고서 고양이라고 하였다. F는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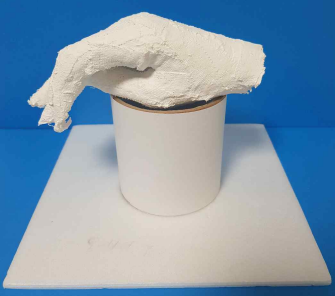
음에 무지 인형으로 자아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탐색을 통하여 고양이의 특성에서 자신의 특징을 발견하고 꾸미기 시작하였다. 시간 부족으로 얼굴만 빨간 고양이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 F는 가장 앞쪽 징검다리에 인형을 놓아 이주 후 적응과 사회성이 좋음을 드러냈다. 고양이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을 암시한다(이근매, 아모키 도모코, 2017). F는 회기 초반 어른처럼 행동하며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던 태도가 변화하여 자기 탐색과 표현에 몰두하며 자기 이해의 깊이를 더하였다. F는 밤늦게까지 장사하느라 피곤해서 학교에 늦게 왔다고 오자마자 나의 나무 만들기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F는 나무 모양을 선택하여 차분하고 꼼꼼하게 작업하였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전체를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F는 나무 아래에 떨어진 나뭇잎을 두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나무는 자아상과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변형하여 정신 성숙도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떨어진 나뭇잎의 경우 거부감, 상실, 죄책감, 포기 등을 나타낸다(오승진, 류정미, 2014). F는 또래 상호관계는 부족하고 성인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실된 자아상을 표현하며 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상실한 청소년기 자아를 애도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중기 성장단계에 F는 집단원들과 또래 유대감과 친밀감을 경험하며 억압된 내면 정서를 표출하고 집단의 돌봄과 지지를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정서와 신체의 활력을 회복하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30>과 같다.

<표 V-30> F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강아지 돼지 (진)		<E는 크게 뜬 눈과 진한 눈썹을 붙여 뚜렷한 인상으로 만들고 G는 팔과 다리를 붙여서 활력을 주었다. B는 단추를 붙여 옷을 입혀주고 보완하였다.>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강아지 돼지 (후)		나는 강아지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돼지로 바꾸었어요. 하하 그래도 눈썹하고 입도 생기고 팔다리도 있어서 움직이는 거 같아요.
10	오케이 손		내 손은 오케이 손이에요. 오케이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편해서 그렇게 쓰고 만들었어요. 예술 활동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예술 활동하면서 시원함을 느꼈어요. 속 시원해요. 속이 다, 시~~원해요

F는 점토를 손가락으로 힘없이 만지며 팔다리가 없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납작한 동물을 만들었다. E와 G는 “돼지 삼겹살” 이라 농담하였지만, E는 크게 뜬 눈과 진한 눈썹을 붙여 뚜렷한 인상으로 만들어 주었다. G는 팔과 다리를 붙여서 몸에 활력을 주었다. B는 옷을 만들어 입혀주어 전체적으로 생기있는 모습으로 변했다. 얼굴에서 감고 있는 눈 혹은 생략된 팔과 다리는 현실 대면에 대한 불편한 심리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김선현, 2016). 프로그램 진행 중 집단원들과의 상호작용보다 개인 작업에 몰입하던 F에게 연구참여자들은 작품을 보완하고 확장해 주며 상호작용하였고 F도 연구참여자와 자신의 변화된 작품을 함께 이야기하고 친밀감과 활력을 느끼며 만족하였다. 이후 F는 A와 만나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또래와의 상호활동이 증가하였고, 미술과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다는 A의 말에 자극받아 F도 학교생활이나 진로에 관한 대화가 증가하였다. F와 A가 짝이 되어 석고 손 트로피를 섬세하게 만들어 주면서 대화 양이 많아지고 서로의 작품에 만족하며 상호인정하였다. 자기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 역량을 향상하도록 돕는다(기희경, 2022). F는 자아상을 정립에 따라 또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였다.

6.3. 후기 단계

후기 통합단계에 F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또래와의 상호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끼며, 성실한 학교생활과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31>과 같다.

<표 V-31> F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2	비즈니스 사업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 하는 거 좋았어요. 저는 항상 가슴이 꽉 막혀 있었는데 이걸 뭔가 화악~ 열리는 거 같고 속이 시원했어요.

후기 단계에 F는 지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석 중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작업에 집중하였다. 학교 수업일수가 며칠 남지 않아서 퇴학 될지 모른다고 걱정했으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퇴학할 생각은 없음을 밝히며 학교생활에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이다. 지난 회기 신체 모형을 만들지 않았으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졸업 후,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하였다. F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억압된 내면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경험한 것에 크게 만족하였으며 또래 집단원들과 과자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함께 상호작용하며 친밀감을 나누었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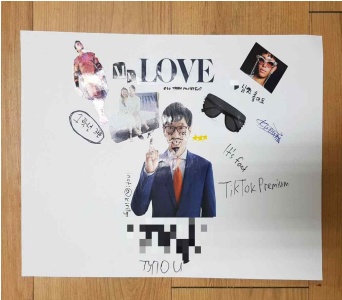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서로의 문제를 개방하고 생각하고 해결하는 가운데 유대를 쌓으며 신뢰감과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응집력을 형성하게 된다(이임숙, 2016). F는 집단표현예술치료의 활동을 통해 또래의 연구참여자와 소통하며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통합뿐 아니라 청소년기 또래 관계 형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7. 연구참여자 G: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싶은 ‘한아타’

7.1. 초기 단계

초기 탐색단계에 연구참여자 G는 낯선 환경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자 자기 개방을 꺼리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거리를 두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32>와 같다.

<표 V-32> G의 초기 탐색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	한아타		<카자흐스탄 지도를 그리고 러시아어로 길게 ‘학교가 싫다’는 내용을 적은 별칭을 만들고 사샤라고 쓰려다 지우고>, “내 별칭은 사샤예요. 아니 한아타라고 바꿀게요. 선생님이 내 애칭을 부르지 못하게 할 거예요.
2	내 친구 배트맨		<자기 작품에서 다른 집단원을 칭찬했으나 비웃는 말투로 우스갯거리로 만들며> 내 친구 배트맨<본명>이 좋아요. 인기가 많고 친구들 사이 인싸예요. 배트맨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잠시 후>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지금 지쳐요.

G는 교실에 들어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책상에 엎드려 “졸리다” 라며 잠을 청했다. 중간에 잠에서 깬지만 일어나지 않고 소리를 들으며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등 경계가 심한 모습이었다. 연구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권하자 G는 마지못해 일어나 관심 없다는 듯 자신이 하는 말을 C에게 통역시키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보상을 연구자에게 재차 확인하며 관심을 보였다. G는 이와 같은 방어적인 태도로 첫 회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G는 집단원 중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을 20




살이라 소개하며 어른인 듯 행세하였다. G는 “카자흐스탄에서 살 때가 좋았고 한국에 이주해 왔으나 한국어는 배우지 않겠어요” 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체성 형성 요소인 주도권은 자신을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박아청, 1996). G는 집단표현예술치료라는 낯선 환경에 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인을 경계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G는 신체활동과 예술 작업 등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깨거나 과도하게 유쾌한 듯 웃으며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자 하였다.

G는 색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콜라주 작업에서 그간 경계하던 태도가 변하여 적극적으로 예술 작업을 하며 필요한 예술 매체를 선점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등 자기 탐색보다는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G는 작업에 몰입하여 쉬는 시간까지 활동을 이어갔고 작품을 완성한 후에는 들고 다니며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랑하는 태도에서 집단의 상호작용보다 자기중심적인 개념을 드러냈다. 이밖에, 통역사가 자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옆에 와서 으박지르듯이 말하기도 하였다. 이는 G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며 타인과 상호관계를 이루는지를 나타내며 타인과의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관계 역량은 다소 미흡한 모습이였다. 연구자가 G의 이러한 태도를 인식하도록 하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남을 생각해야 해요?” 라고 거칠게 따져 물으며 반항하였다. G는 거친 행동을 하며 집단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고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작품 발표 시 이를 무시하고 칠판에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적는 돌출행동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켰다. 회기를 마친 후 G는 연구자에게 다가와서 운동대회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을 과시하였다.

7.2. 중기 단계

①중기 인식단계에 G는 프로그램 참여시 집단의 규칙보다 자기 욕구대로 행동하고자 하였다. 예술 매체를 통해 내면의 무의식을 탐색하는 과정에는 경제적인 안정감에 대한 욕구, 집단원과의 상호관계보다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모습 혹은 자신을 은폐하고자 타인을 이용하는 등 개인 욕구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33>과 같다.

<표 V-33> G의 중기 인식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3	멍청한 개구리		개구리예요. 안경도 쓰고 넥타이도 매고 있는 똑똑한 아니 멍청한 개구리예요. 학교가 불만스럽고 공부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간이 힘들어요.
4	나는 일하고 싶어		이거 내 쌍둥이 여동생의 요람을 흔드는 것 같아요. '나는 일하고 싶어.'
5	크고 모던한 집		크고 모던한 집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 집은 여기가 네온 빛으로 장식된 집이고 지하에는 사우나 시설이 있고 gym이 있어요. 음료수가 채워져 있고 모든 필요한 물건이 많이 들어 있는 집이에요.

G는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유독 B를 무시하며 과도한 장난을 치거나 머리를 툭툭 건드리며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이 잦다. 집단원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거나 조급해하며 다리를 떠는 등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초조함을 많이 드러냈다. G는 프로그램의 주제를 설명하는 연구자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 후 나눔을 거부하는 등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동을 일으킨다. 연구자가 개입할 경우, 자신을 추궁한다고 하며 화를 내며 자기 개방을 거부하였다. G는 콜라주와 난화 활동에서 자기 탐색 대신 B를 등장시켜 설명하며 자신을 숨기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G는 통역자가 즉시 통역하지 못하면 크게 소리치며 무례하게 행동하며, 권위자 혹은 어른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드러냈다. G는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해 감정을 표출하는 활동에서 감정 뭉치를 크게 만들려고 경쟁하였다. 이처럼 타인을 의식하는 G의 태도는 자기 탐색과 인식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점차 내면 정서를 이해하며 검은색 종이 뭉치를 감싸고 테이프로 단단하게 감았다. 감정 뭉치를 감쌀 보자기를 선택할 때 색 보자기를 하나하나 펼쳐 확인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택하고자 하였다. G는 최종적으로 빨간 보자기에 검은 종이 뭉치를 감싸서 강렬한 인상의 감정 뭉치를 완성하고 “나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써서 한 손에 쥐고 한동안 좌우로 흔들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였다. 잠시 후, “카자흐스탄 살 때, 여동생들의 요람을 흔드는 거 같아요.” 라며 고향을 회상하였다.

G는 점차 예술창작 작업에 흥미를 느끼자 작업에 몰입하고 다양한 예술 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가 알려주는 표현예술 매체를 눈여겨보고, 자기 작품을 표현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는 등 예술창작 활동에 몰입하였다. G는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에서 손가락에 붕대를 감는 사진을 발견한 후 “손을 다쳐서 밴드를 붙인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예요” 라고 설명하며 사진을 통해 운동하는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개방하였다. G는 대인관계 탐색 그림 검사에서 카우보이와 쥐를 선택하고 “우리의 친구이고 멍청하고 약삭빠르는데 그 사람은 내게는 중요하지 않으나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며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이었다. 내면 심리·정서를 알아보는 투사검사에서 자기 탐색과 표현보다는 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자기방어와 개방의 양가감정이나 다른 타자에 대한 부정 정서 및 경쟁심을 나타내기도 한다(Burns, 1972, 백양희, 2014: 재인용).

G는 안아주는 집을 만들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았다. G는 매우 큰 집을 만들고자 서두르다가 벽이 계속 허물어져 실패하자 “에이씨~” 하더니 방법을 바꾸어 민첩하게 문제를 해결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벽이 매우 두꺼워 내부 공간이 없는 집에 되었는데, 접착력이 약한 풀을 가져온 연구자 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집은 내담자가 성장해 온 가정생활을 나타내며, 가족 관계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보여주며 튼튼한 벽은 완강한 자아를 나타내기도 한다(오승진, 류정미, 2014). 부모의 이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G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모던하고 강하게 안아주는 집을 만들어 경제적인 안정과 과시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불안과 내적 결핍을 보상하려 하였다.

②중기 변화단계에 G는 고향의 추억과 자신의 내적 자원을 탐색하며 자신을 개방하고 집단원과 상호작용하며 집단원들을 우호적인 타자로 인식하고, 자신도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며 신뢰감과 유대감을 갖는 변화가 있었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34>와 같다.

<표 V-34> G의 중기 변화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6	작은 한아타, 두아타		나는 카자흐스탄의 말고기 음식을 요리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알려 주셨어요. 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고 친구가 많아요. 내 인형은 두아타예요. 나는 한아타, 인형은 두아타. 이 말은 작은 한아타예요. 하하
7	열매가 가득한 큰 나무		내 나무를 보세요, 열매가 가득하고 엄청 큰 나무예요. 나뭇잎도 많고 열매도 많아요. 빨간색은 아니예요. 바꿨어요.
8	우리들		아까 같이 밴드에서 활동 같이하던 친구들이예요. 여기서 내가 누군지 알겠지요? 옆에 친구들도 알겠지요? '우리들' 이에요.

G는 자신을 표현하는 인형을 고를 때 말 모양을 보자 바로 선택해 카자흐스탄 국기를 그리고 꼼꼼하게 색칠하였다. 말 인형을 소개하며 카자흐스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연구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한국어로 이야기한 후,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유쾌한 모습이였다. G가 국기를 그린 말 인형으로 자신





을 소개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해주었다, G는 고향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소개하며 자신감과 친밀감을 느끼며 상호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G는 연구참여자와 고향 이야기를 나눈 후부터 집단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거나 연구참여자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는 태도가 누그러지고 유대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G는 회기를 마친 후 교실 정리도 돕고 연구참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등 친밀감과 우호적인 태도로 상호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G는 매회기마다 새롭게 제공되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에 흥미를 보이며 나무 만들기로 자아상을 표현하였다. G는 많은 양의 빨간색 아이클레이를 나무 전체에 붙였다가 생각을 바꿔 잎과 열매가 풍성한 화려한 나무로 완성하였다.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는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자극하고 탐색하도록 돕는다. 이밖에 자기 탐색을 통해 새로운 자기를 인식한 내담자의 자기표현을 촉진하고 치유와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김명철, 2007; 오영애, 최명선, 2016). 예술창작에서 사용하는 빨강은 삶의 의지와 열정을 의미하지만, 고통의 상황에서 타인과 환경 탓을 하는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김선현, 2016). G는 빨강을 통해 타인과 환경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려던 것에서 나무와 열매가 많은 풍성한 나무로 변경함으로써 내적인 애정과 인정을 원하는 내면 욕구를 삶의 활력으로 승화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G는 기분이 저조할 경우 예전처럼 연구참여자들에게 거친 접촉으로 시비를 거는 대신, 조용히 팔굽혀펴기와 턱걸이를 하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였다. 탄력밴드 활동을 시작하자 이내 기분이 좋아져 환하게 웃으며 연구참여자와 상호작용하였다. 표현예술치료의 신체 동작 활동에서 경험하는 심상은 글쓰기나 드로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느낌 및 감정으로 연결하며 자극하고 증강시켜 인간 내면에 도달하도록 한다(유나래, 2016). G는 탄력밴드를 뒤집어쓰고 있을 때, 가끔 밴드를 들춰서 연구참여자들의 얼굴을 확인하며 장난스럽게 웃으며 친밀감을 느끼며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G는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하고 집단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호주관적인 관계로 변화해 나갔다.

③중기 성장단계에 G는 집단원들과 돌봄과 지지를 경험하며 집단원들을 존중하며 집단에서 인정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상호관계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35>와 같다.

<표 V-35> G의 중기 성장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9	벤츠 630		내가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좋아하는 차가 벤츠 630이라서 그 자동차를 만든 건데 친구들이 만져서 마티즈를 만들까 봐 교환하지 않았어요. 하하
10	챔피언 트로피		내 석고 손 트로피는 챔피언 트로피예요. 내 트로피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친구들이 Good! 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G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여러 사람이 계단을 걷는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힘이 세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나예요, 다음 사람은 머리가 좋은 E, 다음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C, 마지막 내려오는 사람은 다리가 빠른 B이에요”라며 평소 연구참여자들의 장점을 묘사하고 칭찬하며 상호 동등하고 주체적인 타인으로 인정하였다.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인 유대감과 대인관계 학습은 타자와 상호작용에서 주체성 발현의 동기와 기회가 된다(이임숙, 2016). G는 집단 유대감이 생기자 집단원을 무시하거나 경쟁하는 태도나 연구자에게 반항하던 태도가 사라지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며 관계 역량을 발전시키고 상호주관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갔다.



G는 점토로 자동차를 섬세하게 만들어 자신을 표현하였다. 자동차는 남성의 힘과 부를 상징하며 에너지, 추진력 등을 의미하고 심리적으로는 공격 성향을 나타낸다(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2017). G는 부모 이혼 후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경제적인 성취 욕구를 자동차 만들기를 통해 의미 부여하였다. 석고 손 만들기 작업에서 G는 연구자가 애착과 돌봄의 상징적 작업으로 따뜻한 물로 손을 닦아 주고 로션을 발라줄 때 운동으로 생긴 굳은살과 상처 난 손을 연구자에게

말기고 신뢰감을 보이며 온순해졌다. 이후 E와 짝을 이뤄 상호소통하며 석고붕대를 붙일 때 서로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작업을 완성하였다. 석고붕대는 이완과 통제의 성격을 모두 가진 매체로 집단원이 짝을 지어 석고 손을 만들며 대화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자기 인식 및 타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는 자아상을 재정립하도록 도움을 준다(정명선, 2010). G는 작품활동 후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연구자에게 친밀감을 보였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경쟁적이던 G는 돌봄과 애착의 관계 경험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감과 유대감을 회복하고 안정감을 얻었다. 공감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G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연구자와 집단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표현하였다.

7.3. 후기 단계

후기 통합단계에 G는 B와 언쟁이 생겼으나 대화와 양보로 상호 존중하며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는 다음 <표 V-36>과 같다.

<표 V-36> G의 후기 통합단계 작품 사진과 자기 서사

회기	제목	작품	서사
11	나 Тра***cy **		이건 나예요. 다른 말은 안해도 되요. 그냥 나예요. <잠시 후> 이걸 Тра***cy** 라는 40살 된 여인이예요.
12	큰 휘발유 차도 타고 싶어		나는 아직 뭘 할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운동을 할 거예요. 큰 휘발유 차도 타고 싶어. 자존심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우리 모습대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G는 프로그램 초반 자기표현 없이 양보하던 B가 자기주장을 시작하며 언쟁이 벌어졌다. G는 당황하는 표정이었으나 과거처럼 힘으로 제압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고 B의 주장에 동의하며 양보하였다. 청소년의 정체성을 형성을 위해 자신이 대면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찾는 주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박아청, 1996). 갈등 상황에서 둘은 상대방의 주장을 듣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다. B는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G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감정적인 행동하는 대신, 서로 인내심을 보이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상황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G와 B는 서로에게 있었던 감정의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상호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G는 자신의 주체적인 미래상을 표현하기 위한 신체 모형에 눈과 입이 작은 얼굴에 강렬한 색상의 옷과 벨트를 착용한 근육질의 남자를 만들고 “나” 라고 이름 지었다가 잠시 후 “40살 된 여인” 으로 수정하였다. 자아상을 표현할 때 다른 성(性)을 표현하는 경우 성의 동일시를 나타낸다(오승진, 류정미, 2014). G는 자아상을 표현하며 모(母)를 언급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모(母)에 투사하여 가족에 대한 마음과 책임감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G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정서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밝은 표정으로 연구참여자와 상호소통하고, 예의 바른 태도와 언어사용에 주의하며 집단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초반에 주도권을 잡으려 무례한 말을 사용하거나 소통을 거부하던 태도 및 집단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태도 대신 언어사용이 거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자에게 지켜야 할 예의를 알려주며 집단을 존중하였다. G는 마을 꾸미기 협동작업을 하며 자동차가 많은 도시에 있는 운동선수를 장래 진로로 정하며 미래의 희망을 계획하였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은 치료사와 집단원들 모두에게 중요하다. 종결작업은 프로그램에서 지난 상처를 드러내는 탐색시간이 아니라 집단원의 개인적인 경험을 모으는 시간이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드러난 집단원 간 발생한 균열 현상, 정신적으로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경향,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쉬움과 기대의 감정이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종결 시에는 이 과정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Rogers, 2016: 275). G는 종결 회기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과 연구자와의 작별의 아쉬움을 표하며 강한 힘으로 연구자를 꼭 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8. 소결

이 장은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실행과 참여 경험에 대해 다루었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변화과정을 표현예술치료 활동과 자기 서사를 통해 분석하며, 연구참여자가 겪은 내면적 변화와 상호관계에 대한 성장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학교 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조정하였고, 집단표현예술치료에 최적화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주제를 담은 현수막 게시, 간식 및 음료 제공, 책상 배치 등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가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을 개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집단 구조와 상호작용을 위한 규칙을 설정하였다. 별칭 짓기, 마주 보고 걷기 활동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탐색하고, 첫 회기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예술작품과 자기 서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개인의 의미와 경험을 개방하고 공유하였다.

중기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자기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억압된 부정적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며, 이주 과정에서 겪은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자기 이해뿐 아니라 점차 타인 이해와 상호작용으로 확장해 나가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한 창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긍정뿐 아니라 부정 감정과 생각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점차 자기 이해와 수용을 높이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예술창작 작품에 자신을 투사하여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표출하고 보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이주로 인한 변화된 생활과 결핍된 애착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고, 고향의 가족들과의 추억 등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애도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밖에 및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확인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상호관계를 형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상호 소통으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호 지지와 연대감을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내면적인 경험을 탐색하고, 집단원 간 상호 성장과 변화과정을 신체활동과 예술창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과 자기 서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낯선 고향의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며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자신뿐 아니라 집단원 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 주체적인 존재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Ⅵ. 집단표현예술치료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의 의미

이 장에서는 집단표현예술치료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을 상호주관성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상호주관성은 자율적이고 인격적인 주체가 상호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는 타자지향성을 근거로 한다(김성동, 1993). 심리치료에서 상호주관성의 전제는 주체와 주체가 공유영역에서 정서를 조절하며 상호교감하고(Wal lin, 2019) 상징표현을 통해 소통하는 주관성을 의미한다((Briere & Scott, 2006). 연구참여자들의 예술 작품, 자기 서사 및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를 지속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 상호주관성 요소에 따라 공통 주제를 4개의 상위 범주, 8개의 하위 범주, 16개의 의미 단위로 나타냈다. 분석에서 도출한 의미는 다음 <표 VI-1>과 같다.

<표 VI-1>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의미 단위	요소
어디에도 없는 나	낮선 환경에 압도당함	· 마음의 문 앞에서 서성이다 · 시선으로부터 도망하다	자기 수용성 정서 조절
	변화를 공격으로 인식함	·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쓰다 · 마음의 연결을 거부하다	주체성 정서 조절
겹침으로 스며들	위장된 친밀감	·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다 · 아픔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다	주체성 친밀감
	뜻밖의 탄성	· 흥미로운 경험에 시선을 주다 · 결핍의 허기를 채우다	감각자극 은유와 상징
회복으로 화해함	공유된 애도	· 깨어진 마음을 감싸 안아주다 · 눈감아야 보이는 고향을 추억하다	정서 조절 공감
	서로에게 보이는 우리	· 서로의 빈공간에 손 내밀다 · 소외된 내가 아닌 안아주는 우리가 되다	돌봄과 지지 주도성
부유(浮遊)하지 않는 유목	나의 나이를 찾아감	·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다 · 당당하게 나의 자리를 누리다	자기 수용성 목표 지향성
	품이 넓어진 성장	· 미래에 대한 숨은 소망을 꺼내어 보다 · 이어짐에 대한 신뢰의 씨앗을 심다	미래 확신성

1. 어디에도 없는 나

Husserl의 현상학은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해명하고 진정한 인간성을 실천하고자 개인 주관성의 의미를 다루었으며, 여기에 독자성과 고유성을 부여하여 자유를 개인 주관성의 주요한 주제로 삼았다(Husserl, E., 2021: 15). 상호주관성은 이러한 개인 주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등하게 실천할 때 형성될 수 있다. 집단표현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자기개념과 주관을 깨닫고 표현하며 동등한 주체로 진정한 인간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책임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주체성이 중요하다(양계민, 조혜영, 2012). 주체성을 지닌 인격적 주체는 외부의 영향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인철, 2015).

1.1. 낯선 환경에 압도당함

상호주관성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중도입국청소년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지향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개인의 주체성 여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은 자기상을 부정하는지와 같은 자기 수용성의 태도와 관련된다(박아청, 1996). 초기 단계에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타자를 과도하게 경계하며 상호 소통이나 관계 맺음에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왜곡된 자아상을 드러내었다.

1.1.1. 마음의 문 앞에서 서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나 교사의 권유, 학과 수업과 다른 새로운 선택지, 간식과 같은 이차적 이득 등 다양한 이유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본인의 선택이 있었다. 첫 회기에 연구참여자들은 무관심한 눈빛과 무기력한 표정, 긴장되고 위축된 모습 혹은 과장되고 피상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눈맞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보다 망설이고 경계하며 새로운 관



계에 부담을 느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유보하는 연구참여자, 참여 대신 탐색만 하는 연구참여자, 무기력하고 위축된 연구참여자, 과장된 친밀감을 보이는 연구참여자 등, 자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더욱 위축되어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며 자기표현도 ‘이빠서’, ‘그냥’, ‘몰라요’, ‘아니요’ 라고 말하며 낯선 환경을 경계하며 소통을 주저하였다.

나에게 좋은 기억은 없고, 가지고 싶은 기억도 없어요.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기억이라고 쓴 거예요. 제 작품에 제목은 없어요. 나는 지금 조금 졸리는 기분이에요(연구참여자 A, 2회기).

주체와 주체가 상호관계를 맺으며 공동의식을 성립할 때 상호주관성을 가지게 된다. 연구참여자 B는 학교 상담을 거부한 경험이 있어 심리치료에 선입견이 있었고 C는 통역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눈치를 보다가 귀찮다며 포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예술치료 활동이 어색한 듯 낱낱거리며 웃음으로 무마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나는 한국말 몰라요” 라고 회피하였다.

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3살부터 모터사이클을 탔었어요. 그래서 골랐어요.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긴 했지만 기대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고 느끼는 감정도 없어요. 다 없어요...(선생님이 우리를 쓰레기로 아나봐)
(연구참여자 B, 2회기).

개인의 언어와 문화가 겹치며 낯선 것과 거리를 좁히는 과정은 공동의식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는 자기의 것과 점점 거리를 두는 결과를 낳는다(주광순, 2015: 44).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라는 낯선 타자를 경험하며 거리를 좁히기 보다는 회피하고 거부하며 상호주관성을 위한 공동의식을 가지지 못하였다.

1.1.2. 시선으로부터 도망하다

Trevarthen은 상호주관성이란 나와 타자가 정서를 조율하며 의사소통하고 공감할



때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Diana et al., 2013). 정서 조율이란 나와 타자가 감정의 공명을 일으키고 전달하는 과정인데, 이는 내가 타자가 느끼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을 느끼도록 해주고, 공유된 경험을 타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다(David J. Wallin, 2007). 연구참여자 D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무표정하고 톤이 없는 목소리로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한다. 동생과 비교하며 자신은 외국 애들(한국인)과 한국어 대화를 많이 한 동생보다 한국어가 서툴다고 하며 경계를 지었다. D는 자기소개 대신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로 화제를 돌리며 자기 개방을 피했다. D는 다른 참여자와도 소통하지 않고 두통을 호소하는 등, 낯선 환경에 긴장하고 경계하며 색 콜라주 작업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업했다고 자기표현을 합리화하고 방어하였다. C 또한 자기 탐색 과정에서 작품을 통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감 없이 위축되어 주도성을 갖지 못하였다.

나의 색상에 맞게 그림을 오렸더니 돈, 술, 카지노밖에 없는데, 검정이 별로 없어서 검정색을 찾다 보니 이 사진만 있었어요. 나와 비슷한 것은 없어요. 단지 색을 찾아보니 이런 그림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연구참여자 D, 2회기).

나의 색은 흰색이나 검은색이에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선택했어요. 나의 색이 잘 없고 여기에 하얀색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했어요. 많은 잡지 중에서 흰색 그림이 보이는 데로 골랐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연구참여자 C, 2회기).

상호주관성을 나와 타자의 관계로 설명할 때,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상황의 절대성 보다는 맥락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관계성 속에서 사태를 해석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이화도, 조희연, 2018). 연구참여자 D가 한국 이주 후 경험하는 시선은 이들이 경험하는 사태와는 다른 해석을 내리게 하고 이는 나와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이룰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주도성(박아청, 1996)을 가지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 별칭을 틀리게 표기하였지만 새로운 이름표를 요구하지 못하고 말없이 눈치를 보며 집단의 분위기를 탐색하는 등, 집단 내에서 자기 존재를 감추려 하였다. C는 사람이 없는 절벽 사진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

를 묘사하며 타인과 공유된 환경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무의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타인의 화나고 싫어하는 눈빛을 표현하였으나 이내 자기 의견을 부인하였다.

감옥 같은 답답함을 없애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옛날, 옛날에 눈(目)이 눈(目)을 보는데 거미가 나타났어요. 둘 다 화가 난 눈이고 서로 싫어하는 눈이에요. 계속 싫어하고 있어요...음.. 저를 쳐다보는 눈 중에 화가 난 눈은 없고 나도 화가 난 눈이 없어요(연구참여자 C, 3회기).

나와 타자가 상호소통할 때 정서 조율은 서로의 감정교류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이중 과정이다(Stem, 2000). 이때,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조절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한다(Schore, 2009). 연구참여자 G는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며 낮은 환경에서 반응하였다. 별칭 짓기에서 이름표에 카자흐스탄 국기와 많은 글씨를 써놓고 키득키득 웃으며 설명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에서 살 때가 좋았고 한국에 왔으나 한국어는 배우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학교생활의 불만을 적어놓은 글이었다. 별칭 짓기도 자기 애칭을 쓰려다가 연구자가 애칭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상호관계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 및 감정을 조절하며 교류하지 못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할 수 없게 하였다.

내 별칭은 사샤예요. 아니 한아타라고 바꿀게요. 선생님이 내 애칭을 부르지 못하게 할 거예요...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남을 생각해야 해요? 무슨 일이나 내가 혼자 하면 되는데 왜 남이 필요해요?(연구참여자 G, 2회기).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라는 낮은 타자를 접하며 상호소통하는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감정을 공유하기보다 방어적인 태도, 위축된 정서, 공격적인 반응 등, 회피하거나 거부함으로 인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1.2. 변화를 공격으로 인식함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에서 집단원 간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로 구분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성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회피보다는 대면하는 것, 자신이 생각한 것을 선택하는 실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주체성 발현이라 할 수 있다(김명수, 고진호, 2022).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이 자기의 삶에서 주체성을 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유연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주관성의 의미에서 이러한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나 이외의 모든 것’이라는 뜻과 좁은 의미에서 ‘나와 같은 존재인 타인’이라는 점에서 타자를 자기와 동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타자의 존재를 나와 유사한 경험을 지닌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김성동, 1993).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였을 때 이를 낯선 타자로 인식하였고 ‘나 이외의 모든 낯선 것’에서 자신과 동질적인 타자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1.2.1.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쓰다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성은 발현하는 것은 자기 동질성, 자아정체성, 자아의식, 자기완성을 의미하며 자신의 역량이나 가능성을 바탕으로 목표를 영위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이라 할 수 있다(박아청, 1996). 집단원들이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상호작용할 때 상호정서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집단활동을 충분히 경험하며 자기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조희진, 2023). 중도입국청소년은 학교 내에서 동질 집단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채로 비다문화 학생들과 구별되어 자신들만의 또 다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색 콜라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배우로 묘사하고 주변 친구들은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다고 말하며 상호주관적인 정서를 공유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B의 콜라주 속 주인공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같은 반 친구라 어쩔 수 없다고 수동적으로 말하며 상호 또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배우인데 남자아이들이 쳐다보며 웃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작업했어요. 친구라서 어쩔 수 없어요. 나



는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연구참여자 B, 3회기).

상호주관성은 나와 타자의 언어와 문화를 포괄하여 이해할 수 있고, 타자를 나와 동등한 주체로 여겨 상호 관계를 이루게 되면 공동의식이 성립하게 된다(최정실, 1998). 이때 나와 타자의 생활세계가 겹치는 과정에서 간극을 좁히고 공동의 부분은 넓어지게 된다(박인철, 2015). 이는 타자와의 거리를 좁힘과 동시에 자기 것을 낮설게 보며 나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다(주광순, 2015).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낯선 타자와 자신의 생활세계가 겹칠 때 타자를 객체로 여기며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강하게 반발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큰 체격의 자신을 20살이라 하며 힘을 과시하고 집단의 주도권을 잡아 자신의 내적 긴장과 불안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런 태도는 점차 다른 연구참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연구자를 도와 교실 정리를 도와주던 C는 눈치를 보느라 덩달아 떠들고 장난치는 등 집단이 상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공동의식이 성립되는 데 방해요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낯선 타자를 수용하지 않고 객체화시키며 상호주관적 관계 연결을 거부하였다.

선생님은 저희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청소년들과 계속 일을 하시려면 청소년에 대해 조금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5회기).

상호주관적 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는 방관적인 태도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연구자가 예술치료 활동 중에도 옆 참여자와 잡담하고 키득키득 웃고 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등, 연구자를 무시하는 듯한 교묘하게 반응하였다. A는 예술창작을 좋아하며 활동에 몰입하고 감상에 젖지만 나눔에는 인식한 편이다. 연구자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 정색하며 입을 닫았다. 자신을 표현하는 색상을 “보라색” 이라고 즉시 말했으나 내면의 감정을 개방하는 데는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대화를 단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집단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집단원들과 과하게 웃으며 즐거운 듯 작업하다가도 갑자기 큰소리로 언쟁하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긴장하는 등 감정 기복을 보이며 상호관계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미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A는 난화 설명



에서 자신을 “혼자 서 있지만 주위에 다른 나무 원하지 않는 약한 나무” 로 묘사하였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예술창작 활동은 그 자체로 예술 매체와 자신이 연결되고 공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수용하며 인내심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Mess-Christeller, 2004). A는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에서 이주 후 타자와 소통하며 상호주관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약하고 외로운 자아를 표현하였다.

옛날 옛적에 새가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왔더니 집 앞에 예쁜 나무가 있었어요, 새가 눈으로 집을 봤어요. 그렇지만 나무는 너무 커요, 20살 정도. 그렇지만 이 나무는 좀 약한 나무예요, 날씨는 좋지만, 주변에 다른 나무는 없어요. 나무를 더 그리고 싶지는 않아요. 한그루만 혼자 있어요(연구참여자 A, 3회기).

1.2.2. 마음의 연결을 거부하다

상호주관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김성동, 1993) 인간이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생득적 능력(L. Aron, 2006)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상호주관적 관계를 추구하는 상호주관적 존재라 할 수 있다(최이선, 2016). 연구참여자 G는 첫 회기에 엮드려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교실을 떠나지 않고 분위기를 탐색하였다. 연구자가 대화를 청하자, 귀찮은 듯 일어나 C의 통역을 통해 대답하고 치료사와 눈 맞춤을 피하며 마음을 숨겼다. 이러한 태도는 낮은 환경에서 자기 주도성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상호주관적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이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발현될 수 있으려면 나와 타자가 상호주체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그 의미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참역자가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심리 내적인 것이 외현화하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관념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임용자, 2014). G는 심리 내적인 부정 정서로 집단의 상호작용을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상호주관적 관계도 추구할 수 없었다.

아니요. 즐려서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한국말 몰라요. 말 시키지 마세요(연구참여자 G, 1회기).

이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를 진행하며 연구자를 포함하여 상호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통역사를 배치하였다. 회기 초반 연구참여자들은 모든 말과 행동이 연구자에게 전달되는 것에 불쾌함을 표현하며 개인 일정상 학교 통역 교사 대신 참여한 새로운 통역사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E는 일부러 어렵고 긴 단어를 빠르게 반복하며 통역자의 실력을 시험하는 등, 자존심을 건드리고 공격하며 거부하였다.

Levine과 Friedman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상호주관성을 이해할 때 타자를 더욱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arsen et al, 2003). 이는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는 타자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하게 된다(조희진, 2023).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초반 회기에 집단에서 주체적으로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통역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연구자에게 전달되어 노출되는 상황, 이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주체성 상실을 느끼며 통역사를 불신하고 공격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호 신뢰와 인정을 통한 상호주관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행동 등은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언어소통의 제약으로 인한 거절감을 타자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져 상호주관성 형성을 지연시켰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선생님한테 모두 통역할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선택하여 반복하여 매우 길게 말하며) 선생님은 돈 받고 통역하는 알바니까 잘 통역하세요(연구참여자, E, 5회기).

인간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나 정체성을 확립하면 주어진 환경과 과업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주체성에 따르게 된다. 이때 ‘나’는 대상화나 객체화된 존재가 아니며 항상 능동적인 주체적 기능을 하게 된다(박아청, 2010).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회피하고 경계하며 주체적인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였다.



2. 겹침으로 스며들

Husserl은 주체의 태도를 통한 타자 경험을 감정이입으로 설명하였다.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가지는 경험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타자의 내면을 나와 같이 이해하기 위해 감정이입이라는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박인철, 2015).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가진 언어와 문화로 이루어진 생활세계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만을 강조하는 것은 주체가 인식하는 지향성을 강조하며 타자에 대해 경험할 때 생동감보다는 보편성과 동질성만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박인철, 2015: 258). 따라서 보편적 세계를 극복하고 타자를 경험하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주체성이 필요하다. 즉,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감정 이입하는 윤리적인 실천으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서로가 지닌 문화를 해석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Mall, 1996).

2.1. 위장된 친밀감

Travathen(1998)은 상호주관성을 설명하며 주체와 주체가 언어이해에 앞서 서로의 감정과 의도를 인식하며 타인과의 교감을 이루는 감정이입을 설명하며 공유영역을 강조하였다. Husserl은 감정이입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나와 타자가 일치하여 공감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와 태도를 표현한다고 말하였다(박인철, 2015). 또한,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내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나 자신과 타자 간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을 유비적으로 경험하거나 유추할 때 필요하다. 현상학에서 감정이입은 공감과 어원을 같이 하지만 타자를 지각하는 인지적인 요소를 부각하여 타인 경험 혹은 타인 이해라고 지칭한다(이남인, 2006). 따라서 상호주관성 형성은 타자 경험과 타자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1.1.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안에서 표면적인 친밀감을 보이고 있

었지만, 서로가 미해결되어 억압된 정서로 인해 주체성을 가지고 타자와 교감하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공유영역을 경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상호주관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타인과 주체적이고 유연하게 상호관계하며, 적정하게 자기 개방하는 친밀감이 중요하다(박아청, 1996). 연구참여자 B는 과거 학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나 강한 거부로 종결된 경험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은 집단표현예술치료 참여에서 방어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B는 회기 초반 거부적인 태도와 달리 꺼내기 어려운 자기 내면의 궁금증을 맥락 없이 불쑥 꺼내며 답을 얻고 싶어 하는 등,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을 타자와의 공유영역으로 가지고자 개방과 은폐의 양가감정을 보였다. G는 B의 태도에 긴장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하였다.

선생님은 심리상담사예요? 지금 제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살하려는 사람을 선생님에게 데려오면 어떻게 고칠 거예요?(연구참여자, B, 5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 형성 과정은 언어뿐 아니라 언어 이외의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공감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Levine, McNiff & Meyer(1999)는 상징적인 그림그리기, 노래와 몸의 움직임,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서사를 표현하고 존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정주, 2021). 연구참여자 B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무덤 앞에 세워진 눈이 덮인 묘비석’ 사진으로 표현하고, 연구자와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였다. 집단예술치료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친밀감을 형성하고 치유적인 관계 즉, 상호주관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새롭게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가 재빠르게 B에게 말을 건네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하며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등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상호주관성의 형성은 개별적으로 나타났다.

네가 무덤 사진을 고르면 죽음에 가까워 보이고 선생님이 네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진을 선택해, 이 사진으로 바꿔(연구참여자 G, 5회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봤지만 시도는 해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연구참여자 B, 5회기).

손목을 그었는데 칼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피가 많이 나고 위험했어. 안 보이게 문신했어(OO 활동 녹화영상).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이주 과정에서 경험한 가족의 해체와 분리 및 가족의 재구성, 고향과 친구와 준비되지 않은 이별, 미래 희망 좌절 등으로 인해 상실감, 심리적인 고독감과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 등 다양한 심리적 외상 경험이다(송원일, 유진이, 2018). 이러한 심리 외상을 경험한 이들은 발달적 퇴행을 보이거나 은둔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주변인과 관계를 차단하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우시정 외, 2018).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프로그램 초기에 작성한 자신의 가족관계 표시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부모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부모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과 의붓형제들과의 관계, 심리·정서적 이유로 인한 자살 시도,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등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주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영위하고 타자와 주체적이지니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건 심장 포털이에요. 네모는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 현실과 다른 세계일 수도 있어요.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연구참여자 B, 4회기).

나는 걸으려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척을 하면서 속에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연구참여자 D 활동 녹화영상).

2.1.2. 아픔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다

상호주관성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타자가 자기와 동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이성적 판단이 올바르고 보편적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자 또한 나와 같이 판단한다’ 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자는 나와 똑같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타자를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박인철, 2015).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이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주체와 주체가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인격적인 상호소통을 하는 대신 자기 내면을 숨기거나 타자를 비난하며 상호주관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연구참여자 G는 집단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체육 개인종목에서 우승하는 등, 운동에 소질이 있고 체격조건이 좋아 집단의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G는 자기 개방을 거부하고자 주의를 돌려 자기 작품에 B의 이름을 대신 써서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내 친구 배트맨이 좋아요. 배트맨은 남자 좋아해요. 인기 많고 친구들 사이에 인싸예요. 배트맨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예요. 하하하”(연구참여자 G, 2회기).

이 카우보이는 친구이고 이 사람이 곧 쥐예요. 남자의 성격과 얼굴이 쥐 같아요. 쥐는 멍청하고 약삭빠르고 여우 같은 느낌이에요(연구참여자 G, 5회기).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성을 발휘하여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는 자기 존재의 뿌리를 상실한 정체성의 위기와 연결되어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김영갑, 2005). 중도입국청소년은 또래 관계와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자신을 바라보는 또래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므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면 또래 관계에도 위축되는 등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Boyd Webb,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주와 분리의 과정에서 자기개념의 뿌리, 언어, 문화, 종교 및 또래 관계를 통한 대인관계 및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개념이 대부분 무가치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심리 외상은 집단의 상호관계에서 타자를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너 바보야? 무슬림 교회에 어떻게 다니냐?, OO을 때리자. 개XX”(활동 녹화영상)

청소년기인 연구참여자들은 또래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기 모습을 숨기려 상황을 회피하거나 내면 불안을 감추고자 타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반대의 모습에서 나와 타자를 상호 주체로 인식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2. 뜻밖의 탄생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 형성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공동의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치료자는 지속적이고 민감하게 내담자와 관계를 조율하여야 한다(최이선, 2016). 치료자가 내담자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내담자를 주체와 객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최영민, 2008). 이를 위해 표현예술치료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자극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김명철, 2007).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타자와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언어소통의 제약과 문화 차이를 넘어서 비언어적 표현예술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탐색하고 경험하며 주체적 자기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 되었다. 예술의 창조적 작업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타인에게 좌우되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조희주, 2016).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주관성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자극하고 탐색하는 과정은 인지하지 못하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돕는다(김명철, 2007). 결과적으로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 과정을 통해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여 치유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오영애, 최명선, 2016). 이는 나와 타자가 주체적인 상호 관계에서 정서를 조절하고 상호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주관적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승희, 2014).

2.2.1. 흥미로운 경험에 시선을 주다

표현예술치료는 신체 동작과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우뇌를 활성화하고 비언어적인 부분을 드러나게 한다(김정향, 2023: 24). 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각자극을 이미지나 신체 동작 및 예술의 비언어적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외상 기억에 접근하는 데 효과적이다(김정향, 2023; 유나래, 2016). McNiff(2017)는 표현예술치료의 시



작에는 모든 인간이 예술적인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타자와 환경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는 곧 창조적 표현으로 연결되어 자기 이해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표현예술 치료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에 대한 통찰은 중요하다(오영애, 최명선, 2019: 47). 이것을 인간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현하고 실현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본능적인 충동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 하였다(Halprin, 1996: 20). 연구참여자들은 매회기마다 제공되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에 호기심을 보이자, 집단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시각 자극과 투사를 경험하는 사진과 그림 카드, 촉각을 자극하는 색 보자기, 무지 인형, 점토, 아이클레이, 먹물, 석고봉대를 비롯하여 미각을 자극하는 과자 등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제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였다. 연구자가 매체의 특성을 소개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작은 탄성을 지르며 신기한 듯 만져보고 비교하기도 하며 자기의 작품 창작에 적용하며 주도적으로 작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점차 상호 소통과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나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면서 새롭기도 하고 좀 기대도 했어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재미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하기 어렵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건 미술 재료로 무엇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연결하는 건 옛날에 안 해본 거라서 어려웠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는 것을 하면서 재밌다는 생각과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재미있게 참여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연구참여자 C, 소감문).

선생님,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의 그림을 고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고른 사진 다 제가 보고 알고 싶어요(연구참여자 G, 5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표현예술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은 현재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언어와 비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신체와 정서를 이완하였다. 심리·정서의 이완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표현 욕구와

언어화 표현이 길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초반, 잠담하거나 장난을 치며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던 산만한 태도, ‘그냥’, ‘아니요’, ‘몰라요’, ‘괜찮아요’, ‘싫어요’ 등 단답형으로 말하며 자기 탐색과 표현을 어려워하며 포기하거나 “왜 나의 감정을 물어요?” 라고 경계하며 화를 내던 반응과 다른 변화를 보였다. 표현예술치료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나 무의식을 표현하도록 도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정성미, 2015). 결과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은 집단원들이 개인 내적인 감정을 외현화하도록 도와주어(Cohen et al., 2009) 집단원들이 과거지향이 아닌 현재의 주체적일 삶에 이르고 심리적 재 외상을 겪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유예요.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프로그램에 특별하게 기대하고 온 건 없었는데 하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건 나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엄청 재미있었어요. 예술 활동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감정을 풀 수 있는 법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하니까 기분도 좋았구요. 내 기분이 속 시원해진 것도 기뻐지만, 프로그램을 같이하니깐 친구들과하고 더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F, 소감문).

나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 아마도 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 지는 거 같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처음 해보는데 신기했어요. 친구들의 마음도 알게 되구요, 계속 참석할 거예요(연구참여자 E, 소감문).

2.2.2. 결핍의 허기를 채우다

상호주관성은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가 표현하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 표현예술치료는 언어표현도 활용하지만, 가장 주된 표현 방법은 비언어적 표현인 미술, 음악, 동작 등을 활용한 은유적 방법이다. 특히 내적 표현을 활성화하는 초기 단계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더욱 효과가 있다(정성미, 2015).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창작활동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들이 비언어적인 은유를 통해 억압한 강력한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중간 대상이 되었다. 이들이



공유하는 중간 영역은 연구참여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고통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정서는 배가하여 진정한 자기 회복을 도왔다(박선정, 2015). Tedeschi & Calhoun(1996)는 심리·정서적인 억압과 고통에서 회복한 개인은 대인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사회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개방이나 타인에 대한 친밀감이 향상되고 상호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한다고 하였다(Park, Cohen, & Murch, 1996; Tedeschi & Calhoun, 2004). 즉,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심리·정서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어 진정한 자기 회복을 이루어야 나와 타자 간 주체적인 상호관계 또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선생님, 선생님 제 것을 보세요. 제집은 위로 굴뚝도 있고 높은 집이에요. 집안에 사람도 있어요. 지붕이 높은 집이에요. 중간에 다락방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앞마당도 과자 부셔서 깔았어요. 여기 다락방엔 사람이 들어 있어요. 보여요?(연구참여자 E, 5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 경험은 연구참여자가 개인뿐 아니라 집단원 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집단원 간 상호주관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자기표현을 통해 내면의 정서를 마주하고 대면한 부정 정서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표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또래 집단원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도, 지나치게 무겁고 심각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에 억압된 정서를 대면하고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표현예술치료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나 무의식을 표현하도록 도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정성미, 2015).

저는 처음부터 집을 만들 때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집 빨리 만들고 친구들이랑 놀러구요. 과자로 집 만들 때 너무 좋았어요. 과자도 먹고, 웃고 만들고 떠들고 같이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저는 예쁜 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사람이 들어오면 죽는 마법의 집이에요(연구참여자 A, 5회기).

집단치료는 집단원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인 예술창작이나 협동작업을 수행하고 함께 공유하며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관계를 경험하며 사회기술 향상을 목적



으로 한다(이혜선, 원희량, 2020). 성장하는 모든 것은 계획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부분이 하나의 기능적인 통일체를 정리하는 시기를 지난다(Erikson, 1963: 270; 박아청, 2010 재인용).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청소년 발달기에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실천의 장을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함께 모여서 또래 관계를 형성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먹을 수 있는 과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표현 매체를 이용하여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의 정화를 느낄 수 있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에서 정서적 욕구 및 사회적 관계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렇듯, 창조적 표현예술치료에 몰입하는 과정은 개인의 내적인 이미지나 생각, 느낌과 감정의 외현화로 주체성의 발현할 뿐 아니라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담아주어 심리 외상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집단으로 진행된 또래 간의 상호관계는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가 미해결된 심리 외상을 지닌 과거지향의 삶이 아닌 현재의 주체적인 삶을 이루도록 한다(Cohen et al., 2009). 연구참여자 B는 석고손 만들기 작업 후, 석고로 손등을 단단하게 감싼 느낌에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이후 B는 간식으로 준비한 꿀을 직접 까서 권하며 친밀감을 보이는 등, 집단원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선생님 깁스 주세요. 깁스. 이거 혼자라도 더 할래요. 깁스 주세요. 이거 빼는 거 문제없어요. 이렇게 우루루루~ 하면서 뺏으면 돼요. 이걸 좋은 손이에요. (흥얼 흥얼) 하하하. (꿀을 까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애들아, 꿀 같이 먹을래?(연구참여자 B, 10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집단원들이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집단상담의 치료요인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응집력과 초기 가족의 교정적 체험 등과 같은 변화는 인간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이다(Yalom & Leszcz, 2005, 2008).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적합하며 집단원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무조건적 수용과 지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임숙, 2016: 110).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은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



서 석고손 작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돌봄 활동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긍정 정서도 많이 느끼고 표현도 자연스러워졌다. 연구참여자 A는 F와 짝이 되자 포옹하며 친밀감을 표현했고 서로의 석고봉대를 여러 번 덧대어 곱고 단단하게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A는 조금 늦게 도착한 D를 보자 일어나 꼭 안아주며 D의 석고손도 자신이 해주겠다며 집단원과의 상호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쉬는 시간에는 마주 앉아 곱을 까서 D의 입에 먹여주며 친밀감과 유대를 가지고 서로에게 걸핍된 애착 욕구를 충족하고 보듬어 주었다.

선생님 제가 위스키 손 깎스해줘도 돼요? 내가 곱도 까줄테니까 이거 먹어. 나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하하(연구참여자 A, 10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석고손 작업에서 애착 형성과 돌봄이라는 상징적인 상호관계를 경험하며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상호관계를 시도하며 유대감과 응집력을 향상해 나갔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형성된 이러한 응집력은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고 집단원이 가진 공통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하는 가운데 유대를 쌓으며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도록 돕는다. 이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치료적 요인이 되어 더욱 강한 집단응집력을 형성하게 된다(이임숙, 2016).

3. 회복으로 화해함

상호주관성은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치료자와 집단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과 지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Stem, 1985). 이러한 공감은 집단 활동을 통해 표현되는 리듬 즉, 분위기, 소통하는 기간, 집단 내 활력 등을 함께 맞춰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집단원 간 치료 동맹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정서에 온전히 집중하고 공감하며 함께 함을 뜻한다(오영애, 최명선, 2019). 이주와 분리의 문제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이들의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발달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겪는 외상 경험은 이들의 심리·정서 문제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자아존중감이라 할 수 있다(길은영, 2022). 중도입국청소년이 이주와 분리 과정에서 경험한 상실에 관한 심리 외상을, 예술창작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외상 기억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이 된다(전태옥, 2016). 표현예술치료는 개인의 내면 성장과 외형의 역량 강화에 효과적이므로(Cohen & Carr, 2011; Collie et al., 2006)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는 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외상 경험의 기억을 재구조화하고 새롭게 통합하게 된다(서현주, 2023). 결과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은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탈피하는 희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어 자신이 바라는 어떤 이미지를 창작함으로써 회복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Malchiodi, 2010).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을 통하여 심리 외상을 회복하고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여 자신을 둘러싼 타자와의 개인적 환경적 상황에서 상호관계를 이루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이승희, 2014; 한전숙, 1987; Husserl, 1989)를 통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였다.

3.1. 공유된 애도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공감과 지지를 받는 상호주관적 경험에 집중할수록 자신과 타인이 경험하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통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 공감과 지지를 통한 집단원과 집단원 간, 치료자와 집단원 사이의 라포 형성은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집단원의 변화를 촉진하는 치료요인이 된다(박정, 장현아, 2015; Wampold, 2001). Travathen(1998)은 나와 타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두 마음의 공유영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공유영역은 발달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으로 공유영역을 필요로 한다(Wallin, 2019: 154).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이주와 분리의 공유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애도 과정은 자기 내면의 상처를 대면하고 분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길은영, 2022). 이들이 상처를 대면하고 표출하는 감정은 분노, 공허감, 불안 슬픔 등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애도 과정에서 감정표출은 꼭 필요하다(Massat, Moses, & Ornstein, 2008). 이들이 경험한 상실에 대한 심리 외상은 주체의 소멸과도 같은 것으로 이를 위한 애도 작업은 “죽은 자를 산 자로 동일화하는 대신, ‘지금 여기’ 로 그들을 불러와 그 활동에 필요한 의미 있는 자리/장소를 제공하는 환대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최현식, 2021: 479).

3.1.1. 깨어진 마음을 감싸 안아준다

상실에 대한 애도는 기억을 통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기억이 없다면 애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Derrida, 1986: 34). 애도란 상실한 것과 계속 교감하기 위해 그 동일성으로 그대로 소유하려는 시도 대신 상실한 것에 대한 타자성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임태연, 2021). 즉, 상실한 것을 애써 지우고 잊기 위해 애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상실한 타자를 기억하는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상실한 것에 대한 기억을 위해서는 그 타자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애도란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존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백미화, 2023: 86). 타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애도는 주체적이며 상호주관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표현 예술치료를 통해 비자발적인 이주와 분리의 과정에서 경험한 상실에 대한 타자성을 인정하며 애도하는 것은,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자신의 주체성을 발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주관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건 눈물방울이에요. 나는 이걸 만들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쉬워야 해요. 여기 한국에 와서 너무 어려운 것은 잘하지 못해요. 러시아에서는 문제없었어요.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연구참여자 E, 4회기).

연구참여자들의 한국 입국은 대부분 부모의 결정으로 비자발적이고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주와 분리는 공통 주제임에도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주제였다. 그러나 표현예술 매체를 통하여 이주와 분리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억압된 정서를 안전하게 대면하고 표현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내면의 억압된 기억과 정서를 표출하고 통합하고자 색상지와 신문지를 찢고 뭉치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 후 종이 뭉치를 색 보자기에 감싸주며 수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저마다 이주와 분리 당시의 기억을 꺼내며 감정 뭉치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단단히 고정하는 연구참여자, 색 보자기 매듭을 반복하여 묶으며 상실한 관계를 연결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 하트 스티커를 가득 붙여 결핍된 애착 욕구를 보상하려는 연구참여자, 눈물방울을 만들어 이주 당시 불안과 슬픔을 표현한 연구참여자, 감정 보따리를 쥐고 힘없이 흔들며 생각에 잠기거나, 말없이 감정 뭉치를 연구자의 눈앞에 내밀어 자신의 아픔을 보이는 연구참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실을 공유하고 애도하며 이주와 분리의 기억을 다루었다.

이거 내가 카자흐스탄에 살 때 내 쌍둥이 여동생들의 요람을 흔드는 것 같아요. 아기였을 때 내가 많이 흔들어 줬어요. 나는 빨리 어른 돼서 일하고 싶어요(연구참여자 G, 4회기).

이건 회색이에요. 나의 감정이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요(연구참여자 C, 4회기).

나는 여기 살면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일이 힘든 건 괜찮아요. 가족들, 친척들이 모두 모여 함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친척들이랑 떨어져서 살아요(연구참여자 D, 소감문).

연구참여자들에게 표현예술치료 과정은 이들의 고통을 마주하는 안전한 장이 되

었다.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껏 꺼내어 보고, 상실에 대한 내면에 억압된 부정 감정도 안전하게 표출한 후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현재 자기 삶에서 바라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기성찰과 타인의 지지 등의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와 타자 및 세상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게 되었다(Taku, Lawrence, Calhoun, & Richard, 2008). 이때 집단표현예술치료는 이주와 분리라는 공통된 문제를 가진 연구참여자들이 보편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집단역동을 경험하는 유용한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Yalom & Leszcz, 2005).

3.1.2. 눈감아야 보이는 고향을 추억하다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은 예술창작 경험과 신체활동을 통해 비언어적인 표현과 활력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집단원 간 공감과 지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Stem, 1985). 내담자가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이러한 상호주관적 관계에 집중할수록 상황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내담자는 공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인식하고 통합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경험의 의미이다. 자신이 경험한 의미가 자기 내면에서 재조직되며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공동으로 창조되고, 이는 다시 각자의 삶 속에 수용되고 통합하게 된다(Schore, 2007). 연구참여자들은 이주와 분리 과정에서 경험한 억압된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고 담아주는 회기를 마친 후 이주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적 자원을 탐색하였다. 자신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징검다리에 놓아 넓은 물을 건너는 활동이다. 연구참여자 G와 B는 말 모양 인형을 빠르게 집어 들었다. A는 양면이 다른 물고기 인형을 만들었으며 C는 토끼 인형을 선택하고 어떻게 꾸밀지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E는 사람의 몸에 동물의 머리를 한 인형을 골라 아프리카 고대 마스크로 꾸몄고 F는 진지한 탐색 후 자신을 고양이에 비유하였다. 자신의 내적 자원을 탐색할 때, 가족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B와 G, 민족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E,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을 재인식하는 C와 과 F,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며 삶에 대한 도전에 실천하고자 하는 A 등, 자신의 과거를 통해 현재에 통합을 이루고 집단원 간 공감하고 지지하며 상호주관성을 형성하였다.



나는 보라 물고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카자흐스탄에서 화가여서 나는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미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미술을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잘 잊어버리는 약점이 있어요. (연구자: 그것에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아하~나는 잘 잊어버리는 데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적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뭐 새로 시작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뛰어드는 제스처) 나는 물고기니까 바로 바다를 헤엄쳐서 건널게요!(연구참여자 A, 6회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카자흐스탄에서 먹은 러시아식 말고기 쏘시지예요. 카쯔라고 해요. 가쯔, 가쯔. 나는 이 요리도 만들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B, 6회기).

나는 굉장히, 크고 멋진 러시아 전통 집 이즈바에서 온 가족이 살았어요. 지난번에 과자로 만든 집처럼 생긴 그런 집이에요. 러시아는 문학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음악회 공연 같은데도 갔어요. 여기서도 너무 비싸서 못 갔어요. 나는 이런 위대한 나라에서 왔어요!(연구참여자 E, 6회기).

주체와 주체가 상호주관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나와 타자의 상호주관적 체험의 시간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며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미지나 상징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때 상호주관성을 형성한 주체와 주체는 자신과 현실 세계를 볼 수 있고, 공동체 의식 혹은 공동체적 자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호주관성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라 할 수 있다(이승희, 2014; 한전숙, 1987; Husserl, 1989).

나는 카자흐스탄에서 요리를 해봤어요. 말고기로 만든 음식을 요리예요. 할머니가 알려 주셨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악수를 청하며) 이 인형은 나예요. 나는 한아타, 이건 두아타 이 말은 작은 한아타예요. 하하하하(연구참여자 G, 6회기).

하얗게 그린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 그린 노란색은 반딧불이에요. 고향에서 반딧불을 본 적은 없지만, 동굴 속에 빛나고 있는 반딧불을 그려 넣었어요. 아까 친구들과 활동하면서 밴드를 뒤집어쓰고 누워있을 때 동굴 안에서 반딧불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고향에 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연구참여자 B, 8회기).

연구참여자들은 모국의 문화를 추억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내적 자원을 자랑할 때 연구자가 이해하도록 한국어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상호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징검다리에서 위치를 달리하며 각자의 인형을 놓아 이주라는 강을 건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기반으로 저마다 다른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후 집단원들은 자기개념을 새롭게 확인하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악수로 서로를 인정하고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등, 유대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회기를 마친 후에도 교실에 남아서 함께 놀다가는 등 점차 상호관계가 돈독해졌다.

3.2. 서로에게 보이는 우리

나와 타자의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감정이입이라 하며 주체가 타자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만약 내가 저기 있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인 요소이다(박인철, 2015).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이입이 중요한 이유는 타자를 나와 같은 주체로 인식하기 위해 나 자신과 타자 간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을 바탕으로, 유비적으로 경험하거나 유추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감정이입은 타자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Husserl, 1989).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상호주관성은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며 내담자가 개인의 내적 경험을 탐색할 때 치료사의 역할은 내담자의 내적경험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 혹은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Bowlby, 2009). 감정이입은 공감과 어원을 같이 하지만 타자를 지각하는 인지적인 요소를 부각하며 타인 경험 혹은 타인 이해라고 지칭한다(이남인, 2006). 타자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의식은 감정이입을 통해 타자를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여기며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되며 이는 타지지향성의 의미를 함축하며 이는 상호주관성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3.2.1. 서로의 빈 마음에 손 내밀다

Trevarthen은 나와 타자가 함께 하는 삶이란 공감적 상호주관성을 통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라 하였다(Diana et al., 2013). 집단표현예술치료의 비언어적 표현



예술 매체는 은유와 상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점토 작업을 통한 집단원 간 상호 소통은 예술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촉진하며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경험한 의미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은 자기 존중, 자기 인식,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힘을 갖는다(Forestier, 2013). 따라서 자신뿐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참여자들은 점토를 매개로 상호 소통하고 보완하였다. 자신의 아바타 만들기에서 무른 성질의 점토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어려움 없이 빚어가는 연구참여자, 회기가 중반에 이를 때까지 점토를 움켜쥐고 바라볼 뿐 작업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 많은 양의 점토로 큰 작품 창작을 원하거나 반대로 섬세하고 세심하게 묘사하고자 몰입하는 참여자 등, 자기를 탐색하며 다양하게 작업하였고 작품을 통해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작업을 마친 후 서로의 작품을 탐색하여 마음이 가는 것을 선택하여 작품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며 상징과 은유를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연구참여자 B가 한동안 작업하지 못한 채 마지막에 중앙이 텅 빈 사각형 프레임을 만들자, E가 프레임의 거친 들레를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사각 프레임에 원뿔 모양의 징을 붙여 화려함을 더해 주었다. F는 B의 사각 프레임에 철사를 넣은 하트 고리를 만들어 단단하게 붙여주었다. B는 연구참여자에게 의해 다듬어지고 보완된 자기 작품을 바라보고 이전보다 멋지고 좋다고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다. G는 점토로 자동차를 만들었고 자동차 휠이나 창문 프레임, 자동차의 엠블럼까지 점토를 얇게 비벼 붙이는 등 정교한 작업을 하였다. G는 자기 작품을 혼자 만들고 싶다고 집단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집단원들은 G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만든 것보다 멋있어졌어요, 심장 소리가 전해지는 포털이에요(연구참여자 B, 9회기).

내가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좋아하는 차가 벤츠 630이라서 그 자동차를 만든 건데 친구들이 만져서 마티즈를 만들까 봐 교환하지 않았어요. 하하하(연구참여자 G, 9회기).

Stem(1985, 2000)은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조율 과정은 내가 타자가 느끼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을 느끼도록 해주고, 공유된 경험을 타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이라 하였다(David J. Wallin, 2007). 즉, 나와 타자 사이에서 감정의 공명이 생기고 다시 전달되는 이중 과정이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이러한 정서 조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공감적 조율을 통하여 내담자가 정서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생생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단원들이 서로 잘 맞추어진 정서의 흐름 속에서 공동 조절되며 집단 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을 좀 더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조희진, 2023). 점토 작업에서 연구참여자 D는 확실치 않은 인생의 불안정한 정서를 지닌 채 지구본을 만들었다. 말하지 않았으나 D의 지구본을 본 C와 A가 하트 기둥과 뚜껑, 받침대 등을 보완하여 난로를 만들어 온기를 느끼도록 해주었다. C는 자신이 좋아하는 농구 골대를 만들자 이를 본 A가 농구 경기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 C는 자신이 좋아하는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준 집단원들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연구자에게 낯짜를 물으며 종결을 아쉬워하였다. G와 E는 팔다리가 없이 누워서 자는 F의 강아지에 팔과 다리에 활력을 주었다. B는 눈을 감고 있는 F의 강아지에 눈썹과 눈을 만들고 옷을 입혔다. F는 집단원들이 변화시켜 놓은 자기 작품을 보고 또렷하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만족하였다. 집단원들은 작품을 통해 돌봄과 지지의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 이해가 깊어졌다.

우리의 인생이 서커스와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스릴이 있고 모험을 하게 되는 확실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친구들이 난로로 만들어 주어서 따뜻하게 느껴져요 (연구참여자 D, 9회기).

나는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대를 만들었고 친구들이 사람을 만들어 줘서 농구를 하는 모습이 더욱 사실 같아졌어요. 친구들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제목은 농구 스포츠라고 지을래요. 그런데 선생님 이 프로그램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C, 9회기).

나는 강아지를 만든 건데 애들이 돼지로 만들어 냈네? 하하 그래도 눈썹이 있고 눈뜨고 있어서 인상이 또렷해 보여요. 팔다리가 생겨서 힘도 있어 보여요. 재밌어요(연구참여자 F, 9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예술창작 활동의 목표는 예술 작품 만들기가 아닌 활동 그 자체로 예술 매체와 자신이 연결되고 공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수용하며 인내심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Mess-Christeller, 2004). 점토 작업에서 집단원 간에 창작물을 교환하여 작업할 때, 아동·청소년의 경우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타인의 작품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조심스럽게 시도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고 작품의 의도에 맞게 보완하거나 확장하며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는 상호주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3.2.2. 소외된 내가 아닌 안아주는 우리가 되다

상호주관성은 두 주관의 대칭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는 인격적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심리적 결속력을 가지는 공감적 관계이다(윤수진, 2022). Kohut의 자아 심리학에서는 공동참여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유대 경험으로 상호주관성을 정의하며, 주체와 주체가 상호 작용을 하는 경험 세계에 의미를 두었다(최영민, 2014).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표정과 행동 및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프로그램 초반에 무표정하고 무기력한 모습 혹은 반항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으로 서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호작용에 수동적이었던 태도가 변화하여 긍정 정서 표현 및 연구참여자 간 소통이 증가하였다. 연구자가 인사를 건네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태도가 변화하여 연구참여자들은 교실을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집단에 안정감과 소속감을 보이고 정서적인 친밀감도 증가하였다. 이밖에, 연구참여자 간 대화 주제도 변화하였다. 프로그램 초반, 특정 연구참여자를 비웃고 조롱하며 자신의 기분을 환기하던 모습이나 피상적인 대화로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던 대화가 점차 또래 관계의 고민과 관심사를 개방하며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 술, 담배, 이성 관계 등에서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연구참여자를 걱정하거나 조언을 건네는 등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며 집단원 간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장해 갔다. 이는 정체성 형성 시기의 청소년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는 주도성을 나타내며 개인의 주도성(기희경, 2022)이 집단 전체의 상호주관적 관계로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너희들 새해 어떻게 지낼 거야? 우리 새해 파티에는 술은 없을 거고, 굶, 고기 먹고, 차 타고 새해맞이 할꺼야(활동 녹화영상).

너 동생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해. 피우지 말라고 해. 너도 이제 술 마시지 좀 마. 너 이제 방치된 건물로 가면 안 돼(활동 녹화영상).

프로그램 초반 잦은 두통을 호소하며 집단원들과 소통을 꺼리며 자리를 비우거나, 프로그램 과정에서 낮은 소리로 연구자를 비아냥거리던 연구참여자 D는 점차 웃음이 많아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며 집단원들과 대화가 늘어나고, 회기를 마친 후 교실을 함께 정리해 주는 등 협조하며 상호관계가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에 늦을 경우, 치료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미리 알리거나 자신들의 문화를 설명해 주며 연구자의 이해를 돕는 등,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갔다.

나는 친구들 깁스한 거 보고 손이 깨진 줄 알았어요. 하하. 내 석고 손을 만들 때 나는 내 손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만 움직이고 싶어 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굴민우'가 깁스도 해주고 굶도 먹여줘서 끝까지 재밌게 했어요. 나의 작품을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활동을 해서 기분이 좋아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작업에서 나는 온 천처럼 따뜻함을 느꼈어요, 차를 한잔 마시고 싶어요(연구참여자 D, 10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주체성을 발현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집단원 간 상호주관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연구참여자들도 정체성을 재확립해 나가는 모습은 다양하여 초기 단계부터 자기 탐색과 표현에 흥미를 보이는 연구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소통을 거부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프로그램이 집행되어 감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서로의 모습을 거부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집단의 역동을 만들어갔다. 이는 집단 내에서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주도성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기희경, 2022).

4. 부유(浮遊)하지 않는 유목

상호주관성은 두 주체의 주관성이 만나 공동의 의미가 창조되는 공유영역에 핵심적인 의미를 둔다(Trevarthen, 2001). 공유영역은 나와 타자가 상호 인식의 전환이나 언어 이전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여 공동의 의미 창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Wallin, 2010). 발달심리학 관점에서는 상호주관성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김성동, 1993) 즉,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생득적 능력이라 하였다(Aron, 2006).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나와 타자와의 공유영역에서 공동의 의미를 찾는 주체적 존재로 상호주관적 관계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최이선, 2016). 연구참여자들이 상호주관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만나는 타자와 공동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접침의 영역을 확장하며 개인의 안정적인 정체성 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탐색과 자기 인식 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지 혹은 부정하는지 여부인 자기 수용성을 통해 알 수 있다(박아청, 1996). 연구참여자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청소년으로서 활기를 되찾아 갔다.

4.1. 나의 나이를 찾아감

Trevarthen은 나와 타자가 함께 하는 삶을 위해서는 공감적 상호주관성을 통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라 하였다(Diana et al, 2013). 공감적 상호주관성은 감정의 공명이 일어나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내가 타자에게 느끼는 것을 유사하게 느끼고, 공유된 경험을 타자에게 다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다(David J. Wallin, 2007). 이러한 상호 조절은 개인 내적인 것과 타인 관계를 통한 조절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치료자가 공감적 조율을 통하여 내담자가 정서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생생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Schore, 2009).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은 집단원들은 서로 잘 맞추어진 정서의 흐름을 공동으로 조절하는 가운데 공유된 사건은 좀 더 충분히 경험된다(조희진, 2023).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시도하며 관계에 대한 역량과 수용성을 나타내었다.

4.1.1.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다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은 나와 타자가 주체적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의 의미를 형성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은 나와 타자의 공유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언어 이외에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고 창조적 연결과정을 통해 표현을 촉진하며 의미를 창조해 간다. 이에 더하여 치료사와 집단원 간 치유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경험한다(Stem, 1985). 따라서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은 나와 타자가 공동의 의미를 확장하여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치료의 장이 되며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인식하고 통합하며 재조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에서 새로운 의미가 공동으로 창조되고 집단에서 개인이 경험한 사건은 다시 각자의 삶 속에 수용되고 통합하게 된다(Schore, 2007).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탄력밴드 신체활동에서 경험한 다양한 감각자극과 유대감을 경험하며, 잊고 지냈던 각자의 본모습을 찾아갔다. 고향을 반딧불을 상상하며 고향에서 역동적이던 자신의 본모습을 기억한 연구참여자 B,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린 A, 자기 내면에 크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확인한 E, 함께 부대끼며 시간을 보내는 집단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한명 한명 얼굴을 확인하는 G 등, 연구참여자들은 탄력밴드 안에서 태아 자세로 웅크린 채 누워,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는 경험을 하였다.

내 마음에 뭔가 우주에서 큰 혜성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느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요(연구참여자 E, 8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예술창작 활동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심리·사회적 경험의 장을 제공하여 자기 인식과 표현뿐 아니라 또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작품을 다른 집단원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을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실천을 통하여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자기 삶의 형식과 사회의 가치를 찾아 주체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김미란, 1996). 연구참여자들은 자기개념에 대한 내적인 역량을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유

대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해 나가자 자기 수용과 자기 인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상호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을 그리는 손 모습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런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분이 좋고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요(연구참여자 A, 10회기).

내 석고손 트로피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친구들이 Good! 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챔피언 트로피를 받을 거예요(연구참여자 G, 10회기).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나와 타자 상호 간 다양한 언어·비언어적 대화와 소통으로 감정 이입하였다. 이는 서로의 불일치와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Ricoeur, 1995)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

4.1.2. 당당하게 나의 자리를 누리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주체들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 증상 해소에 관심을 두는 돌봄도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적인 발달과제와 더불어 주체와 주체가 자신에게 적절한 삶의 방법을 성취하기 위해 상호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Husserl은 관계성을 설명할 때, 동일한 사태라도 주어진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태를 그 배경 또는 대상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상황과 사태를 해석할 때는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Husserl은 주체와 주체가 동등한 구조를 가지는 상호주관성을 강조하여, 타자가 배제된 주체가 아닌 나와 타자 간 관계성에 근거한 상호주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였다(이화도, 조희연, 2018).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모습은 활기가 생기고 태도가 당당해졌다. 집단원 간 안부를 물으며 유대감을 보이고, 간식을 먹는 데도 눈치를 보거나 혼자 먹으려고 경쟁적으로, 양손으로 움켜쥐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늦게 도착한 다른 집단원의 몫을 서로 챙겨주고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간식을 준비할 때 기호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참여자들이 집단표현에



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자기 결정력(기희경, 2022)이 향상된 것으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며 주체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에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 상호주관적 체험이란, 이들에게 자신 그대로의 표현을 함께할 대상이 존재하고 자기표현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태완, 2014). 집단의 상호주관적인 관계성의 변화는 연구참여자들의 행동에도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에서 가방을 메고 내려놓지 않으며 경계하던 연구참여자들은 가방뿐 아니라 지갑과 핸드폰 등 개인 소지품을 모두 교실에 두고 다니는 등 집단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집단원들을 신뢰하였고 프로그램 활동 중에는 핸드폰을 넣어두는 등 스스로 집단의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집단을 존중하며 수용하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언제 올 거예요? 선생님 저는 새우 못 먹어요. 내 종교가 무슬림이라서요. 새우 빼주세요(카톡 대화).

선생님 나는 치즈 치킨을 먹고 싶어요. 치킨에 치즈 뿌린 거예요. 그거 사주세요 (연구참여자 A, 11회기).

선생님 저 위스키예요. 치과 치료받고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할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D, 전화 통화).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서로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상호인정하며 관계성을 이루어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를 자신의 SNS에 팔로잉하며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유해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욕을 섞어 말하는 집단원의 태도를 지지하거나 순화된 한국어 표현을 알려주며 집단의 관계성을 욕설과 조롱 혹은 비웃음이 아닌 상호인정 하고 순화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자신이 결정하기 어려운 판단을 연구자에게 묻고 도움을 요청하며 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G는 집단원에 대한 인식과 유대감을 ‘계단을 걷고 있는 사람들 사진’으로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초반,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 왜 남을 생각해야 하는지, 나만 잘하면 되는데 왜 남이 필요한지 등 타자와의 상호 관계를 거부하던 태도는 연구참여자들의 장점을 인식하고 관계를 존중하는 상호주관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프로그램 초반 타인과의 상호 소통에 위축되거나 현실 대면을 회피하는 모습, 특정인과의 소통하는 모습, 집단의 상호작용에 무관심하거나 정색하며 거부하던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집단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 어른인 듯 행동하며 늘 피곤함을 호소하던 모습, 과장되고 피상적인 소통 등 청소년 발달기의 건강한 상호주관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웠던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에 참여하면서 점차 청소년의 모습을 찾아갔다. 어른인 듯 행동하던 연구참여자는 조금 더 청소년다워지고,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게 반응하던 연구참여자는 조금 더 성숙하고 안정된 정서와 태도를 보이며 점차 상호주관적인 정서와 태도를 보이며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표정이 밝아지고 활기를 띠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학교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만날 때마다 포옹하거나 서로의 작품에 관심을 두고 질문하고 타인에게도 관심이 증가하고 서로에게 친밀감을 보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켰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집단의 상호 관계를 스스로 만들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스스로 책상 배열을 옮겨 놓는 등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주체성을 발현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관계를 이루었다.

이 사진에서 힘이 세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나예요, 다음 사람은 머리가 좋은 제키찬, 다음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스파이도맨, 마지막 내려오는 사람은 다리가 빠른 배트맨이에요. 우리가 같이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연구참여자 G, 9회기).

선생님 제가 알바 계약하려는데 인터뷰는 잘했지만 잘 안됐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Sign 전에 선생님께 물어볼게요(연구참여자 E, 카톡 대화).

연구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변화는 청소년기의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주장을 인지하고 실천하려는 목표 지향성을 나타낸다(박아청, 1996).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재정립된 자아정체성을 기반으로 나와 타인을 서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신뢰하는 경험 속에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4.2. 품이 넓어진 성장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 형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발달기 특성에 집중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단계라는 생애 발달기 특성을 경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이 시기는 청소년이 성인으로 자립하기 위한 독립심과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공존하는 시기이다(이동열, 2023). 그러나 청소년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는 달리 심리적으로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여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Arnett, 1999).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와 미래 방향에 대한 일관된 자기개념, 즉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를 안게 된다(Erikson, 1968: 87). 연구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발달과제를 어떻게 이루며 성장하는지에 따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주체적인 상호주관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이주 배경, 문화, 종교, 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이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지속해서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체와 주체가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에서 문화적인 차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공감이나 상호작용을 이끌어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중간 영역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창조적 작업은 큰 의미가 있다.

4.2.1. 미래에 대한 숨은 소망을 꺼내어 보다

Copjec(2002)은 개인이 주체성을 발현하는 것은 외부의 타자보다 우선하여 자신 안에 있는 타자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때 나와 타자의 중첩된 모습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고는 주체성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김은정, 2020). 그러나 상호작용의 의미에는 비단 타자와의 관계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이란 내가 나 스스로와 맺는 관계의 중요성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초반의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과는 달리 저마다의 미래를 꿈꾸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주 후 경험한 다양한 문화 차이, 언어소통의 제약, 종교와 가치관에 대한 편견 등을 경험하며 좌절하였다. 그러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표현예술 매체와 신체활동은 연구참여자들의 창조성을 자극하였으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진로나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신으로 목표를 설정한 후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박아청, 1996).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자기 탐색과 이해를 통해 자기의 내적 역량과 소망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또래 관계에서 신뢰감과 유대감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얼마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토픽 시험 보고 지금은 바쁘지만, 한국에 와서도 미술학원에 다니다 그만뒀는데, 계속하고 싶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요(연구참여자 A, 11회기)

나는 처음에 패션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비즈니스맨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연구참여자 E, 12회기).

내가 만든 나무는 사쿠라예요. 나무의 씨앗에는 안 아프고 싶어요. 라고 썼어요. 나는 사쿠라를 좋아해요. 내가 꽃 피어서 그런 나무 되고 싶어요. 안 아프고 싶어요. 요즘은 좀 바쁘고 내년에 토픽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공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지금은 알바를 해서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서 바빠요. 저는 인터넷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연구참여자 D, 11회기).

나는 운동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어제도 운동 연습 늦게까지 해서 조금 피곤하지만 오래 생각하고 운동선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연구참여자 G, 9회기).

상호주관성은 두 주체의 주관성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공유영역에서 공감적 관계 맺음을 통해 공동의 의미가 창조되는 것이다(Trevarthen, 2001). 상호주관성은 나와 타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고, 언어 이전의 경험까지 다룰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Wallin, 2010). 표현예술치료란 창조적 예술과 치료적 작업을 통합한 심리치료이며 창조적 생명력을 깨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표현예술치료는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통해 집단원들이 창조성을 경험하고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



는 지지적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작, 드로잉, 회화, 조소, 음악, 글쓰기, 소리, 즉흥극, 시, 영화 등을 이용한다(Rogers, 2007).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비언어적 표현예술 매체와 신체 동작 활동을 이용해 집단원과 상호작용을 하며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 이상으로 가치가 높은 경험을 하며 자기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였다(Stein & Glenn, 1982). 자기 내면을 탐색하고 더불어 환경에 반응하는 자신을 이해하며 타자를 포괄하는 환경에서 삶의 태도와 목표를 설정하며 주체성을 확장하고 성장을 도모하였다.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거 같았는데 이걸 뭔가 화악~ 열리는 거 같고 속이 시원했어요. 애네들도 더 알고 친해져서 좋았어요. 저는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싶어요(연구참여자 F, 12회기).

나는 카자흐스탄에 살 때 13살 때부터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녔고 10년 동안 하키를 했어요. 밴드가 흔들릴 때 모터사이클 타던 기억이 나서 좋았어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침착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연구참여자 B, 집단인터뷰).

나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저번에 밴드 활동은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나는 불안을 느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부끄러워서 잘 안 해요. 나는 평소에 편안하면 말을 잘하고 표현도 하는데 불안하면 잘 말하지 않아요.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계획이에요. 선생님 다니는 학교에 갈게요 OO대, OO대 (씨익)(연구참여자 C, 8회기).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와 종교 및 다양한 내면의 가치 등의 개방과 더불어 긍정 정서뿐 아니라 내면의 억압된 부정 정서 또한 안전하게 표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확장하고 상호 신뢰와 지지를 보이며 자기 삶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획하였다.

4.2.2. 이어짐에 대한 신뢰의 씨앗을 심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경계에 존재하며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편입된 동시에 기존사회에 대한 거부와 자신의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역동성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을 보는 관점 역시 모국과 한국 사회의 이중문화에 적응하는 사회적 존재임과 동시에 개인의 삶을 확장과 새로운 탐색을 시도하며 주체성을 실천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중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성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회피보다는 대면하는 것, 자신이 생각한 것을 선택하는 실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주체성 발현이라 할 수 있다(김명수, 고진호, 2022). 이들이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탐색 및 인식과 더불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유연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표현예술치료가 진행될수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타자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며 상호주관성을 형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종결 시 “선생님이 다시 오세요”, “우리과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요” 등 집단에서 공유한 상호 관계와 경험을 회상하고 아쉬워하였다.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연구자의 품에 한참을 안겨있던 연구참여자 A, 연구자와의 애착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는 B, 유머와 여유를 보이며 자신감을 찾은 C,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D, 과자를 선물하며 마음을 표현한 E,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연구자를 존중한 E, 강한 힘으로 연구자를 안아준 G 등 자기의 모습대로 작별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선생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다음에도 하면 참여할 거예요. 수업은 좋았는데 끝나서 아쉽네요. 선생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우리 모습대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연구참여자 G, 집단인터뷰).

선생님 혹시 이런 거 먹어요? (가방에서 뽀빠로 한 통을 꺼내서 건네주며) 나는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하면서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또 오세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해봤어요. 다음에



는 우리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짜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연구참여자 E, 집단인터뷰).

중도입국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중재적 개입은 기관의 의뢰가 있으면 단회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단원의 연령이 혼재되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발달기 특성을 반영한 중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서현주, 오영섭, 2022: 274). 연구참여자들에게 보호요인이 되는 학교 내에서 한 학기에 걸쳐 일관되고 안정감 있게 집단의 형태로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창조적 활동과 초기 가족의 교정적 체험(Yalom & Leszcz, 2005, 2008)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 연구참여자들은 집단치료의 치료적 요인을 통하여 타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체성을 발현할 동기와 기회를 얻게 된다(이임숙, 2016).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신뢰감을 가지고 종결을 준비하였다. 타자와 환경에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던 자기개념과 상호 소통의 의지가 변화하고,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주체적으로 표현하며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자 자기의 미래 희망을 위해 도전할 의지를 보이게 되었다.

(연구자: 프로그램 동안 변화했거나 성장한 부분은?) 내가 키는 조금 컸나? 하하하 새롭고 신기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의 감정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나를 알게 되니 친구들과 지내면서 내 행동도 알게 되고 친구들과 친해졌어요(연구참여자 C, 집단인터뷰).

표현예술치료 창조성의 주요 동기는 인간이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현하려는 경향과 유사하며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본능적인 충동인 치료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Halprin, 1996: 20).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은유와 상징을 통한 창조적 작업에서 자기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였다(Stein & Glenn, 1982).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나와 타자를 존중하며 주체적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5. 소결

이 장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주관성의 과정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4개의 상위 범주 ‘어디에도 없는 나’, ‘겹침으로 스며듦’, ‘회복으로 화해함’, ‘부유(浮遊)하지 않는 유목’ 과 8개의 하위 범주와 16개의 의미 단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상호주관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어디에도 없는 나’ 는 연구참여자들이 낯선 환경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느낀 소외감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담감과 갈등을 경험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면에 억압하고 새로운 관계의 연결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Husserl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주관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참여자들이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겹침으로 스며듦’ 은 연구참여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에서 시작해, 점차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내면을 탐색하고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셋째, ‘회복으로 화해함’ 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기 회복과 타인과의 화해를 경험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유된 경험과 애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되었다. 이 범주는 표현예술치료가 이주와 분리의 특성을 가진 개인의 심리적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부유(浮遊)하지 않는 유목” 은 연구참여자들이 자기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더 넓은 사회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겪은 다양한 경험과 그 의미를 통해, 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얻은 상호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 연구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치료와 성장의 장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적응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는 실천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VII.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다문화사회로 도래한 우리 사회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특히,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였다. 이 절에서는 요약, 논의 및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요약

세계화의 주요 현상인 국제 이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현상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국제 이주로 인한 다문화 현상에서 야기되는 인종적 다수집단과 소수 집단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가운데 한국 사회의 사회구성원들이 이루어가는 사회 내 통합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 유형인 중도입국청소년은 대부분은 모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다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비자발적이고 준비 없는 이주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들에게는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고향과 친구들과의 준비 없는 이별 경험으로 인해 상실과 애도에 대한, 해결되지 않고 억압된 정서가 있다. 이러한 억압된 정서는 이주 후 새로운 가족과 이중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언어소통의 제약과 맞물려 부적응을 초래하며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이 연구에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주목한 것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때문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과 관련하여 이들은 비자발적 이주와 분리의 과정에서 억압된 정서 등 미해결된 과제를 지닌 채 올바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개념을 인식하며 내적 가능성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심리 내적인 어려움인 부정 정서의 문제와 외현적인 부적응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체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상호주관성 측면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감적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체성을 발현하여 학교생활 적응 및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어떠한가?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I장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의 및 현황과 특성, 상호주관성에 관한 담론을 다루고 집단표현예술치료,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III장은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연구 개요와 연구 절차, 연구참여자, 자료수집 및 분석과 연구 윤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개요는 이 연구가 중도 입국이라는 이주와 분리의 공통적인 맥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을 상호주관성 관점에서 탐색하는 연구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하였다. 연구 절차는 사례 설계 단계는 관련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집단표현예술치료 1차 프로그램을 구안 후, 3인으로 구성된 1차 전문가 평가⇒자료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IRB 심의승인⇒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한 사전 기관 회의 및 연구참여자 선정⇒1차 프로그램 진행 후 3인으로 구성된 2차 전문가 평가 및 프로그램 수정⇒프로그램 최종안을 확정⇒연구참여자 연구 동의서 작성⇒본 프로그램 진행⇒자료수집⇒자료 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인원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들이 연구 동의를 구한 이후부터 시작하였고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참여자들의 예술창작 활동 결과물인 예술 작품 사진, 소감문, 녹화영상물, 집단인터뷰, 연구자 노트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회기별 예술창작품과 자기 서사를 기술하였고, 사례 간 분석을 한 후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윤리는 IRB 승인 후 동료 검토법, 삼각 검증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V장은 연구 문제 1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개요, 목표, 구성,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수도권 A 고등학교의 중도입국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회기당 100분으로 총 12회기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개요에서 프로그램의 목표 및 설계모델 원리를 기술하였고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구성과정과 회기별 프로그램 진행 단계 및 내용과 의미를 서술하였다. 이밖에 회기별 진행 안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한 후 1차 전문가 평가와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쳤으며 1차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예비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V 장은 연구 문제 2의 ‘중도입국청소년의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결과로써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단계별 내용을 초기 탐색단계(1~2회기), 중기 인식단계(3~5회기), 중기 변화단계(6~8회기), 중기 성장단계(9~10회기), 후기 통합단계(11~12회기)로 나누었다. 단계별 프로그램 내용을 제시하고 연구참여자들의 단계별 변화과정과 예술 작품 사진을 제시하고 작품 설명에 대한 자기 서사를 서술하였다.

VI 장에서는 집단표현예술치료 경험에 나타난 상호주관성을 탐색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어디에도 없는 나’, ‘겹침으로 스며들’, ‘회복으로 화해함’, ‘부유(浮遊)하지 않는 유목’으로 나타났다.

첫째, ‘어디에도 없는 나’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라는 낯선 환경 앞에서 무기력, 분노, 위축 혹은 긴장감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보다는 과거의 삶의 기억을 빌어 자신을 회상하는 모습으로 현재를 사는 주체적인 인격으로 존재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를 ‘새로운 만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답을 찾아 적응해야 하는 ‘압도되는 환경’으로 인식하였고, 양가적 감정을 가졌다. 이는 자신을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 타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지향성을 가진 주체가 아닌 불안하고 긴장된 타자로 인식하며 자기의 주관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둘째, ‘겹침으로 스며들’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고 낯선 환경의 자극을 경험하며 겹침의 영역을 확장해 가며 나와 집단원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게 되었다. 학교 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구별되어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동질 집단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간과하였던 집단 내의 이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동등한 상호작용이 이루지 못하고 다문화와 비다문화라는 큰 경계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안전한 표현과 공유된 이해를 통해 개별적인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 배경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 문제뿐 아니라, 청소년기 또래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초반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대신 집단 내에서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의 아픔을 전가하는 등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상호 간 상처받는 관계로 소모하고 있었다. 이때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은유와 상징을 통한 안전한 표현의 방식을 제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매회기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를 탐색하며 자기 이해와 자기표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간구하며 몰입하였다.

회기 초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폭발하는 형태로 다루었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개방의 범위나 욕구를 조절하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자 안정감을 느꼈으며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주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또한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렇듯, 집단표현예술치료의 과정에서 예술창작과 신체활동을 포함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와 타자의 존재를 경험하며 상호 존중하였다. 이는 인지적인 타인 이해를 넘어 타자에 대한 공감적 실천과 친밀감을 가지며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회복으로 화해함’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비자발적이고 준비 없는 이주와 분리의 문제는 상실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들이 모국에서 성장기를 거치며 어느 정도 사회화를 이루고 정립한 정체성은 한국 이주 후 적응 과정에서 자기 존재의 뿌리가 뽑힌 것과 같은 거절감과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무능함과 맞물려 과거 모국에서 삶의 기준으로 낮은 환경에 대한 경직된 사고와 부정적 정서를 양산하고 수동적인 행동으로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한 모습이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학과 수업에 참여가 불성실하며 학업성취를 포기하는 모습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까닭에 학교생활에서 학습이나 생활 적응을 위한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학교 밖에서는 술, 담배, 이성 문제 등으로부터 안

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언어적 다양한 표현의 방안을 제공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의 분리과 이주의 과정에서 억압한 내면의 부정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애도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표출된 정서를 수용하고 공감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집단치료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내적 자원을 재발견 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보편성을 기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유대감을 경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내적 자원을 새롭게 확인하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서로 돌봄과 지지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나누며 주어진 삶에서 적응과 성장을 위한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을 느끼며 상호 보완적인 연대를 이루었다.

넷째, ‘부유(浮遊)하지 않는 유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회기 초반 위축되고 긴장한 모습 혹은 피상적이고 과장된 감정표현 등 주체적인 자기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또래 간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기분 전환을 위해 서로를 조롱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기, 어른인 듯 행세하며 또래에게 자신을 과시하며 비교하기 등 주체와 주체의 동등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서로의 공유된 상처를 공유할 용기를 내었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또래 앞에서 확인하고 지지받는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며 자기 모습 그대로 안정감을 느꼈다. 이러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주체적인 미래를 계획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낯선 환경에 위축되기보다 대학 진학에 대한 꿈, 자격시험 및 학업에 대한 열정,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 설정 및 자립계획 등 낯선 환경 및 타자와의 새로운 조우를 기대하였다.

VII 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와 정책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기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구안한 집단표현예술치료프로그램의 잠재적 치료 효과와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논의 및 제언

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가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 탐색을 위한 정교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을 상호주관성 관점에서 탐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초안 작성, 1, 2차 프로그램 설계 및 예비 사례연구 진행 후, 두 차례에 걸쳐 총 6인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 최종안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문헌 연구와 전문가 평가 및 예비 사례연구의 단계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 증진에 기여하고 이들의 적응 및 성장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다른 독특한 유형임을 강조하고 지원의 차별성과 지원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송민경 외, 2017; 양미진 외, 2012). 또한 이들의 적응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주와 정착의 맥락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서덕희, 2013). 그럼에도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는 집단치료로 진행하여 전체 12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초반 회기에 감각자극으로 주도적인 자기 탐색과 이해를 통한 자기표현이 가능한 개인 작업으로 구성하였고, 중기와 후기에는 자기수용을 시작으로 타인 이해와 수용,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와 분리의 심리 외상을 다루며 상실에 대해 애도하고 내적 자원을 탐색하는 회기를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탐색, 인식, 변화, 성장, 통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 형성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의 공동체 활동 안에서 진정성을 배우고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와 타자를 주체와 객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주체 간 상호주관성을 강화하고 점차 더 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이를 통하여 타문화와 사회를 향하여 연결성을 확대한다는 (Rogers, 199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상호주관성의 양상을 질적으로 탐색하여 다문화상담으로서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 간의 주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주관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 통합정책에 우선하여 사회구성원이 만들어 내는 사회 내 통합의 중요성(김영순, 2023: 63)에 근거하여, 이 연구가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은 대부분 상담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자인 중도입국청소년이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에서 말하는 억압과 차별의 대상자(김보라, 오영섭, 2021: 247)라는 의미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호주관성 탐색하여 한국에서 출생하고 자란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차이가 있는 우리 사회 이주배경 청소년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모국에서 일정 기간 성장기를 지내며 사회화 과정을 거친 후 어느 정도 정체성을 확립한 후 이주하며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과 정체성 재정립 과정에서 이들이 주체적 자아로 성장하는 데 겪는 난관과 한국 이주 후 성장함에 따라 진로와 자립 등 독립에 대한 부담은 이중문화 적응의 어려움과 함께 중도입국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중도입국청소년이 자신을 시혜의 대상인 소수자가 아닌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나와 타자 간의 동등한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은 이들이 건강한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선하는 적응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집단표현예술치료 참여 과정에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나와 타자와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관계를 통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하여 이들의 주체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국내연구에서 상호주관성은 대부분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윤옥, 2007; 김지원, 남미자, 2023; 박소령, 2014; 박정애, 2013; 오종숙, 2009; 이윤빈, 2017; 장한업, 2016; 한은경, 2014).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목회 상담 등 특수상담(장정은, 2017) 및 무용 예술치료(고현정, 2020)에서 일부 연구되고 있으며 사회적 극놀이 상담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정정희, 배재정, 2006; 이지영,

2011; 황윤세, 2008). 이렇듯, 중도입국청소년을 참여자로 한 상호주관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생애 발달기의 공통성이 있는 청소년의 상호주관성에 관해 일부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재활사업 수혜 경험을 가진 부자간 상호주관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호주관성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주장한(박해선, 2020)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가 내재한 상호주관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창의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Betz, E.,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밖에 상호주관성을 형성하며 공유된 소속감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문화적 변화를 두려워하는 개인에게도 낯선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상호주관성을 이룰 수 있다(Leung 외, 2008). 와 같은 결과이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 심리 외상 경험의 치료개입으로 집단표현예술치료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비자발적이고 준비 없는 이주로 인해 다양한 심리 외상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강남, 2019; 김성천, 2010; 김재훈, 황지연, 2023; 송원일, 유진이, 2018; 이은정, 2019).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초기 연구는 학습 및 한국어 등 교육적 측면의 지원에 집중하였다(김은경, 김현주, 2017; 김진희, 2011).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의 정신건강 지원의 영역 중에서도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외상에 대한 개입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국내연구에서 상실에 관한 외상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죽음 관련 외상 경험(길은영, 2022; 김민지, 전윤경, 한유진, 2020)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의 외상치료로서 예술심리치료를 적용한 사례는 탈북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김정희, 김선희, 2016)와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치료(서현주, 2023)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정희, 김선희(2016)는 양적연구를 진행하여 탈북 이탈 청소년의 외상치료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결과만을 다루었을 뿐, 예술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질적인 변화양상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이주와 분리 과정에서 경험한 상실을 심리 외상으로 규정하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이주 후 적응하는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하여 이들의 심리 외상치료를 위한 위기 개입적 표현예술치료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서현주, 2023). 외상을 경험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대처는 대개 떠오르는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러한 감정을 촉발하게 하는 사

진들에 대해서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표현예술치료 과정에서 심리 외상의 내적경험을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예술 매체를 통해 안전하게 대면하고 표출할 수 있었고 이를 집단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애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대처 전략을 수정하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며 외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술치료가 심리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정서를 회복을 촉진한다(김은정, 2024)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집단표현예술치료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언어소통의 제약과 더불어 상담에 거부적인 청소년기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적용하기 효과적인 심리·정서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표현하기를 거부하며 아동이나 성인 상담에 비해 까다롭고 언어만으로 상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상담의 효과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나하주, 한영주, 2017). 이러한 청소년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 연구의 집단표현예술치료에서 단일 매체를 활용한 예술치료와 달리 매회기 2가지 이상의 다양한 표현예술 매체와 기법을 활용하고 신체 동작 활동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차별성을 주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구성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였다. 이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흥미를 느끼며 활동에 몰입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적 연결을 통한 심리적 치유가 가능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집단원 간 단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안전한 스킨십을 경험하며 신체활동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성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애착 증진 및 유대감과 결속력을 증진하였으며 자기 개방과 표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에 집단표현예술치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연구참여자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의 과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따라 점차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몰입하며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표현예술치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동이나 공감 능력 향상, 자발성을 촉진하고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협동심과 자신감을 가진다(Sweeny & Homeyer, 1999)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섯째, 이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에서 통역자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내 통역사의 개인 사정으로 외부에서 통역자를 섭외하여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 상호소통을 도왔다.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단계에 통역자가 같은 독립국가연합(CIS) 권역 출신임에도 통역자에



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비난하며 소통을 거부하는 역동을 보였다. 이는 통역자의 역할이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심리치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제시하여 통역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중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서현주, 오영섭, 2022)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이 학교 정규시간에서 반복하여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선입견과 또래의 시선을 의식해 상담에 거부감이 컸고 표현예술치료를 경험한 적은 전무하였다. 그러나 종결 시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연구자가 하는 프로그램에 재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라포 형성의 성공 여부는 심리치료 결과를 좌우한다. 라포 형성이 쉽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며 성장을 이루기에 12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약 4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라 하기 어렵다. 현재 학교 상담의 경우, 대부분 언어로 진행되는 개인 상담이며, 중도입국청소년 심리 지원체계는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지자체 위탁 운영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운영프로그램 또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연구자는 외부 강사로 연구참여자들을 만나 이들의 생애 발달 및 적응 과정을 잘 알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고, 학교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서사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구자에게 공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의 보호 요인이 되는 학교 내에서 학과 정규시간에 예방 차원의 심리치료 지원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심리치료 전문가와 지속해서 신뢰를 쌓으며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신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개입을 정서적 주 호소 경감을 위한 단기목적으로 실행하는 대신 다양한 주제로 단계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기 자립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문화 다양성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상호 적응을 이루어야 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비 다문화 학생들과 비교하여 동질 집단이나 그들 내에서도 이질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란 비단 한국 문화에 국한된 동화주의적 시각이 아님을 이해하고 향후 다문화 학생 간, 비다문화·다문화 학생, 다문화 학생과



부모, 다문화 학생과 교사(통역 교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상호 관계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양육자, 중도입국청소년이 학교 기관에서 만나는 교사와 통역 지원인력 등은 이들의 성장과 자립의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 세력이지만 현실은 바쁜 일정과 업무로 이들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이해하고 돌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학교 기관은 위계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다양한 비언어적 신체 동작 활동 및 표현예술 매체를 활용한 표현예술치료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대하며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중도입국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교육 목적 표현예술치료를 제안한다.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또래 관계 환경은 사회성 발달뿐 아니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생애 발달기를 보호자나 양육자의 지도나 관심 없이 지내며 가족관계 어려움, 또래 관계의 갈등 및 술, 담배, 음성적 성문화 등에 노출되어 청소년도 어른도 아닌 혼란한 정체성을 지닌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청소년 성장을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이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지원 마련의 방안이 될 수 있다(신규리, 박수정, 2014: 120).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교육 목적 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새로운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역량과 더불어 문화, 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 등 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심리치료 전문가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상담역량을 가진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생애 발달과 문화를 포괄하여 접근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의 상호주관적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의 참여 경험을 상호주관성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나타난 정성적 결과물을 탐색하였다. 향후 더욱 세분화한 주제 탐색과 이론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 배경의 아동·청소년, 이주민, 유학생과 더불어 이문화 성장배경을 지닌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녕과 정신건강이 개선되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수경(2021). 다문화사회와 국제이민자 문화적응 연구: 러시아어권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이론적 검토). 러시아유라시아연구, 6(-), 41-58.
- 고현정(2020). 성인여성의 의례기반 집단표현예술치료 체험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마리아(1995). 난화 상호 이야기법을 통한 미술치료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마리아(2006). 난화기법의 재활용. 한국재활심리학회. 183-186.
- 곽승주, 전순영(2013).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 및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5), 991-1012.
- 교육부(2017). 2017년 교육부 다문화지원 계획안.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moeblog/220909378876>.
- 교육부(2023).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4267>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Retrieved from <https://www.edu4mc.or.kr/edu/list.html?field=THEMES&value=4&event=like>
- 국립정신건강센터(2023). Retrieved from https://www.ncmh.go.kr/research/board/boardView.do?no=4542&fno=84&category=report01&menu_cd=03_02_00_02&bn=SNMH_COMMON_BOARD&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
- 기획경(2022). 대학생 주체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길은영(2022). 상실을 경험한 우울 청소년의 발달적 애도를 위한 미술심리치료 사례연구. 미술심리치료연구, 1(2), 19-44.
- 김강남(2019).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이정민, 정미지(2016). 탈북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통합적 예술치료 체험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2(5), 17-32.
- 김명수, 고진호(2021). Finding My Voice에 나타난 ‘제3의 공간’의 행위자의 주체성.



- 인문사회21, 12(4), 2581-2594.
- 김명정(2011).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학회지, 17(2), 55-76.
- 김명철(2007). 창의성 측정 도구 고찰. 교육연구, 26(-), 43-75.
- 김미경(2020). 집단미술치료에 나타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자기표상 특성에 관한 정신분석적 이해. 정신분석심리상담, 4(-), 141-169.
- 김미란(1996).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이해: 청소년문화, 주체성과 권력의 관계 연구. 원우론총, 14(-), 91-121.
- 김민선, 김재훈, 고은영(2022).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진로 선택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5(1), 111-141.
- 김민지, 전윤경, 한유진(2020). 반려동물을 상실한 성인의 애도와 외상후 성장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지, 20(1), 227-246.
- 김민화, 김준형(2013). 사진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의식과 삶의 목적 수준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20(3), 39-55.
- 김병철, 김성삼, 박선희, 박정민(2016). 미술치료사를 위한 매체연구 및 기법실습. 서울: 양서원.
- 김보라, 오영섭(2021).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0(5), 231-252.
- 김선현(2009). 컬러가 내 몸을 바꾼다. 서울: 넥서스.
- 김선현(2013). 임상미술치료를 위한 그림심리평가. 서울: 이담북스.
- 김선형, 박미경, 천성문(2016).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청소년의 자기표현, 자기효능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109-136.
- 김성동(1993). 상호주관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송렬, 장안서(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동네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1), 59-80.
- 김승일(2010). 발달장애 청소년의 무용수업효과 사례연구.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64(-), 37-54.
- 김연정(2015).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영유아 아동정신건강연구, 8(2), 93-115.



- 김영갑(2005). 주체성의 표현형식: 몸, 도덕, 그리고 스포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3(1), 35-44.
- 김영순(2023). 이주민 정책이 인구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 서울: 렛츠북. 35-66.
- 김영순, 김금희(2012). 다문화가정자녀 멘토링 사업 참여 대학생 멘토의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3), 453-476.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영순, 정지현(2018).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진로개발 경험에 나타난 전환학습 탐색. 교육문화연구, 24(2), 727-744.
- 김영천(2014).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2판.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정상원(2017). 질적연구방법론 V.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 정상원, 조재성(2019). 질적연구 아틀라스.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김은경, 김현주(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 상담학연구, 18(2), 245-270.
- 김은숙(2019). 표현예술치료의 창조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다양한 예술매체의 창조적 연결을 활용한. 상담학연구, 20(1), 269-287.
- 김은정(2020), 예비교사의 다문화 교사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주체성과 타자성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6), 707-728.
- 김은정(2024).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상재각본 기반 예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2016). 이주배경청소년 구성 전망과 정책요구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발표 토론회.
- 김재훈, 황지연(2023).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149-184.
- 김정향(2023).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위한 소매틱 표현예술치료 현상학적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1(1), 21-41.
- 김정희(2016).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 불안 및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김선희(2016). 집단미술치료가 남한 거주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과 자



- 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2(1), 197-219.
- 김지원, 남미자(2023). Biesta의 실천적 상호주관성 개념에 비추어 본 기술기반 미래학교 알트스쿨의 비판적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4), 223-237.
- 김진경(2014). 인간 대상 연구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한 연구자: 연구대상자 관계 윤리정립. 생명윤리, 15(2), 1-14.
- 김진숙(2001).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진숙(2005a).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KEAPA PRESS.
- 김진숙(2005b). 상담자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13-831.
- 김진희(2011).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다문화교육연구, 4(2), 43-72.
- 김태완(2014). 심리치료에서 치료자-내담자 간 상호주관성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2016). 이주배경 청소년상담의 치료적 요인 탐색: 상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교육연구, 26(2), 77-111.
- 김현희(2008). 보육시설-가정연계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이 영아의 읽기 흥미도와 의사소통능력 및 모-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효정(2013). 미술치료의 번갈아그리기 기법에서 체험되는 관계 바라보기 따돌림을 겪는 남자아동과의 번갈아 그리기를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9(4), 145-169.
- 김효정, 조규필(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7(1), 59-103.
- 나하주, 한영주(2017). 비자발적 청소년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 과정: 상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1-31.
- 남부현, 김지나(2017).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 문화, 4(1), 63-90.
- 노미영(2018).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사례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민정(2018). 집단예술치료가 학교 학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분노, 자기연민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푸른, 손정락(2014). 수용전념치료(ACT)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885-907.
- 도세훈(2003). 엠마누엘 레비나스에 있어서 타자성(alterity)의 교육적 의미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이트, 노만(2016). 트라우마 상담법. 금병달, 구혜선 (역). 서울: 두란노.
- 류방란, 오성배(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기회와 적응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류분순(2000). 무용동작치료학. 서울: 학지사.
- 민향식(2017).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중국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형, 최선남(2017). 자폐스펙트럼 아동과 미술치료사의 상호주관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미술치료연구, 24(-), 551-576.
- 박선영(2013). 외상후 스트레스 아동의 미술치료사례연구: 정서조절과 자아개념 증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용, 우현정(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인 되기: 중도입국 학생의 적응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사회이론, -(4), 211-258.
- 박선정(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0, 71-94
- 박소령(2014). 토의 주제 유형에 따른 상호주관성 양상 연구. 화법연구, -(25), 133-158.
- 박순덕, 김영순(2012). 미술과 교육과정분석을 통한 다문화미술교육 방향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6(2), 331-358.
- 박아청(1993). 청소년 상담이론 모형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이론. 학생지도연구, 11(-), 53-70.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40-162.
- 박아청(2010). 에릭슨의 인간 이해. 원전은 1963. 서울: 교육과학사.
- 박원주(1998) 상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이 내담자가 지각하는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2023).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 적응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철(2012). 미적 감정과 상호주관성: 칸트와 후설의 비교를 중심으로: 칸트와 후설의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 111(-), 121-157.
- 박인철(2015).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서울: 아카넷.
- 박정, 장현아(2015). 상호주관성 이론과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치료자-내담자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게슈탈트상담연구, 5(2), 1-13.
- 박지영(2018). 상호주관적 명증의 현상학: 후설을 토대로, 그리고 후설을 넘어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창민, 조재성(2016).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박혜정(2018). 표현예술치료의 연구동향 분석: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반성택(2004). 후설 현상학에서 공동체 논의의 출발점. 현상학과 현대철학, 23(-), 35-67.
- 배교선(2023). 청소년의 공감능력 함양을 위한 허난설현 시가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상률(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9.
- 백미화(2023). 한국 전통 상.장례 문화에 나타난 죽음관이 상실대처에 미치는 영향: 데리다의 애도이론과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연구, 73(-), 79-94.
- 백양희(2014). 아동, 청소년 그림진단 및 해석. 서울: 학지사.
- 법무부(2024). Retrieved from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변수연(2013). 대학 입학사정관제 정책 집행 과정의 디커플링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덕희(2013). 이주민 집단에 따른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생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2), 23-58.
- 서봉평(2020). 통합예술치료가 시각장애아동의 사회적응능력과 어머니의 심리건강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은숙(2016). 중도입국(이민) 청소년 다문화교육. 윤리연구, 1(106), 275-304.
- 서은주(2021).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연구:



- 생태체계 모델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중심으로.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10(3), 179-202.
- 서은주, 차승은(2022).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119-141.
- 서현주(2023). 심리 외상을 경험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위기 개입적 표현예술치료 사례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9(4), 77-103.
- 서현주, 오영섭(2022).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중재프로그램 관련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분석. 교육치료연구, 14(2), 267-285.
- 서현주, 최명선(2021). 이문화 성장배경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표현예술치료 효과연구: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6(5), 187-216.
- 석희정, 하춘광(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설진배(2021). 다문화 환경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미래연구, 4(1), 151-179.
- 성미나, 홍성화(2010).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행동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8(2), 57-69.
- 성수나(20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융합연구, 4(1), 51-78.
- 송민경, 김진원(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입국 전·후 삶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 103-139.
- 송민애(2010). 청소년상담에서의 문화체계적 관점. 성결심리상담, 3(-), 28-44.
- 송연우(2019).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9(2), 101-122.
- 송원일, 유진이(2020). 이주배경 귀화청소년의 한국인 정체성 인식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 18(2), 3-13.
- 송현중, 신소정(2014). 발산적 기법 중심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우울과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1(2), 55-87.
- 신규리, 박수정(2014).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 및 여가인지력에 대한



- 여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여가학연구, 11(3), 119-137.
- 신지은, 박부진(2014).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한 표현예술치료가 산재환자의 PTSD 증상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683-713.
- 심승우(2022).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과제. 통일과 평화, 14(2), 347-386.
- 안이정, 정여주(2020). 위기청소년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83-106.
- 안진숙(2023).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문화교류와다문화 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2(4), 77-98.
- 양계민, 조혜영(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양미진, 고흥렬, 김영화, 이동훈(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87-113.
- 여성가족부(2021). Retrieved from <https://www.rainbowyouth.or.kr/posts/board3/18165>.
- 여성가족부(2022). Retrieved from <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 여성가족부(2023). Retrieved from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 여성가족부(2024). Retrieved from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 연보라, 이운주, 김현철(2019). 이주배경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80.
- 엔원화(2014) 그림으로 심리 읽기: 그림 속에 숨겨진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유 여행. 박지민 (역). 서울: 웅진서가
- 오승진, 류정미(2014). 미술 심리 진단평가. 서울: 동문사.
- 오승환, 좌현숙(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2), 385-412.
- 오영섭(2019).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영애, 최명선(2019). 조현병 여성 환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본 표현예술치료경험의 의미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22(3), 199-229.



- 왕금미(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은철(2012). 애도예찬: 문학에 나타난 그리움의 방식들. 서울: 현대문학.
- 우시정, 손철우(2018). 아동기 상실의 고통에 따른 치료적 애도: 현장사례연구 중심으로. 목회와상담, 31(-), 130-165.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성, 김한별(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나래(2016).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에서의 창조적 연결성 척도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2(2), 49-74.
- 유나래, 박성현(2016). 소마중심 표현예술치료를 활용한 PTSD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기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2(1), 79-105.
- 윤경미, 최선남(2017). 표현예술치료로서 그림책 창작과정이 가지는 의미. 미술치료연구, 24(3), 801-821.
- 윤수진(2022). 전입신병의 명화감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근매, 아오키도모코 (2017). 상징사전. 서울: 학지사.
- 이남인(2003).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의 문제. 철학사상, 16(-), 29-70.
- 이남인(2006).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레비나스의 타자의 현상학. 현상학과 현대철학, 28(-0), 1-38.
- 이남주, 김민(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다문화교육연구, 10(1), 141-170.
- 이덕희(2016). 다문화청소년들의 스트레스대처, 사회적 지원,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태도 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6(3), 760-770.
- 이동열(2023).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청소년 사역의 대안. 신학정론, 41(2), 519-559.
- 이민정책연구원(2021). Retrieved from file:///C:/Users/admin/Downloads/IOM+MRTC+RR+2013-06.pdf.
- 이병철, 송다영(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3(4), 131-154.
- 이승희(2014). 놀이치료자의 내적경험이 치료적 관계와 놀이치료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교육치료연구, 6(2), 229-250.



- 이은정(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 하위 유형별 우울의 변화와 예측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임숙(2016). 이게 정말 나일까? 의 치료적 요인들: 알롬(Yalom)의 치료적 요인을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8(2), 105-121.
- 이재희, 김기현(2014).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눈을 통해 본 이주 후 초기적응 경험-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한국아동복지학, -(45), 103-130.
- 이정주(2021). 콜센터 상담원의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대면·비대면 통합방식 표현예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1(2), 87-116.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3). Retrieved from <https://www.rainbowyouth.or.kr/posts/board11/view.do?bbsSn=18416&pageIndex=1&ctgryNm=&searchCondition=&searchKeyword=>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3). Retrieved from <https://www.rainbowyouth.or.kr/introduction/status.do>
- 이혜선, 원희량(2020).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을 겪는 초등학생의 사회성기술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3), 559-581.
- 이화도, 조희연(2018). 후설의 상호주관성에 근거한 유아교육 담론의 가능성. 교육사상연구, 32(1), 161-181.
- 임선영(2013). 외상적 관계 상실로부터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745-772.
- 임용자(2004a). 표현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음사.
- 임용자(2014b). 교육과 예술의 통합적 실천도구로서의 타말과 표현예술치료의 현상학적 관점에 관한 연구, 32(-), 185-202.
- 임태연(2021). 누가 알리-같이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데리다의 애도 이론으로 울프의 제이콥의 방 읽기. 영어권문화연구, 14(3), 199-224.
- 장은정(2017). 트라우마를 가진 노인들의 자기회복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사례연구. 무용동작심리치료연구, 1(2), 43-56.
- 장한업(2016).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찰-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2), 33-54.
- 전경숙(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준비와 정책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



- 구. GRI연구논총, 19(1), 441-473.
- 전경숙(2020). 비제도권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후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 및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35), 253-291.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22). Retrieved from file:///C:/Users/admin/Downloads/2021%EB%85%84%20%EC%A0%84%EA%B5%AD%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8B%A4%E%83%9C%EC%A1%B0%EC%82%AC%20-%20%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pdf.
- 전순영 (2011). 미술치료의 치유요인과 매체. 서울: 하나의학사.
- 전태옥(2008).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 *재활심리치료의 실제*. 157-163.
- 전태옥(2016). 인간중심표현예술치료. 2008년도 한국재활심리학회연수회 자료집. 한국재활심리학회, 157-163.
- 정남주(2010). 미술치료기법을 적용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명선(2010). 학교폭력 청소년의 공감훈련 집단미술치료 효과: 정서공감 및 공격성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4), 51-77.
- 정성미(2015).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표현과 치유.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1), 121-150.
- 정여주(2007).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여주(2014). 미술치료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정여주(2016). 미술치료에서 미술의 특성과 창의적 과정의 치료적 의미. *미술치료연구*, 23(5), 1221-1237.
- 정윤지(2019). 연금술에서 발견한 상호주관성. *연대상담코칭연구*, 12(-), 63-80.
- 정정희, 배재정(2006). 사회적 가상놀이에서 장애유아의 존재유무가 일반유아의 상호주관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5(3), 311-330.
- 정현희(2006).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월미, 이근매(201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안정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심리연구*, 9(3), 135-156.
- 조혜영(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 조혜영(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연구, 10(2), 75-105.
- 조희주(2016).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아버지의 이름: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를 사례로. 인문사회21, 7(1), 613-632.
- 조희진(2023). 무용동작치료에서 상호주관성 경험과 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존 제임스, 러셀 프리드만, 레슬리 매슈스(2004). 홍현숙 (역). 우리아이가 슬퍼할 때. 서울: 북하우스, 20-86.
- 주광순(2015). Mall의 유비적 해석학과 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 철학연구, (-)106, 27-49.
- 주리아(2010). 미술치료학. 서울: 학지사.
- 차소현, 이에스더(2020). 학령기 아동을 위한 초등 방과후 학교 국내 예술치료 프로그램 동향연구. 아동교육, 29(3), 259-279.
- 채소린(2021). 중국 출신 이주청소년들이 경험한 초국적 불안정성-학력 중단 이후 교육 및 진로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3), 177-211.
- 최대회(2014). 중도입국청소년 정체성 연구를 위한 일고찰. 다문화와 인간. 3(2), 133-165.
- 최미희, 박재연(202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7(2), 1-29.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성지, 김민선(2022). 다문화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계 및 맥락에 대한 지각과 문화적응. 현대사회와 다문화, 12(1), 83-107.
- 최영미, 송영호(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초국가적 가족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2(4), 189-213.
- 최영민(2008). 상호주관성: 정신분석 패러다임의 변화. 정신분석, 19(2), 125-138.
- 최영민(2014). 정신분석 강의, 미간행물.
- 최영신(1999). 질적 자료수집: 생애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22.
- 최외선, 김갑숙, 최선남, 이미옥(2006). 미술치료기법. 서울: 학지사.



- 최윤영(2014). 중학생의 사회불안과 이야기 그림검사(Draw-a-Story)의 반응특성의 관계. 미술치료연구, 21(2), 267-284.
- 최은우, 최선남(2014). 미술창작에서 야기된 퇴행의 자기치유적 특성. 상담학연구, 15(5), 2085-2105.
- 최은혜, 이에스더(2018). 대중문화 활용 예술치료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과 인간, 4(-). 1-21.
- 최이선(2016). 심리치료에서 상호주관성 개념의 의미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569-581.
- 최정실(1998). 교육내용의 상호주관적 구성. 교육학연구, 36(1), 37-51.
- 최현식(2021). 죽음·애도·환대의 시학 -김종삼론-. 한국학연구, (0)61, 479-525.
- 한경은(2022). 통합예술치료가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문화예술정책연구(2014). 예술치유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https://www.arko.or.kr/board/view/4009?bid=642&cid=36062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Retrieved from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brd_id=BDIDX_PJk7xvf7L096m1g7Phd3YC&cont_idx=569&menu_nix=4o9771b7&edomweivgp=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Retrieved from <https://repository.nypi.re.kr/handle/2022.oak/6014>.
- 한수현(2023).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RPR20231117007700353>.
- 한유진, 안명현, 홍정의, 정향미, 강민수, 정유진(2022). 재미있고 쉬운 예술놀이치료 기법: 발달단계에 따른 대상별 적용. 서울: 학지사.
- 한은진(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한국 가족 자원경영학회지, 17(2), 195-218.
- 한전숙(1987). 현상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 홍정의(2014). 초기청소년의 자가지각과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일생의례중심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진주(2019). 상상력 학습기반 미술관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자기표현과 사회적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노인참여자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보유순(2018). 표현예술치료를 통한 상담자의 자기치유 내러티브연구. *표현예술치료연구*, 1(1), 129-159.
- 황은선(2019). 한국인 영어교사의 정체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현정, 이윤정(2016). 푸드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155-176.
- Arnett, J. J. (1999).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on, L. (2006). Analytic impasse and the third-clinical implications of intersubjectivity theory' *Int J Psychoanal*, 87(0), 349-368.
- Baker, C. (2006). *Found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Buffalo: Multilingual Matters.
- Bargh, J. A., & Chartrand, T. L. (1999). The unbearable automaticity of being. *American psychologist*, 54(7), 462.
- Barua, A., & Das, M. (2014). Phenomenology, psychotherapy and the quest for intersubjectivity. *Indo-Pacific Journal of Phenomenology*, 14(2), 1-11.
- Berk, L. & Winsler, A. (1995).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vygotsk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hington DC: NAEYC.
- Betz, E. (2014, May). Polynesian youth hip hop: Intersubjectivity and Australia's multicultural audience. In *Ethnomusicology Forum*, 23(2), 247-265. Routledge.
- Bowlby, J., (2009). 애착: Attachment, 김창대(역). 경기도: 나남.
- Boyd Webb, N. (2011). Play therapy for bereaved children: Adapting strategies to community, school, and home setting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2(2), 132-143.
- Bradfield, B. (2013). Intersubjectivity and the knowing of inner experience: Finding space for a psychoanalytic phenomenology in research.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53(3), 263-282.
- Briere, J., & Scott, C., (2006).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New York: Sage.
- Cohen, H. N., & Carr, R. (2011). *미술치료와 임상뇌과학* 김영숙 등 (역). (2008). 서울:



시그마프레스.

- Cohen, J. A., Berliner, L., & Mannarino, A. P. (2009). Trauma focused CBT for children with co-occurring trauma and behavior problems (Review). *Child Abuse & Neglect*, 34, 215-224.
- Collie, K., Backos, A., Malchiodi, C., & Spiegel, D. (2006). Art therapy for combat-related PTSD: recommendation for research and practice. *Art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23(4), 157-164.
- Coopersmith, S. (1965).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rinceton.
- Copjec, J. (2002). *Imagine there's no woman: Ethics and sublim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Creswell, J. W. (2013).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5).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3판*.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 출판).
- Creswell, J. W., & Poth, C. N. (2017: 25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Fiorini, J. J., & Mullen, J. A. (2014). *슬픔과 상실을 겪은 아동 · 청소년 상담 및 사례* 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grief and loss, (하정희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6에 출판).
- Daniel A. Hughes. (2014). *애착중심가족치료, Attachment-Focused Family Therapy*, 노경선외(6명역), 서울: 눈 출판사, (원전은 2007년에 출판) .
- David J. Wallin. (2007). *애착과 심리치료,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공역) , 학지사.
- David J. Wallin. (2019). Attachment and psychotherapy. 25(-), 152-156.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Guilford press.
- Denzin, N. K & Lincoln Y. S. (1970a).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 Denzin, N. K. (1970b).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Chicago, IL: Aldine.



- Derrida, J. (1986). MEMOIRES for Paul de M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wey, J. (2016). 경험으로서 예술 1-2 Art as experience 박철홍(역). 과주: 나남 (원전은 1934년에 출판).
- Diana Fosha, Daniel J. Siegel, Marion F, Solomon. (2013). 감정의 치유력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노경선, 김건중 (공역), 서울: 눈 출판.
- Edelbi, K. (2020). Using Playback Theater with Adolescents in Refugee Camps in Palestine to Tell Their Stories (Doctoral dissertation, Lesley University).
- Eric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 Ericson, F. (1992). Ethnographic Microanalysis of Interaction. In M. Le Compte, W. Millroy, and J. Pressle(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p p. 201-225. New York: Academic Press.
- Ernsberger, C. (1976). Freud and the modern school. Modern Psychoanalysis, 1, 17-32.
- Estrella, K. (2023). Expressive arts therapy: A profession in a wild zone. The Arts in psychotherapy, 82, 101992.
- Feen-Calligan, H., Grasser, L. R., Nasser, S., Sniderman, D., & Javanbakht, A. (2023). Photovoice techniques and art therapy approaches with refugee and immigrant adolescents. The Arts in psychotherapy, 83, 102005.
- Forestier, Richard. (2013). 예술치료의 모든 것 김익진 (역). 서울: 강원대학교출판부.
- Fran J. Levy. (2012). 무용동작치료 치유의 예술 (고경순, 김나영, 남희경, 이상명, 최희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Fried, J. P., Leventhal, F., & Levy, F. J. (Eds.). (1995). Dance and other expressive art therapies: When words are not enough. Routledge.
- Fried, J. Leventhal, F., & Levy, F. J. 최희아, 남희경, 고경순 공역(2009). 무용 동작중심 표현예술치료사례집. 서울: 학지사.
- Gaya, H. J., & Smith, E. E. (2016). Developing a qualitative single case study in the strategic management realm: An appropriate research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and Economic Research, 7(2), 529-538.
- Gil, E. (2010). Working with children to heal interpersonal trauma: The power of play.



- New York, NY: Guilford.
- Halprin, A. (1979). *Movement ritual by anna halprin*. Kentfield, CA: Tamalpa Institute.
- Halprin, A. (1995). *Moving toward life: Five decades of transformational dance*. NG: Wesleyan University Press.
- Halprin, A. (2003). *치유 예술로서의 춤 (임용자 역)*. 서울: 물병자리. (원저 2000 출판).
- Halprin, D. (1989). *Coming alive-the creative express method*. Kentfield CA: Tamalpa Institute.
- Halprin, D. (2003). *The expressive body in life, art and therapy-working with movement, metaphore and meaning*.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Hanover, New Hampshire: Wesleyan University Press.
- Heidegger, M. (1996). *Being and time*. Translated by Joan Stambagh. SUNY Press.
- Herzog-Rodriguez, T. (2015). *Art therapists' perceptions of their work with children who have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Homeyer, L. E., & Sweeney, D. S. (2001). *Group play therapy. Modern applications to group work*, 95-114.
- Husserl, E. (1989). *현상학의 이념.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이영호, 이종훈(역), 서울: 서광사.
- Husserl, E. (2021). *상호주관성*. 이종훈(역), 서울: 한길사.
- Panksepp, J. (1985). *Mood changes, Handbook of Clinical clinical neurology-Vol.1, neuropsychology (pp.271-285)*, Amsterdam : Elsevier Science Publishers, New York-Norton.
- Jahner, G. M. (2001). *Embodying chang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expressive arts and ritual*. The Union Institute.
- Judith, Rubin. (2006). *김진숙 역. 미술치료학 개론*. 서울: 학지사.
- Judith, Rubin. (2007). *Rubin의 통합적 예술치료 읽기 (최소영, 김혜정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Kim, Y., & Park, S. (2021). *Community-based art therapy for the coexistence of South Korean Youth and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A phenomenological study*. Th



- e Arts in Psychotherapy, 76, 101860.
- Knill, P. J. (2005). Foundations for a theory of practice. Principles and practice of expressive arts therapy, 75-170.
- LaBar, F. (1970). Coding Ethnographic Materials. In R. Naroll and R. Cohen(Eds.), A Handbook of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707-72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can, Jacques. (2006). *Écrits: The First Complete Edition in English*. Trans. Bruce Fink. W. W. Norton
- Larsen, J. K., Brand, N., Bermond, B., & Hijman, R. (2003).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lexithymia: a review of neurobiological studi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4(6), 533-541.
- Leslie McCall. (2005). The Complexity of Intersectionality. *Signs*, 30(3), 1771.
- Levine, E. G., & Levine, S. K. (Eds.). (1998). *Foundations of expressive arts therapy: Theoret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evine, E. G., Levine, S. K., McNiff, S., & Meyer, M. A. (1999). *Foundation of expressive arts therapy: Theoret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 London &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evy, F. J. (2012, 1992). *Dance Movement Therapy: Ahealing Art*(Rev.ed). VA:Americ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 Liu, C. (2017).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Art Therapy (SF-AT) for sleep problems of children with traumatic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alchiodi, C. A. (1999). *아동임상미술치료 Medical Art Therapy with Children* (김동연, 최은영 공역).(2003). 서울: 학지사.
- Malchiodi, C. A. (2010). *아동미술심리이해* (김동연, 이재연, 홍은주 공역). (1998). 서울: 학지사.
- Mall, R. A. (1996). Was heißt 'aus interkultureller Sicht' ?. In *Ethik und Politik aus interkultureller Sicht* (1-18). Brill.
- of alexithymia(2003). A review of neurobiological studi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4(-), 533-541.



- Marshall, C. & Rossman, G. B.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Massat, C. R., Moses, H., & Ornstein, E. (2008). Grief and loss schools: a perspective for school social workers. *School Social Work Journal*, 33(1), 80-96.
- McNiff, S. (2017a). The question of quality art in expressive arts therapy. *New developments in expressive arts therapy: The play of poiesis*, 113-127.
- McNiff, S. (2017b). *통합예술치료* (윤혜선 역). 서울: 이담북스(원서는 2009년에 출판).
- Miriam, S.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허미화 역(1994),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 Mitchell, K. R. & Anderson, H. (1983). *All Our Losses All Our Griev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 Moore-Gilbert, Bart. (2001). *Postcolonial Theory: Contexts, Practices, Politics*. 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서울: 한길사.
- Murray, J. A. (2001). Loss as a universal concept: A review of the literature to identify common aspects of loss in diverse situations. *Journal of Loss & Trauma*, 6(3), 219-241.
- Ogden, P., Minton, K., & Pain, C. (2006). *Trauma and the body: Asensorimotor approach to psychotherapy*(norton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WW Norton & Company.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Paul Ricoeur(1999). *시간과 이야기1*. 김한식,이경래(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 Petzold, H. G. & Orth, I. (1990). *Die neuenKreativitaetstherapien*. 2 Bde. Paderborn: Junfermann.
- Pollock, D. C. (1999). *제3문화 아이들 The third culture kids: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among worlds*. (박주영 역) 서울: 비즈앤비즈.
- Rapael Capurro. (2012). Erratum to: Toward a comparative theory of agents. *AI & Society*, 27(4), 480-481.
- Ritchie, J., Spencer, L., & O' Connor, W. (2003). Carrying out qualitative analysis. In J. Ritchie & J. Lewis (Eds.). (2003).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A guide for so*



- coal science students and researchers. 219-262.
- Rizzolatti, G., & Craighero, L. (2004). The mirror-neuron system. *Annu. Rev. Neurosci.*, 27, 169-192.
- Rober E. Stake. (2000). *질적 사례 연구*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 Rogers. (2016). *치유와 사회변화를 위한 집단 인간중심 표현예술*. 전태옥, 이수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Rogers, N. (2007). *인간중심표현예술치료* (이정명, 전미향, 전태옥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3 출판).
- Schore, A. N. (2007). Review of *Awakening the dreamer: Clinical journeys* by Philip M. Bromberg. *Psychoanalytic Dialogues*, 17(5), 753-767.
- Schore, A. N. (2021). The interpersonal neurobiology of intersubjectivity. *Frontiers in Psychology*, 12, 648616.
- Seidman, I. (2009). *질적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교육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서*. (이승연, 박혜준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6 출판).
- Seo, H. J., & Youngsoon, K. (2023). Designing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to Create a Subjectivity for Migrant Youths.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14(2), 25-48.
- Shearin, E. N., & Linehan, M. M. (1992). Patient-therapist ratings and relationship to progress in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ehavior therapy*, 23(4), 730-741.
- Soldz, S., & Vaillant, G.E. (1999).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the life course: A 4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2), 208-232.
- Soto, C.J., & John, O.P. (2012). Development of Big Five Domains and Facets in Adulthood: Mean-Level Age Trends and Broadly Versus Narrowly Acting Mechanisms. *Journal of personality*, 80(4), 881-914.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49-68.
- Stake, R. E. (2000). *질적 사례연구* (홍용희 외 역). 서울: 창지사.
- Stephan, Y., Sutin, A. R., & Terracciano, A. (2014). Subjective age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10-year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83(2), 142-154.



- Stern, D. N. (1985a).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 Stern, D. N. (1985b).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 Stern, D. N. (2018).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Stern, D. N. (2000).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2nd ed), New York: Basic Books.
- Stewart, D. & Mickunas, A., (1990). *Exploring phenomenology*, Athens-Ohio University Press.
- Stolorow, R. D., & Atwood, G. E. (1998). Deconstructing the myth of the neutral analyst: An Alternative from intersubjective systems theory.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66(3), 431-449.
- Strauss, A.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bramanian, S., & Raj, I. D. F. (2012). The efficacy of an intervention on healing the inner child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among the college students.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648-652.
- Switzer, D. K. (1970), *The Dynamics Of Grief*, 최혜란 역(2011), *모든 상실에 대한 치유*, 서울: 학지사.
- Taku, K., Lawrence, G., Calhoun, A. C., & Richard, G. T. (2008). The role of rumination in the coexistence of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bereavement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eath Studies*, 32, 428-444.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 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mpleton, E. K. (2001). *Anna Halprin's Exorcism of Cancer (1975) and the surrounding discourses of dance as a healing art in the United States*. Temple University.



- Thompson, M. G. (2005). Phenomenology of intersubjectivity: A historical overview and its clinical implications. *Relational and intersubjective perspectives in psychoanalysis: A critique*, 35-70.
- Travartthen, C. (1993). The self born in intersubjectivity: The psychology of an infant communicating. In U. Neisser(Ed.). *The perceived self: Ecological and interpersonal sources of self-knowledge*(pp. 122-17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varthen, C. (1998). The concept and foundations of infant intersubjectivity. *Intersubjective communication and emotion in early ontogeny*, 15-4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varthen, C. (2001). Intrinsic motives for companionship in understanding: Their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for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22(1-2), 95-131.
- Tupes, E. C., & Christal, R. E. (1961). Recurrent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trait ratings (No. ASD-TR-61-97). PERSONNEL RESEARCH LAB LACKLAND AFB TX.
- Wallin, D. J.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Guilford press.
- Wampold, B. E. (2001). Contextualizing psychotherapy as a healing practice: Culture, history, and method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0(2), 69-86.
- Wampold, B. E. (2021). Healing in a social context: The importance of clinician and patient relationship. *Frontiers in Pain Research*, 2, 684768.
- Winnicott, D. W. (1971).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Wolcott, H. F. (1994). posturing in qualitative inquiry In M. D. LeCompte, W. L. Milroy, & J. Preissle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2-52. New York: Academic Press.
- Worden, J. W. (2007). *유족의 사별 슬픔 상담과 치료* (이범수 역). 서울: 해조음. (원저 2002년 출판)
- Yalom, I. D.,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NY: Basic Books.
- Yalom, I. D., & Leszcz, M. (2008). *최신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해림, 장성숙



- 역). 서울: 하나의학사
- Yapondjian, M. A. (2005). Using the four elements of hip-hop as a form of self-expression in urban adolescents. University of Hartford.
- Yin, R. (2003). Case study research (3r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Yin, R.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신경식 · 서아영 · 송민채 역(2016).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Yin, R. K. (2005). Introducing the world of education: A case study reader. CA: Sage.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Yin, R. K. (2013). Case study rese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Yu, K. H. (2023). The Healing Power of Building Relationships, Empathy, and Good Adults. *Journal of Humanities Therapy*, 14(2), 69-89.
- Zahavi, D., Bernet, R., Welton, D., & Zavota, G. (2005). Husserl' s intersubjective transformation of transcendental philosophy. *Edmund Husserl: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hilosophers IV*. London: Routledge, 359-380.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Migrant Youth's Intersubjectivity in the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HyunJoo Seo

Ph.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 Prof. SooJung Park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August, 2024

This study focused on the design of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and the exploration of the meanings of intersubjectivity in the experiences of immigrant youth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 order to suggest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 mental health of Migrant Youths. Migrant Youths are a new type of migrants who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and most of them have spent their growing up years in their home countries and have migrated involuntarily and unprepared due to the unilateral decision of their parents. The adolescent life developmental tasks, bicultural acculturation stress, and identity confusion that they experience make them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vulnerable and hinder their healthy growth.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group members based on physical activities and creative connections using non-verbal artistic mediums in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for the adaptation of Migrant youths. Through this, we aim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redefining self-concept and establishing a subjec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others, and to interpret i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subjectivity.

To achieve these aims, two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composition of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for Migrant Youth? Seco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Migrant Youth'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subjectivity?

In this study,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moves away from a maladaptive and benevolent view of migrant youths, emphasizing its supportive nature. It is valued as a site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where they redefine their identity through active interaction with others and where mutual respect and growth occu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other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youth from various types of migrant backgrounds to form ac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based on self-understanding as Korea becomes a multiethnic and multiracial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utilizes intersubjectivity as a theoretical lens to explain the process of redefining and interacting with their own identities. I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intersubjectivity of the collective Expressive Arts Therapy and migrant youths, this study examined the understanding of migrant youths, focusing on the definition and status of migrant youth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emotional characteristics. It also examined the discourse on intersubjectivity.

In additi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were centered on, and the goals and therapeutic factors of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were described. Finally, in order to explore intersubjectivity through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for mid-entry youths was designed based on the components of identity formation.

This study applied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o identify the meanings of the experiences of migrant youths in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of mid-migrant youths and to explore the intersubjectivity of migrant youth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seven high school-aged migrant youths enroll



ed in a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school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earcher conducted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once a week from September 12 to December 26, 2023, for 100 minutes per session, for a total of 12 sessions. After the program, photos of the participants' artworks, personal reflections, participant observation journals, video recordings of the activities, and researcher not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intersubjectivity i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for migrant youth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appeared as a 'being nowhere of myself' unable to express their individual free and independent desires, wary of unfamiliar others and environments, refusing new encounters, and unable to exist as a subjective person. Second, the participants were part of a homogeneous group of mid-migrants youths who were distinguished from non-multicultural youths in school but were unable to achieve equal relationships within this group, hiding their true selves and being 'permeated with overlaps' that were blocked by their own double barriers. Third, 'reconciliation through recovery' is a process in which participants grieve and safely express repressed feelings of loss during migration and separation, remember their homeland, and identify their identity-based inner resources. Fourth, the participants were found to be 'nomadic without floating' as they sought to expand their sense of self and other, create new meanings for their lives, and pursue subjective interrelationships.

This study focuses on mid-career migrant youths who are social minorities and vulnerable groups amidst the accelerating multiculturalization of Korean society, which has become a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country. However, this study views them as prototypes of global citizens in line with a multicultural society who have the strength to experience various cultures and languages and to view the world broadly through a broad worldview and mature values. Therefore, this study expands the discussion of intersubjectivity by imagining them as subjective human beings who are growing and becoming independent in their own liv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adolescents in the process of self-exploration, self-understanding, recognition of others and mutual respect, and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showed the overlapping of various cultures, 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of emotional caring relationships. Accordingly, they integrated the psychological trauma of migration and separation experienced in their life development and dreamed of planning a new future for their lives and growing up in a new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tersubjective relational competence between self and other based o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recovery and redefined identity of migrant youth through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Research has shown that psycho-emotional support for the mental health of migrant youths needs to be tailored to their migration context. This requires a continuum of support that reflects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migrant youth across the life course. We expect that such suppor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m as healthy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usefu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mental health support policies.

Keywords: migrant youth, expressive arts therapy, group expressive arts therapy, group counseling, psychotherapy program, cross-cultural, intersubjectivity, psychological trauma, loss, mourning, migrant mental health, adaptation, qualitative case study.

부록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참여동의서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기반 인문융합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연구 기관/ 부서 및 주소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00)
연구자 성명 소속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 서현주(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연락처/ 이메일 •공동연구자: 김영순(사회교육과 교수/ 연락처/ 이메일

연구참여권유

본 연구자는 여러분에게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기반 인문융합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이익 또는 위험(불편감) 여러분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설명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궁금한 점이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주체성 생성을 위한 미술치료기반 인문융합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종, 종교, 언어 등 문화 다양성이 높아져가는 사회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미술치료기반 인문융합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인문융합상담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미술로 만들어낸 이미지와 말이나 글로 나타난 이야기를 이용하여 자기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자기 안에 억눌러 놓았던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드러내면서 감정도 편안하게 이완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자기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새롭게 깨달아가는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길러 가며 내 삶

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과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중문화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제약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대상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는 IRB 승인 후 1년 안에 종료하게 되므로 4월~6월중에 시작할 예정으로 약 3개월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모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인천이나 경기 지역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고려인 청소년봉사단, 고려인문화원 등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관의 온라인 게시판에 프로그램 모집 문건을 게시하거나, 기관담당자에게 연구 참여 모집 문건을 발송합니다. 모집 문건을 보고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모집한 후 1차면담 이후 대상을 선정합니다. 기관담당자는 게시물 공고와 접수만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를 바라는 희망자는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기관담당자를 통해서 광고문을 게시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1차 선발 후에도 연구참여자를 충분히 모집하지 못할 경우, 먼저 선발된 자에게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여 정하고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만일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비대면으로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시간과 일정은 연구 참여자와 합의하여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4월~6월에 시작할 예정으로 기간은 3개월입니다 주 1회로 1회기에 약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총 12회 진행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프로그램 참여과정과 2차 심층면담을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 모집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자필로 된 서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진행과정 동안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참여관찰은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이루어지며 심층면담은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가 확인된 후 연구참여자와 연구참여자 부모(보호자) 동의서를 받습니다. 수집된 자료 중 개방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연구참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연구 참여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관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과정, 프로그램과정에서 연구자 및 집단 참여자와 소통하는 모습이나 나눈 이야기,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이나 글 등입니다.

둘째,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셋째,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현장노트, 사진 및 동영상, 메모 등을 활용하여 상황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참여자 부모(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얻고 실시합니다.

심층면담은 첫째,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실시합니다.

둘째,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참여 전 단계, 참여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의 경험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며 면담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대략적인 면담 내용을 공지하여 불편하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심층면담은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형식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심층면담 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활용된 녹음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후 3년 이후에 폐기할 것을 안내합니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적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나 심층면담 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유스럽지 않을시, 첫째,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참여자 수준에 맞춰 쉬운 문장과 어휘를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합니다. 둘째, 같은 나라 출신의 통역사를 대동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없애도록 합니다.

3.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이 연구에 참여할 때 연구 참여자에게 예상되는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한 신체적, 불편감 및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음과 감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 뿐 아니라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는 중에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면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나의 이러한 감정이 보통의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미술작업을 완성하며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며, 프로그램에 함께 하는 동안에 서로 연결된다고 느껴지는 든든함 등이 생겨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연구 참여자는 이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 중단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이후 불편감 등을 호소할 경우, 1급 예술심리상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본 연구자가 1~2회의 개인 상담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둘째,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며 첫 회기에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 별칭으로 부르며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프로그램 시간에 만든 미술작품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한 내용물을 연구자가 사진을 찍거나 보관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미술작품이나 이야기를 적은 내용물은 전체 12회기가 끝날 때까지 연구자가 개인별 박스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12회의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되돌려 줄 것입니다.

셋째, 프로그램 진행은 연구 참여자와 상의하여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상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외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주 1회, 회기당 약 90분 정도이며 총 12회기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매 회기마다 약간의 간식과 사례비(1회기당 10,000원)를 책정하고 4회기마다(40,000원) 정해진 날짜에 제공하며 총 12만원을 지급합니다.

넷째,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자는 석사과정에서 예술심리치료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전공, 인문융합치료 부전공인 박사과정생입니다. 본 연구자는 심리치료 전문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적인 임상수련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해외의 다양한 문화권 및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심리치료를 다수 진행하였으며 개인치료, 집단미술치료, 표현예술치료, 지능검사, 언어상담 및 부모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 10,000시간의 임상경력과 1급 예술심리상담사(제2012-****호), 1급 미술심리상담사(제2020-*****호) 자격증을 보유한 예술심리치료 전문가입니다.

4. 연구참여와 중지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 목적과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연구참여를 끝내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끝낼 수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를 끝내고 싶은 의사를 받아들여줍니다. 다만 참여시까지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해 연구가 정지 및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이유를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연구자 때문에 도중에 연구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약속한 답례는 전달하겠습니다.



5. 개인 정보 및 비밀 보장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발설되지 않을 것이며, 박사학위 논문과 부논문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연구자는 연구자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결과가 학위논문과 부논문으로 출판된 경우에도 연구참여자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비밀 보호를 위해 모든 연구자료(개인정보, 유전정보, 인체유래물 포함)는 암호화, 익명화하여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자에게 자료를 전달할 때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연구책임자만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자료 전달 시에 암호화된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안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연구 관련 문의

연구 관련 문의는 연구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연구참여자의 안녕 및 권익에 대한 문의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연구자의 개인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문자) / 이메일: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면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하십시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참여자 부모(보호자) 동의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부록 2> 연구 참여동의서 (아동 · 청소년용)

<연구 설명문 -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 부모(보호자)용>

연구제목: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기반 인문융합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책임연구자: 서현주(전화, 이메일)

공동연구자: 김영순(전화, 이메일)

무엇을 연구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기반 인문융합상담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여러분께 이번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를 통해 여러분이 살아갈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중문화 스트레스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자신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 자신의 숨겨진 능력에 대해 찾고 실천하는 힘을 키우고 자기주도적인 치유와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미술치료기반 인문융합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참여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자기 주도적이고 치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 참여는 언제인가요?

프로그램 일정은 4월~6월에 시작할 예정으로 기간은 3개월입니다. 주 1회로 1회기 당 약 90분 정도이며 총 12회기 진행합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구에 참여하는 기간은 IRB 승인 후 1년 까지입니다.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5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를 허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미술작품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미술작품의 사진, 활동대화 녹음, 연구 참여자 소감문, 집단인터뷰, 추후소감문 등의 자료를 모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든 미술작품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한 내용물을 연구자가 사진을 찍거나 보관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미술작품이나 이야기를 적은 내용물은 전체 12회기가 끝날 때까지 연구자가 개인별 박스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12회의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 되돌려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한국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구자가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선물이 있나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에 참여해 주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 사례를 해드립니다. 프로그램 참여시에는 매 회기마다 약간의 간식과 따로 사례비(1회기 당 10,000원)를 책정하여 4회기마다(40,000원) 정해진 날짜에 제공할 예정으로 총 12만원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연구참여자도 참여한 기간을 계산하여 사례비를 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프로그램에서 미술활동과 이야기나누기 등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나아가며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다문화사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로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 참여는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 참여 모집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관의 온라인 게시판에 프로그램 모집 문건을 게시하거나, 기관담당자에게 연구 참여 모집 문건을 발송합니다. 기관담당자는 게시물 공고와 접수만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는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처음에 참여하기로 했다가도 중간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연구 기간 중에 더 이상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담당 연구자 선생님께 말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화나 문자, SNS를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제 비밀은 어떻게 지켜지나요?

연구를 위해 모은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번호로 정보가 관리되어 여러분 개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 선생님들이 박사학위 논문이나 부논문, 회의 등의 연구에 대해 발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이름이나 생일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제거하고 연구 참여자를 인식할 수 있는 번호로 처리하여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중간에 참여 중단을 요청할 경우, 그 즉시 그동안에 모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 자료는 그 즉시 파기하고 이를 연구 참여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이번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번 연구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구자 책임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가하는 여러분들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전화번호: 032-860-9158)'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부록 3>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 사항(추가 동의서)

프로그램에 참여시 유의 사항<추가 동의서>

“나는 미술기반 인문융합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1. 본 프로그램에 지각이나 조퇴, 결석 없이 끝까지 참여한다.
2. 부득이 프로그램에 빠질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알린다.
3. 본 프로그램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않고 나쁘게 이용하지 않는다.
4. 그룹 원들이 마음을 드러낼 때는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 개인적으로 느끼고 생각한 것은 가능하면 솔직하게 모두 말하는 용기를 낸다.
6. 그룹 원들의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지 않는다.
7. 나와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싸인)



<부록 4> 사전 면담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내용을 써주세요.

* Пожалуйста, отметьт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ункт ○ или напишите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학년	Класс	반	성별 Пол	나이
이름	Имя	생년월일		день рождения
거주했던 국가는 어디였나요? В какой стране вы жили				
가족 구성 Член семьи				
한국에 처음 온 때는 언제인가? Когда вы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입국 연도: Год когда вы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입국 시 나이: сколько вам лет был(а) когда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한국에서 다닌 교육기관은? В каком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ы учили в Корее?		①초등학교(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②중학교 (Средняя школа) ③고등학교 (Старшая школа) ④대안학교(⑤가정학습(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⑥기타() и т.д.		
한국어 능력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말하기 Говорение		
		①가능(Умею) ②불가능(Неумею)	①매우잘함(очень хорошо) ②잘함(хорошо) ③보통(нормально) ④어려움(сложно) ⑤전혀못함(вообще неумею)	
		듣기 прослушивание		
		①가능(Умею) ②불가능(Неумею)	①매우잘함(очень хорошо) ②잘함(хорошо) ③보통(нормально) ④어려움(сложно) ⑤전혀못함(вообще неумею)	
읽기 Чтение				








	①가능(Умею) ②불가능(Неумею)	①매우잘함(очень хорошо) ②잘함(хорошо) ③보통(нормально) ④어려움(сложно) ⑤전혀못함(вообще неумею)
	쓰기 Письмо	
	①가능(Умею) ②불가능(Неумею)	①매우잘함(очень хорошо) ②잘함(хорошо) ③보통(нормально) ④어려움(сложно) ⑤전혀못함(вообще неумею)
한국에 온 이유는? Причины приезда в Корею	① 부모의 결정(родительское решение) ② 경제적 이유(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ичина) ③ 교육 목적(образование) ④ 의료적 목적(Медицина) ⑤ 모름(не знаю причину) ⑥ 기타() и т.д.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어려웠던 점 Что было самым трудным в Корее?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좋은 점 Что вам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нравилось в Корее?		
한국에 살면서 점점 힘든 부분 Что самое сложное в жизни в Корее?		
한국에 살면서 점점 좋아지는 부분 Что вам нравится в жизни в Корее?		
프로그램 참여하며 바라는 것? Что вы ожидаете от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p>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되고 싶은 나의 모습은? Что вы хотите изменить, участвуя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p>	
<p>나의 강점, 장점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p>	
<p>나의 연약한 부분, 단점 слабые стороны</p>	
<p>장래희망이나 나의 꿈은? какую работу ты хочешь иметь</p>	
<p>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유는?) Как вы думаете, что нужно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этой работы? И почему?</p>	



<부록 5> 개인 소감문

Self Journal (Личный дневник)					
날짜(Дата):	별칭(ИМЯ НИК):	회기(Граф): /12			
주제(Темы):					
작품 제목을 말하고,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Назовите название вашей работы и опишите ее):					
활동 후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을 말해주세요(Расскажите о том, что нового вы узнали о себе из этого занятия):					
프로그램 후 나의 감정을 말해주세요 Мои ощущения после п рограммы	매우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보통이다	기분 나쁘다	매우 나쁘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나의 강점은?(Каковы ваши сильные стороны, которые, по ваше му мнению, вы можете развить в будущем?):					
집단에서 내 강점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다른사람과 어떻게 협동할 수 있나요?(Как я м огу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чтобы лучше представлять свои сильные сто роны в обществе?):					
• 나는()이다. Я - () человек.					
• 나는 지금 ()을 느낀다.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прямо сейчас					
•나는 내 생활에서()행동을 실천해보고싶다. Я хочу практиковать () поведение в своей жизни					



<부록 6> 프로그램 2회기 계획안

회기	02/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안전한 공간인식 및 자기 탐색					
주제	내 마음은 지금					
준비물	호흡 이완에 필요한 명사, 다양한 그림의 잡기, 도화지, 채색 도구, 풀, 가위.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를 치는 신체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연구참여자는 양손을 등글게 벌려 자신이 편안하게 경계를 만든 후, 공간을 움직이며 자신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타인과의 거리를 인식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끌리는 한 가지 색상을 선택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색콜라주 작업을 한다. 자신의 현재 감정과 경험을 시각화하여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으로 표현한 콜라주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가진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부록 7> 프로그램 4회기 계획안

회기	04/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억압된 내면 정서 인식 및 표출					
주제	짐 가방을 싸던 그 날					
준비물	땃샤, 감정카드, 신문지와 색상지, 다양한 색상의 보자기, 풀, 가위, 글루건.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땃샤를 치는 신체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녁에 써 놓은 감정 단어를 화살 쏘기로 맞추며 본 활동을 위한 신체와 정서를 환기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과정에서 경험했던 억압된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신문지와 색상지 등 종이 찢기로 안전하게 발산한다. · 찢어진 종이 뭉치를 색 보자기에 감싸주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정화한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자들은 이주와 분리의 상실로 인한 내면의 정서를 함께 수용하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부록 8> 프로그램 5회기 계획안

회기	05/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자기의 내면 인식 및 담아주기					
주제	안아주는 집					
준비물	땃사, DAS 그림, 도화지, 다양한 색상의 채색 도구, 풀, 가위, 글루건.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땃사를 치는 신체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자극 그림(DAS) 중 2개를 선택하여 관계 양상을 그림으로 꾸며 자기 내면의 불안, 우울 등의 정서와 스트레스를 탐색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자와 함께 과자를 재료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담아 줄 수 있는 ‘안아주는 집’을 만든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원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탐색한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부록 9> 프로그램 6회기 계획안

회기	06/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정체성 인식 및 내적 자원 찾기					
주제	내가 건넌 징검다리					
준비물	땀사, 신문지, 푸른 천, 징검다리 우드락, 무지 봉제 인형, 채색 도구.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사를 치는 신체 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집단원들은 바닥에 깔아놓은 신문지에서 서바이벌하는 동작 활동으로 신문지 크기를 점점 줄여 나가며 협동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란 물 위에 징검다리를 만들어이주의 경험을 재현하는 활동이다. ·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모양의 무지 봉제 인형 중 자신을 닮은 모양을 골라 캐릭터를 꾸미고 징검다리를 건넌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집단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주와 분리의 경험을 드러내고 상호 수용하고 지지받는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부록 10> 프로그램 7회기 계획안

회기	07/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자기수용 및 내적 희망					
주제	나무를 심자					
준비물	땅사, 나무 모양 틀, 다양한 꾸미기 도구, 아이클레이, 글루건, 씨앗 캡슐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사를 치는 신체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나무와 바람으로 역할을 정한 후 나무포즈를 취한 연구참여자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대처하는 자기 역량을 발휘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상징하는 나무를 선택하여 씨앗을 심고 ‘나의 나무 만들기’를 하며 자신의 주도적 자기개념을 형성한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나무 설명을 듣고 지지하고 존중한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부록 11> 프로그램 8회기 계획안

회기	08/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상호 교류를 통한 지지와 보완					
주제	Don't worry we're here					
준비물	땀사, 탄력밴드, 다양한 색상의 도화지, 채색 도구, 풀, 가위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사를 치는 신체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탄력이 강한 천으로 만들어진 원형밴드에 집단원 모두 들어가 함께 밴드를 지탱하며 흔들림이 강한 탄력밴드 신체 활동을 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밴드 활동에서 경험한 자신의 심리·정서를 탐색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밴드 신체 활동의 소감을 나누며 집단 응집력과 유대감을 경험하며 상호 소통과 상호이해를 경험한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부록 12> 프로그램 9회기 계획안

회기	09/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상호인정과 수용					
주제	따로 또 같이					
준비물	땀사, 풍선, 사진카드, 점토, 다양한 색상의 종이접시, 전지 크기의 원형 모조지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사를 치는 신체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현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카드를 선택하고 사진을 통해 표현하고 집단원 간 상호이해의 시간을 가진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를 이용하여 공동체 내에서 자신을 상징하는 모습을 만든 후 집단원들은 다른 집단원이 만든 작품을 보완하거나 확장하여 발전시켜 준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상대방의 내면 욕구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탐색하고 공감하고 지지한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부록 13> 프로그램 10회기 계획안



회기	10/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상호소통과 성취감					
주제	어느 멋진 날					
준비물	땀샤, 따뜻한 물, 로션, 물티슈, 석고붕대, 종이 접시, 글루건, 채색 도구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샤를 치는 신체 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치료자가 따뜻한 물로 집단원의 손을 닦아주고 로션을 발라주며 정서적 보살핌과 애착을 경험한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자가 2명씩 짝을 이루어 서로에게 석고붕대 붙여주는 활동으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손 모양 석고 트로피를 만든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원 간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지지하며, 시각적으로 구현된 자기의 손 트로피를 보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진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한다. 					



<부록 14> 프로그램 12회기 계획안

회기	12/12	일시	2023년	월	일	요일
활동목표	경험과 통찰의 미래목표 설정					
주제	Go go into the World					
준비물	땀샤, 다양한 그림의 잡지, 풀, 가위, 대형 모조지, 풀, 가위					
구성/시간	활동 내용					
준비 활동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샤를 치는 신체동작 활동 리추얼로 회기 시작을 알린다. · 집단원이 손을 잡고 동글게 서서 인간 사슬을 만든 후 풀어내는 활동이다. · 집단원이 상호 소통하며 의견 조절하는 과정에서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본 활동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회기 자기의 신체 모형이 함께 살아갈 마을 꾸미기를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협동작업으로 관계 역량과 주체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발휘하도록 한다. 					
나눔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 모형으로 만든 나와 집단원 서로의 모습을 보며 나의 내적·외적 역량을 인식하고 통합하도록 지지한다. 					
마무리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를 마치며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 호흡을 통해 정서와 신체를 이완하여 정리하고 리추얼로 마무리하며 전체 프로그램을 종결한다. 					

<부록 15>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활동사진

준비 활동 및 본 활동			
			
프로그램 현수막	털실 뭉치 자기소개	마주 보고 걷기 활동	신체 물방울 활동
			
색 콜라주 작업	다양한 자극 그림	감정 사진 고르기	감정 단어 맞추기
			
짐가방을 싸던 그 날	안아주는 집	내가 건넌 징검다리	탄력밴드 활동
			
탄력밴드 이미지화	점토 만다라	점토 만다라 나눔	석고 손 애착 작업

<부록 16> 집단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개인별 작품집과 협동작업 사진

준비 활동 및 본 활동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 G	
			
바다를 건너는 종이배	12회기 마을 꾸미기 협동작업 01		
			마을 꾸미기 02